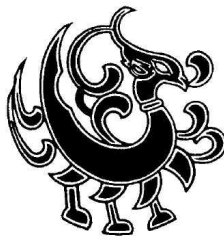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일상의 정치학



2021. 08. 20.(금)

- 장소 : ZOOM 온라인 학술회의
- 주최 : 실천민속학회

<https://zoom.us/j/99856983019?pwd=Rjh6TWxUT2xjUXNXd3BvUzZ6ZDBvdz09>

회의 ID: 998 5698 3019 / 비밀번호: 0820

실천민속학회 제44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2021년 8월 19일 제작 및 인쇄

2021년 8월 19일 발행 및 배포

발 행 : 실천민속학회

발행인 : 남근우 (동국대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B462호 남근우 교수 연구실

연락처 : 010-4566-2825 (총무이사 이진교)

e-mail : silchunms@gmail.com

제44차 실천민속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에 실린 발표자토론자의 글, 사진, 표 등의 모든 자료에 대해,
발표자토론자학회의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인사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일상의 정치학」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문화유산 연구의 초심으로 돌아가 문화유산과 일상이 가진 본연의 관계성을 되묻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이란 한때 생활자들의 일상적 삶의 일부였던 것을 그것과는 전혀 다른 위상에서, 이를테면 지역과 국가 및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년 동아시아에서는 일상의 건축물을 비롯해 사람들의 생활상, 삶의 지식과 기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제국일본의 지배와 수탈의 흔적들조차 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산(遺産)’으로 전화한 과거의 생활문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왜곡하거나 변경하기도 하고, 또 일상에 재활용되거나 혹은 정치사회적 저항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문화유산과 일상’을 둘러싼 복잡 다양한 관계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천민속학회와 국립민속박물관은 공동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유산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민속의 문화유산화와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정치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른바 ‘문화유산시대’에 분출하는 동아시아의 내셔널리즘과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소비 양상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역시 회의를 주관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국제 심포지엄만큼은 직접 대면의 가열한 공론의 장으로 활짝 열리길 고대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의 화상회의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속과 기탄없는 질의, 토론을 삼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실천민속학회장 남근우
연구이사 정수진 올림.

세부일정



학술대회 일정 [8월 20일(금)]

10:30~10:50	접속, 등록		
10:50~11:00	개회사 : 표인주(실천민속학회 부회장)		
제1세션		사회	이상현(안동대학교)
11:00~11:50	사회주의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발표	임장혁(중앙대학교)
		토론	권혁희(강원대학교)
11:50~12:40	‘민속의 풍속화’와 탈유산화	발표	남근우(동국대학교)
		토론	배영동(안동대학교)
12:40~13:30	점심		
제2세션		사회	송기태(목포대학교)
13:30~14:20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농민의 대응 :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권봉관(농촌진흥청)
		토론	강성복(충남대학교)
14:20~15:10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	발표	심지윤(경북기록문화연구원)
		토론	라연재(한국학중앙연구원)
15:10~15:20	휴식		
제3세션		사회	박선미(안동대학교)
15:20~16:10	국보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그 문화적 의의	발표	이효정(안동대학교)
		토론	유형동(전남대학교)
16:10~17:00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지역성의 재구성	발표	문효진(안동대학교)
		토론	유승완(중앙대학교)
17:00~17:30	총회	사회	이진교(총무이사)

목차



[제1세션]

사회주의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발표자 : 임장혁(중앙대학교)

토론자 : 권혁희(강원대학교)

‘민속의 풍속화’와 탈유산화 22

발표자 : 남근우(동국대학교)

토론자 : 배영동(안동대학교)

[제2세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농민의 대응 :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의 사례를 중심으로 34

발표자 : 권봉관(농촌진흥청)

토론자 : 강성복(충남대학교)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 63

발표자 : 심지윤(경북기록문화연구원)

토론자 : 라연재(한국학중앙연구원)

목차



[제3세션]

국보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그 문화적 의의 95

발표자 : 이효정(안동대학교)

토론자 : 유형동(전남대학교)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지역성의 재구성 118

발표자 : 문효진(안동대학교)

토론자 : 유승완(중앙대학교)

제1세션

사회주의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

임장혁(중앙대)

사회주의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정책 - 라오스·베트남을 중심으로 -

임장혁(중앙대)

1. 왜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무형문화재 정책에 주목하는가?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한국(문화재관리국)과 일본(의무성)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에 무형문화유산제도의 효용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사회주의 국가는 일찍이 물질문화유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었으나, 정신적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유산의 제도적 보호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 다민족 국가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국민통합을 위해 소수민족을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국에 의해 식민지를 거쳐 독립 국가를 수립하였으나 분단과 내전 등 혼란을 겪은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소수민족 정책은 중요한 과제였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존중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의 보급은 국가별 현실적 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라오스와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거쳐, 사회주의 국가독립, 다민족국가, 자유시장 개방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두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성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양국을 비교함으로써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라오스 역사

- 1353년: 라원왕국 등장
- 1707-1779년: 삼왕국시대
- 1893-1949년: 프랑스지배
- 1950년: 라오스왕국, 베트남전쟁 참여
- 1975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 정치: 사회주의국가 국가 건설, 민족주의 혁명
 - 경제: 농업생산 증대(식량자급화), 경제시스템 개혁 (집단농업화, 상업국영화)
- 1986년: 신경제시스템 도입으로 자유화와 개방화정책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2) 라오스의 민족정책

<3 민족그룹>

- 정부 공식발표의 민족 구성
 - 라오 룸(Lao Lume) : 평야 지대(400m 이하) 메콩강 연안에서 도작농업·불교, 정령숭배·식사에 손을 사용하며 찹쌀주식 → 라오, 루, 타이족 (라오어)
 - 라오 통(Lao Theung) : 중간 산악지대에서 화전농경·정령숭배·동물희생의례·'카' 라고도 불리는데 노예를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상징 → 크메르, 라멧, 로벤族 (村長, 郡長은 라오족)
 - 라오 송(Lao Sung) : 산악정상부근(1000m) 화전경작·양귀비재배, 정령숭배와 조상숭배
- 몽족(Mong족)은 프랑스 식민지하에 반항하였고 베트남전쟁에 미국편에서 라오스 사회주의 정권 수립에 우익파에 섰기에 베트남전쟁 후에 6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개방정책 후에 라오스로 돌아오는 추세.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2) 라오스의 민족정책

- * 이러한 지리적 분류체계는 프랑스의 영향이며, 1975년 혁명정부가 베트남 전문가와 상담하여 라오스 모든 민족집단에 '라오'라는 접두어를 사용하였다. '하나의 라오'라는 정치적 전략으로 단일국가형성을 체계화하려고 했다. 또한 다른 거주 지역의 타이계 소수민족까지도 '라오 룬 (Lao Lume)' 의 범위에 넣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든 타이계 여러 민족을 하나의 민족적 실체로 급속히 편입시키면 그들을 라오로 흡수하기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라오라는 민족집단이 스스로 귀속 의식을 갖고 인구의 실제 수(數)를 은폐하며, 라오라는 이름을 갖는 국가로서 라오족의 정치적 지배를 실체화 할 수 있었다. (Evans, G)
- * 1995년 정부는 민족학연구소(1988년에 설립)에 의뢰하여 라오스의 민족 구성을 47개 민족으로 정립.
- 현재는 라오족을 포함한 49민족으로 공식화함.
- * 정부의 라오화는 라오족 이외의 민족들에 대해 이동화전경작을 제한하고 저지대로 정착유인정책을 실시하여 수전 도작농 경으로 이행토록 하였으며 불교를 수용하게 하였다.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 * 문화유산은 교육부가 담당하였으나, 1982년 국가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원을 위해 이를 '정보문화관광부'로 개편하였고 「박물관 고고학국」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2003년에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비준하고, 2008년에 「박물관 고고학국」을 「문화유산국」으로 개명하여 무형문화재도 담당하게 하였다.
 - * 2005년에 제정된 『국가유산법』에는 문화·역사유산의 활용에 관한 규칙과 그 목적을 정하고, 활용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준해야 한다고 명시함
 - ① 국가 번영의 기반, 사회발전의 원동력, 또한 풍요로운 국가의 발전에 작용한다.
 - ② 보국을 사랑하고, 결속하고, 역사적 대처에 긍지를 갖고, 창조성을 구사하고, 용감히 투쟁 하며, 다민족국가인 라오스의 일원으로 단결하고,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진력하려는 국민을 교육한다
 - ③ 국가에 의한 문화·역사유산의 컬렉션을 더욱 충실히 한다
 - ④ 관광산업을 촉진한다
 - ⑤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의 보존 활동에 종사한다
 - * "라오스는 다민족국가이다. 인민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 강함의 열쇠가 된다"
- (문화유산국장 대리 Vienkeo Soukavattdy: 아세안 문화유산 포럼 2015에서)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무형유산 범위>

- 구전 전통과 범위: 민담, 구술사(탄생·기원·영웅 등 이야기), 주문(呪文), 민속구술문(자장가·구애가 등), 속담과 속어(음률이 있는 말씨), 수수께끼, 논설(고대에 기록된 문헌으로 남겨진 지식: 예·점성술·인간이나 동물의 생리·약물에 관한 문헌)
- 공연예술: 음악, 공연(신체로 표현한 감정, 느낌, 이야기), 의례에서의 음악이나 공연(극), 민요
- 사회관습:
 - 신앙: 단체, 종족 등에 의해서 지혜나 이성 또는 신념 등을 통해 어떠한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초자연, 정령, 운명, 부적, 금기 등
 - 관습: 인사나 기도의 동작과 같이 오랫동안 공동체에서 정착된 신앙이나 행동 방식
 - 전통·의례·의식: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따라하여 동작의 패턴 혹은 절차가 된 행동양식이나 신앙, 원칙 등으로 예를 들면 통과의례, 종교의식, 연중행사 등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무형유산 범위>

-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 정주: 공동체가 정착할 위치를 선정하고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지식체계
 - 조리: 전승되어온 식품의 준비, 보존, 요리, 가공 등을 포함한 지식이나 장식
 - 건강관리: 신앙, 의례, 문화, 자원 등과 관련되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수용된 공동체에서 전통적 건강요법으로 관리되는 지식
 - 자연자원관리: 토양이나 물, 숲의 보호와 같이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승되는 지역주민이나 공동체의 지식
 - 점성술과 천문학: 점술, 천체관측법, 초자연적 현상, 우주 등에 있어서 예측하거나 예언 하는 지식체계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무형유산 범위>

■ 전통공예기술

- 직조와 봉제기술: 짜기, 염색, 뜨개질, 자수, 바느질 등의 기술로 옷을 만들고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오인은 천을 자르지 않고 백이나 치마, 술 등으로 사용하기를 즐긴다.
- 바구니세공: 가느다란 나무줄기(대나무, 등나무 등)를 엮어 다양한 형태의 가재도구를 만드는 기술
- 도기제조: 강가의 모래와 반죽한 점토로 여러 형태를 만들고 유약을 칠하기도 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
- 금속장: 철, 구리, 놋쇠 등의 원석을 열처리 가공하거나 주물로서 생활용품이나 장신구, 농기구 등을 만드는 기술
- 목장: 원목이나 판자로 옷을 사용하지 않고 라오의 목조 집인 디엠티를 짓거나, 가구, 제 단, 장식품, 도구, 악기, 무기 등을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기술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무형유산 범위>

■ 전통공예기술

- 피혁장: 동물의 생가죽을 알칼리 용액에 담그고 나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수작업으로 여러 생활 도구(복과 같은 악기나 인형 등)를 제작하는 기술
 - 장신구제작: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수공예 악세서리를 제작하는 기술
 - 민속공예: 수공예로 감정을 표현하여 예술품을 제작
 - 기타 공예기술: 이상의 8개 분류체계 포함되지 않는 전통적 공예기술
- * 라오스의 무형유산의 범위와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협약을 수용하여 자국의 현황에 부합하게 적절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소수민족의 무형유산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이를 적용하여 정체성을 보존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목록작업이 진행단계에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ICHCAP에는 라오인만의 무형유산을 사진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분류(안)에서도 라오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라오 족의 켄 연주 음악 (Khaen Music of the Lao people)” (2017년 등재)
 - 라오족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애호하는 악기로 사회 및 종교행사에서 언제나 핵심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켄은 대나무(옛날에는 벼나 다른 식물의 줄기)로 제작하며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수되어 부자가 함께 연주 활동도 하며 가족과 사회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켄 음악은 가족과 마을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매체로 라오족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변함없이 상징한다. 몽족은 장례식 중 '고인의 영혼을 인도'하는 절차에서 켄 음악을 연주한다.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진 1 켄 연주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진 2 라오스 정보 문화부(문화재) 홈페이지

사진 3 (몽족 소싸움)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사진 2 라오스 정보 문화부(문화재) 홈페이지

사진 3 (몽족 소싸움)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 라오스의 소수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3) 무형문화유산 정책

- 라오스 무형문화유산의 미비한 실적-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은 경제적 상황과 전문가 부족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라오스의 식민통치에 베트남인 관리를 고용하였고 라오스가 내륙국으로 인구(약 700만 명)가 극도로 적어 경제발전이 어려운 식민지로 판단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철도, 도로, 수로 등의 인프라 정비를 하지 않았으며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3. 베트남의 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베트남 역사

- 1054년: 大越國 성립 (14C 신화가 형성되고 脫中國, 脫漢化 추구)
- 1802년: 越南國 통일
- 1887-1954년: 프랑스지배 (총독부설치-인도차이나연방)
- 1960년: 베트남전쟁
- 1975년: 베트남 남북통일
- 1976년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수립
- 1986년: 도이머이 개혁개방정책 시행과 외자도입

3. 베트남의 민족 정책과 무형문화유산

2) 베트남의 민족정책

- 동남아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은 민족의 울타리가 낮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북베트남에서도 독립 당초부터 단일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중국에서 분열국가로 여겨져왔다.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는 민족구분보다 프랑스의 지리적(북부/중부/남부) 구분의 영향을 계승하였다.
- 베트남 정부가 공인(1974년)한 민족 수는 54개이지만, '킨인(京人)'이라 불리는 '비엠티인(越人)'이 86%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타이족도 1.9%밖에 안된다. 통일이후 시행된 베트남화 정책은 대승불교 교화를 위한 종교탄압(참족-이슬람, 힌두교), 크메르족에 대한 동화정책, 비엠티족 이주정책(커피산업, 고원 개발 관광산업)등으로 비엠티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 헌법에는 민족 간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비공식적 차별이 존재한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영향)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1898~1957년: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의 고고학적 연구와 민족학, 언어학, 예술 연구
 - 1950년: 베트남 음악학연구소(Institute of Musicology)의 민속음악과 소수민족 조사연구
 - 1955년: “새생활운동”은 문화의 요소를 선별하여 봉건, 미신적이거나 낭비되고 낙후된 반 과학적인 전통을 부정하며, 마을의 봉건적인 의식과 의례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 1971년: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VICAS)는 음악, 무용, 연극 등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담당
- “사회주의에서 예술의 연구는 부르주아 문화의 모순을 파악하고 활용하거나 상응 하는 전술을 통해 사회적 진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관점에서 진행된다. 계급을 넘어서는 이해를 통해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토대를 세 우려는 것이다.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1994년 3월 하노이에서 유네스코 주최(일본 외무성지원)로 “베트남의 무형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국가적 차원의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사업이 제시되었다.
- 소멸될 심각한 위기에 처한 8개 소수민족(참족, 몽족, 썬당족 등)의 문화 보호
- 민족 및 문화관광 현지 전문가 연수 및 무형문화재 수집을 위한 계획수립 (ACCU 협조)
- 후에(Hue)지역의 궁중음악과 무용 뿐만 아니라 축제와 수공예 등 무형문화재를 보존·진흥하는 것을 돕는 주요 조치 및 계획
- 2001년에 문화유산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기본법 제정 (2009년 개정)
- 무형문화유산 정의: “무형문화유산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공동체의 (비물체문화유산)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동체, 개인, 물품, 문화적 공간에 얽힌 정신적 소산으로 구전되거나 공예교육, 공연예술을 통하여, 또는 기타의 형태로 전승되거나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2002년 시행령]

1. 언어(구어 및 문어)
2.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3. 구전언어학
4. 민속가극
5. 생활양식 및 방식
6. 전통축제
7. 전통공예
8. 민속문화지식

[2010년 시행령]

1. 언어(구어 및 문어)
2. 민속언어학
3. 민속공연예술
4. 사회관습 및 신앙
5. 전통축제
6. 전통공예
7. 민속지식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 10조 2항: 전통축제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금지사항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반대 운동을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하여 축제를 이용하거나, 국가 단일성을 훼손하거나, 대중의 무질서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b/ 미신 활동을 하거나 해로운 관습을 되살리는 행위

c/ 여러 방법으로 축제를 상업화하거나 전통축제를 왜곡하고 외국의 의식구조를 도입하는 행위. 기념보호구역에서 불법적인 숙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베트남은 국가 무형문화유산지정을 위한 법규마련 및 제도정비를 2010년까지 추진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국가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였는데, 1차적으로 31개 종목을 지정하였다.
-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11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은 1차 년도에 지정된 종목이다.
- 지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국립문화예술연구소, 음악연구소(1950년 음악가 Van Cao에 의해 '음악위원회' 설립), 민속학자협회(비정부기구)이다.
- *일본의 <문화보호조금>원조와 <폴뿌리문화보호조금>원조에 의해 유형과 무형문화재보존지원: 무형문화재는 기록보존을 위한 음향, 조명, 시청각장비 등 지원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현황:

<분야별 지정현황(2016)>

분야	민속공연예술	전통축제	사회관습 및 신앙	전통공예	구전전승	언어	민속지식
계:145 (160)	37	49	36	12	4	4	1

- 민족별 지정현황: 비엣족(100여 종목, 60%), 타이족(15종목), 자오족(9종목), 몽족(5종목), 타이족·농족·꺼두족(각 4종목), 기타 소수민족(각 1~2종목)
- 베트남의 국가무형문화유산은 14차에 걸쳐 지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학술자로 작성을 지휘하여 지방성의 인민위원회 주석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장관에게 보낸다. 이후 무형문화유산 학술자료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종목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한다. 지정과정은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 2014년 6월 정부 제62호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의 우수한 전승자 중에서 국가에 충성과 품행 등을 고려하여 '인민예능가'(20년 이상 전승활동), '우수예능가'(15년 이상 전승활동)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인류무형문화유산협약: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대표목록 등재현황>

종목	연도	분야	지역/민족
나남, 베트남 궁정음악	2008	민속공연예술 (음악)	중부/비엠티족
공 문화 공간	2008	민속공연예술 (음악)	북·중부
관호 박닌 민요	2009	민속공연예술 (음악)	북부/비엠티족
푸토 성의 홍왕조 숭배의식	2010	전통축제	북부/비엠티족
푸토 성의 홍왕조 숭배의식	2012	사회관습 및 신앙	북부/비엠티족
베트남 남부지방의 '던 까 띠아 드' 음악과 가창예술	2013	민속공연예술 (음악)	남부/비엠티족
응에-핀의 비와 잘 민요	2014	민속공연예술 (음악)	중부/비엠티족
콜다리기	2015	사회관습 및 신앙	여러 지역/ 비엠티족, 타이족, 자이족 등
세 영역을 관장하는 神神을 섬기는 비엠티족의 신앙과 풍습	2016	사회관습 및 신앙	여러 지역/ 비엠티족
베트남 중부에서 진행되는 '바이초이' 예술	2017	민속공연예술	중부/비엠티족
베트남 타이족, 농족, 타이족 '헨의식'	2019	사회관습 및 신앙	북동부에 집중적/ 타이족, 농족, 타이족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국가 전통성학립과 교육

■ “푸토 성의 홍왕조 숭배의식” (음력 3월초 일주일)

- 『월사략』을 비롯하여 여러 사료에서 홍왕의 반랑왕국 건국신화를 전하고 있다. 푸토 성의 응이아린산에 위치한 홍사원에서는 매년 음력 3월 수백 만 명이 조상을 기리고 풍년, 행운, 건강 등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 의식에는 분향식, 가마행렬, 찹쌀떡 바치기, 구전공연, 가창, 등이 포함된다. 홍왕숭배는 베트남 사람의 정신적 유대감이 구체화된 것으로 국가의 기원이나 문화의 근원 그리고 도덕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는 홍왕의 기일인 음력 3월10일에 분향식 및 축제를 개최한다.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국가 전통성학립과 교육

■ “푸토 성의 홍왕조 승배의식” (음력 3월초 일주일)

- 홍왕신화 주요 내용:

신농씨의 후손인 경양왕은 홍왕의 딸인 툰롱과 혼인하여 락롱편(Lac Long Quan)을 낳았다. 락롱편은 사람들을 악령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법과 콧 입을 것을 알려주었고,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본인을 부르라는 말을 남기고 바다로 돌아갔다. 마침내 북방을 다스리던 이복형인 데라이가 이 지역에 쳐들어왔고, 사람들은 락롱편에서 구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락롱편은 바다에서 나와 침입자의 아내인 어우꺼(Au Co)를 납치하여 탄 비엔(Tan-Vien)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락롱편과 결혼한 어우꺼는 백 개의 알을 낳았고, 100명의 아들이 알에서 나왔다. 그 중 50명은 락롱편과 함께 바다로 향했고, 나머지 50명은 어머니인 어우꺼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갔다. 백명의 아들 중 가장 용명한 자를 왕으로 추대하여 홍왕(Hùng Vương)이라 불렀다. 홍왕은 반랑(Van Lang)왕국을 세웠다.

조부(경양왕: 신농씨 후손)/조모(툰롱:수신) - 부친(락롱편: 산신) - 홍왕(난쟁:건국)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국가 전통성학립과 교육

■ “푸토 성의 홍왕조 승배의식” (음력 3월초 일주일)



사진 4 홍왕축제/학교에서 신화재현 공연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미신과 전통문화 혼란과 모순

- “세 영역을 관장하는 母神을 섬기는 비엠티족의 신앙과 풍습” (음력 3월 3일~10일)
 - 세 영역(하늘, 물, 산)을 관장하는 聖母神을 모신 사원에서 무당이 접신을 통해 인간의 건강, 사업 번성, 현세 이익을 기원하는 축제로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고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함.
 - 1998년 공산당 집행위원회의 지시와 정부수상의 14호 지시 「관혼상제, 제례에 있어서 문명적 생활양식의 실현에 관해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1975년 정부 56호 결정에 의한 공포된 규칙과 대체로 동일한데 “조상제사, 교회, 사원 등에 참배하려는 것은 신앙으로 국가가 존중한다. 점(占), 초혼(招魂), 강령술, 주술인형, 악령퇴치, 주술에 의한 병 치료 등은 미신·이단이며 국가는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2010년 「문화활동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에서 이단이나 미신의 성질을 갖는 형식을 행하면 100만동~300만동의 벌금 규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시장경제의 진전과 소득향상으로 성모신앙을 통해 현세이익을 추가하려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미신과 전통문화의 혼란과 모순

- “세 영역을 관장하는 母神을 섬기는 비엠티족의 신앙과 풍습” (음력 3월 3일~10일)
 - 2014년 베트남 정부가 유네스코에 “비엠티족 3부 성모신앙(Viet beliefs in the Goddesses of Three Realms)”이란 명칭으로 신청하였으나,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비엠티족의 3부 성모신앙 실천(Practices related to the Viet beliefs in the Goddesses of Three Realms)”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 받아(2016) 이를 반영하여 등재하였다.
 - 등재신청서에는 영매자로서 무당의 역할은 배제하고 성모신앙의 기원 대상이 역사상 전국과 구국임을 강조하고, 성모신앙이 애국심교육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성모와 그 외의 신은 므엥족, 타이족, 문족, 차오족 등 소수민족의 기원과도 관련이 있어 베트남의 민족 간 결합과 평등한 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사회에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내세운 것이며, 국내에 국민통합을 강조한 메시지가기도 하다.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직후 국가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무형유산의 본질은 공동체가 지켜 나간다. 과거의 교훈은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공동체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는 한국정부의 그에 대한 관리의 모델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 도이머이 이후에 동 중목은 미신에서 음악, 무용, 복식, 장식 등에 공들인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겨지며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제고하고 관광자원으로 높이 평가되어 2012년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 미신과 전통문화의 혼란과 모순

- “세 영역을 관장하는 母神을 섬기는 비엣족의 신앙과 풍습” (음력 3월 3일~10일)

사진 5 (영매자의 빙의/ 제의)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긴급목록>

- ‘까 주 가창’(2009등재): 시를 노래로 부르는 종합예술로 북부지역에서 전승되며 궁중가창, 경연가창, 여흥가창 등 형태가 다양하여 마을이나 궁중의 다양한 행사에 연회되어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킨다. 연행자가 고령이고 수가 감소하여 사라질 위기에 있음.

- 소르본대학 쥘 반 케 명예교수의 지원에 의해 유럽에 소개되고 「까 주 축제」를 개최

사진 6 (까주가창)



4. 개방정책과 무형문화유산

1)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책의 전개

<간접목록>

- '베트남 푸토 성의 쏘안 가창'(2011년 등재): 북부 푸토성에서 음력 첫 두 달 동안 사원이나 사당 같은 신성한 곳에서 춤추며 노래를 부른다. 가창의 내용은 홍왕이나 마을 수호신을 찬양하거나 풍작, 건강, 행운, 남녀 구애 등을 기원하는 지역축제 가창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창과 관련된 관습과 축제가 사멸되었다.

사진 7 (쏘안가창)



5. 맺음말

- 1993.4년에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보존의 필요성이 UNESCO(일본 외무성지원)에 의해 일찍이 라오스와 베트남에 소개되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무형문화재제도의 실현을 위해 추진성과(법적 정비, 잠정목록 등)를 나타내어 유네스코에서 모범국으로 알려기도 했다. 한편 라오스는 무형유산제도에 의한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 베트남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경제성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전통축제의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소수민족의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무형문화유산과 인류무형유산에 비엠허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한편 라오스에 있어서도 다수민족인 라오족 중심으로 국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수민족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범위로 민간신앙을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라오스는 국가홍보에 종교로 현실을 반영한 '정령숭배'를 포함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시행령을 개정하며 '신앙'을 포함하였다.
- 무형유산의 지정은 학계의 연구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트남의 무형유산에 음악분야 중목은 지정(약 35%)된 데는 음악연구소와 문화예술연구소의 기존 조사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금후 극동연구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최병욱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소수민족정책-남부상황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9호, 2000.
- 레티엔리 「베트남의 샤먼유산-렌동 규명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 『아시아 샤먼 유산의 보편성과 다양성-샤먼유산의 보호 현황과 과제』 2013ichcap
- 大泉 さやか 「ベトナムにおける無形文化遺産としての聖母信仰の保護と管理」, 『東南アジア研究』 Vol.56, 2019.
- 『東南アジア研究』 56卷 2號, 東南アジア研究所 京都大学 2019.
- 綾部恒雄 石井米雄 編, 『もっと知りたいラオス』, 弘文堂, 1996.
- 上東輝夫, 『ラオスの歴史』, 同文館, 1990.
- 中田友子, 『南ラオス村落社會の民族誌』, 明石書店, 2004.
- 西本 太, 『ラオス山地住民の水の儀禮』 『人と水:水と信仰』 8, 人間文化研究機構, 2010.
- Evance, G. 『Lao peasant under socialism』, Yale University, 1990.
- ----- 『Laos Culture and History』, Silkworm Books, 1999.
- Joachim Schlesinger, 『Ethnic Group of Laos: Volume2. Profile of Austro-Asiatic-Speaking People』, White Lotus Press, 1997.
- Robert Cooper, 『Culture Shock Laos: A Survival Guide to Custom and Etiquette』, Marshall Cavendish Editions, 2008.
- Thi Hien NGUYEN, 『The Government Management and the Role of Community in the safeguarding, Inventory and Nomination of ICH: The case study of Vietnam』,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Glocal Perspective on cultural Heritage: Local Communities, Researchers, state and UNESCO』, IRCH, CGS, 2017, 7.

「사회주의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 라오스 베트남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권혁희(강원대)

본 발표문은 사회주의 국가 중 동남아시아의 라오스와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양국간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인접국이자 베트남 전쟁 이후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국가라는 공통점과 함께 1990년대 이후부터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정책을 반영되고 있어 비교의 사례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듯 하여 토론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발표자는 라오스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활성화가 미약한 원인으로 경제적 저개발과 고등교육기관의 미설치 등을 들고 있는데, 그보다는 아직 국가의 통합을 강하게 추동하는 사회적 역동이 미약한 게 아닐까 한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세습과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을 하며 문화유산제도를 확장시킨 것과 비교하면 라오스는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문화적 관심에 문화유산이 중요하게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다. 문화유산은 민족적 통합이나 국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실천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인도의 경우, 국가에서 요가부를 설치할 정도로 정권의 안정과 국민적 통합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라오스의 민족구성이나 권력구조, 종교문화적 환경 등에서 라오스 국민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힘들이 이웃나라인 베트남과 매우 다를 것으로 보인다. 왜 양국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

2. 베트남은 라오스와 비교하여 관련 정책의 정비와 제도화를 치밀하게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통계로 국가무형문화유산이 145건이라면 수년 이래 매우 빠르게 지정한 것으로 북한이 120여건 지정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활발하게 무형문화유산 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은 국민적 통합으로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시장의 확대로서 새로운 관광산업의 육성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 이런 점에서 라오스가 베트남과 달리 대외 개방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정서(종교)가 상당히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3.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평가

북한의 경우도 무속은 미신으로 굿과 관련된 것은 거의 전승되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라오스와 베트남은 민간신앙에 대해서 덜 억압적인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에

한국의 굿에 대한 관리모델을 참고하여 굿의 음악, 무용, 복식, 장식 등을 아름다운 전통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실제 한국의 제도를 베트남이 어떤 식으로 수용하여 법안에 반영하였는지 궁금하다. 한국 역시 2014년 개정에 무형문화재의 분류에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이 포함된 바 있다. 또한, 2016년에 “비엠티의 3부 성모신앙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할 때 무당의 역할은 배제하고 애국적인 내용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베트남에서도 무형문화유산 지정 범위에 ‘신앙’을 포함했다고는 했으나 여전히 샤먼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산화될 수 없는 주변부로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

4. 무형문화유산과 갈등

마지막으로,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 민족들간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슈가 라오스와 베트남에서 있었는지와 이로인해 소수민족간 무형문화유산의 지정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는가? 혹은 중국과 몽골(한국)처럼 무형문화유산의 원조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속의 풍속화’와 탈유산화

남근우(동국대학교)

‘민속의 풍속화’와 탈 유산화(脫遺産化)

2021/08/20(금)

남근우(동국대학교)

1. 발제의 배경과 목적
2. ‘민속의 풍속화’론 톺아보기
3. 민속의 유산화와 탈 유산화
4. ‘일상’으로의 전회(轉回)

발제의 배경과 목적

■ 이번 학술대회의 배경과 취지

- ‘문화유산의 시대’: “소비문화산업의 메커니즘을 따라 탈중심화한 세계가 국민국가 시대의 유물로 여겨질 법한 문화유산을 향해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정수진, 6-7쪽)
- 민속의 문화재화를 넘어 식민지 근대 문물, 가까운 과거의 일상, 생활, 기억, 情動 등의 유산화 현상
- 그런 작금의 상황과 현상을 기획 주제로 대상화
- 특히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문화유산과 일상’의 다종다양한 관계 맺음과 상호작용 및 그 과정에 관여하는 多聲的 행위자들의 重層的 정치성(전략과 전술, 욕망 등) 분석, 고찰

■ 본 발제의 목적

- ‘문화유산과 일상’ 그리고 민속(학)의 관계성을 學史의 관점에서 조망
- 내일의 국제 심포지엄을 ‘깊이 읽기’ 위한 약간의 정치작업

‘민속의 풍속화’론 다시 읽기

■ 송석하, 「민속에서 풍속으로」(1938)

- “원래 民俗이란 것은 過去를 對象하고 風俗이란 것은 現實을 對象하는 것이다. 물론 민속이란 말에 官民의 ‘民’, 즉 민간의 義가 다분히 존재하기는 하지마는 그가 과거 그도 純全한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도 있는 과거의 잔존물을 對象하는 데는 여전하다. 그러므로 영어의 Folk-lore가 제일 무난히 표현하는 것이다. (中略) 민속이란 말은 이상과 같거니와 내가 여기서 쓴 풍속이란 말은 과거의 잔존물이 아니고 현대에 호흡할 만한 현대의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목의 본뜻은 인멸의 길을 밟는 묵은 것에 새 옷을 입여서 새 호흡을 시켜서 현대에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을 愚考해 보자는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 편, 684-685쪽)
- “묵은 民俗으로서 새 風俗으로 再生할 만한 것”(685쪽) 거론: 강강수월래, 索戰, 광대의 연극(인형극)
- “묵은 민속에서 새 풍속으로 죽은 데서 산 것으로 甦起하였으면 하는 婆心에서”(690쪽) 언급

‘민속의 풍속화’론 톺아보기 : 개념

■ 對 개념으로서 ‘민속’과 ‘풍속’ 인식

- “원래 民俗이란 것은 過去를 對象하고 風俗이란 것은 現實을 對象하는 것이다. 물론 민속이란 말에 官民의 ‘民’, 즉 민간의 義가 다분히 존재하기는 하지마는 그가 ...현재에도 있는 과거의 잔존물을 對象하는 데는 여전하다. 그러므로 영어의 Folk-lore가 제일 무난”
- ‘민속=과거의 잔존물’ vs ‘풍속=현실의 실제’
- ‘Folk-lore’의 번역어로서 ‘民俗’, 곧 문명사회의 민간에 잔존하는 古俗 개념을 수용한 송석하
- 주목할 것은 ‘민속이란 말에 官民의 “民”, 즉 민간의 義가 존재’한다는 언급: “民俗歡康 始製兜率歌”

■ 近似 개념으로서 한자문화권의 ‘風俗=民俗’

- Folklore, Volkskunde 舶來 이전 동아시아에선 오래 전부터 ‘民俗’이란 말 사용, 汎用한 건 ‘風俗’
- 이 ‘風俗=民俗’은 被治者의 民生, 民習, 民性, 民風, 民心, 民情, 民間 등을 포괄하는 용어
- 교화와 계몽 대상으로 愚民을 바라보는 治者의 정치적, 현재적 시선의 被射體
- ‘風化’의 실제 권력이 작동하는 실생활의 ‘현실=일상’이 곧 ‘風俗=民俗’

‘민속의 풍속화’론 톺아보기 : 함의

■ ‘송석하 민속학’의 실천성

- ‘풍속이란 말은 과거의 잔존물이 아니고 현대에 호흡할 만한 현대의 것 ... 그러므로 이 제목의 본뜻은 인멸의 길을 밟는 죽은 것에 새 옷을 입혀서 새 호흡을 시켜서 현대에 부활’하자는 것
- ‘죽은 민속에서 새 풍속으로 죽은 데서 산 것으로 소기(甦起)’
- ‘甦(끓어 모으다): 고유 민속자료의 인멸과 그 探探 및 수집: ‘소멸의 이야기’와 구제, 보존 의지(육망)
- ‘起(일어나다): 그 현대적 ‘호흡/부활/재생’의 강조 ⇒ ‘실천적’ 문화민족주의라는 특질과 好評

■ ‘민속의 풍속화’론의 함의

- 當節의 정치사회적 함의: 총력체제하 식민주의에 영합하는 ‘실천적’ 문화민족주의/共軌의 同型構造
- 학사적 함의: ‘민속의 유산화’가 발원하는 지점이자 ‘탈 유산화’, 곧 ‘죽은 데서 산 것으로 소기(甦起)하자’는 민속의 현대화론, 혹은 현대적 계승론/재창조론의 원형적 실천으로도 자리매김 가능

‘민속의 풍속화’론 톺아보기 : 주체

■ 풍속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 「남조선 가면극의 부흥 기운」(1934): 재래의 민속예술을 부흥하는 데 “무조건 찬성” 하지만 “이를 (오늘날) 채용하는 (데에)는 반드시 현실에 입각하여 현재 생활에 적합”해야 한다.
- 「인멸에서 부활로 찬연히 빛난 民藝大會」(1938): 민예대회 직후의 감상평(연출 시간과 내용, 의상, 춤사위, 탈의 모양과 색깔, 인형 제작 등에 대한 評語). 요컨대 “이 모든 것이 시대 호흡에 뒤떨어진 감이 不無한데 이것은 演者들에게도 말하였거니와 반드시 周到한 用意下에서 재음미 재출발할 필요가 있”다.
- 「민속에서 풍속으로」(1938): 재래의 민속은 “현대에 호흡할 만한 현대의 것”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 「향토예술의 보존: 봉산탈춤 보존회 창립에 際하여」(1938): 그 “현대화”는 전문가들의 “철저한 연구와 지도”에 기초해야 하며, 연행자나 제작자가 “슬데없이 改作을 하여” 향토예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當者’인 주체의 예속화

- 민속 연구 ‘전문가들의 철저한 연구와 지도’ 아래 ‘풍속화 ≒ 현대화’
- 이 위계적 구도야말로 민속의 현대화와 유산화의 이율배반을 정당화하는 非 학술적 힘의 원천

민속의 유산화와 탈 유산화

■ 민속의 '문화재=문화유산'화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이전의 '문화재'와 이후의 '문화유산': 話用論上의 차이 별로 없음
- '민속의 유산화': 한국민속학이 대상화한 민속(folklore)을 '문화재=문화유산'으로 轉化하는 과정과 행위/실천
- 근대/산업유산, 농업유산, 미래유산, 최근 복고 트렌드의 예스러운 문물들을 포괄하려면 '유산화'가 보다 적절

■ 한국민속학의 특징으로서 유산화

- 민속의 유산화에 대한 학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 및 견고한 소명의식
- : 송석하와 조선민속학회의 원형적 실천: 문화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속의 소멸 이야기와 구제, 보존 욕망
- : 민속의 경연과 예술화: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통로, 민속학자들의 민속예술경연대회 관여와 '入賞 자랑'
- : '민속자료'의 '무형문화재'화: 무형 민속자료(민속문화재)의不在와 무형문화재의 '포괄적인' 범주 해석
- 한국의 '융통적인' 무형문화재 제도 운용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체제의 성립, 이 양자의 상호작용

민속의 유산화와 탈 유산화

■ 유산화의 명분과 실리: 학사적 관점의 범박한 정리

- 농어촌 시골 마을에 전승/잔존하는 '민속자료'가 식민지화, 근대화로 말미암아 인멸의 위기를 맞이한다.
- 민속학(자)가 나서 그 풍전등화의 羅網 민속(folklore)들을 탐채(探採) 혹은 발굴한다.
- 그리고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같은 여과장치를 거쳐 국가 공인의 內셔닐한 문화재로 지정한다.
- 이윽고 소멸의 위기를 극복한 민속 事象들이 민족문화의 '원형적=전형적' 표상으로 거듭난다.
- 금세기엔 그것들을 글로벌한 문화유산으로 업그레이드하려 애쓴다.
- 이 같은 민속의 유산화가 국격(國格)을 신장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 그 영예로운 문화재/문화유산을 자원화해 지역사회의 재생과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다.

민속의 유산화와 탈 유산화

■ 민속의 탈 유산화(1): '탈춤부흥운동'

- 민속의 문화재화에 대한 문화운동권의 비판
 - 경연대회와 문화재보호법에 기초한 관 주도의 전통문화 보존: “민속을 정태적으로 파악하고, 민중적 전통을 박제화 사물화” 함으로써 “전통 민속의 표현력 자체를 왜곡”한다(문호연, 55쪽)
- 이를 토대로 '전통 민속'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현대적 재창조('풍속화')를 위한 실천 운동 대두
 - **민중성과 공동체성의 前景化**: “민중과 함께 성장하고 민중의식”을 갈무리했다는 탈춤(조동일, 14쪽), 더 붙여 “공동체성과 신명성이 가장 강(하다)는 탈춤”(문호연, 55쪽)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
 - “반체제적인 대학 사회의 전통문화 붐을 체제화”(대통령비서실, 3쪽) 하려 든 '국풍81'의 전통치레와 간소한 '체제의 襟度'(4쪽) 시현: '놀라운' 구조주의적 탈춤 해석과 回收的 轉用(정수진, 2021, 202쪽)
- '대학대중제'의 체제비판적인 “폭로의 축제 정치”(한양명, 481쪽)와 민속의 전용(appropriation)

민속의 유산화와 탈 유산화

■ 민속의 탈 유산화(2): '실천으로서의 민속학'

- '민속학자들의 가짜민속' 비판: “민속이 관속(官俗)으로 바뀌자, 마침내는 장삿속으로까지 둔갑한 셈이다.”(임재해, 1986, 27쪽)
- 유산화에 따른 '박제화' 비판과 이원적 전승론: “민중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있어야 그 문화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무형 문화재는,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어 두었다. 살아 있는 문화를 박제화하여 박물관식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화재 보호법이다. 차라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동하는 문화로서 살아 숨쉬기 나은 것으로 생각될 형편이다. 무형 문화재는 고정적인 원형 보존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 변화와 발전을 허용하는 자연적인 보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191쪽)
- 실천민속학회의 창립과 활동: “**실천으로서의 민속학은 동시대 민중들의 현실적인 삶과 문화의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주체적 대안 문화'를 모색하는 학문으로 거듭나야 한다.”(실천민속학회 편, 7쪽)
- 민속 계승론의 지향점: “연구자가 해당 문화의 바람직한 전승을 위하여 과거부터 전승되고 있는 문화 현상의 이런 부분은 저렇게 수용하고 이런 국면은 이렇게 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천적 대안 논리를 제시하는 데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임재해, 2004, 47-8쪽)

일상으로의 전회

■ 앞에서 본 '탈 유산화'론의 공통점

- 민속의 경연대회와 유산화 비판: '살아있는(생동하는) 문화'의 박제화, 사물화를 조장한다!
- 하지만 '전통 민속'이나 '진짜 민속'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민중성과 공동체성을 그 원형질로 특화
- 나아가, 민속의 현대적 계승/재창조 강조: '실천적 대안 논리' 제시와 '주체적 대안문화'의 모색, 실천

■ 탈 유산화(론)의 의의와 한계

- 당절의 정치사회적 의의: '반체제 민속'의 상징으로서 유의미한 저항적 실천, 90년대 이후 '체제 민속'에의 경종
- 학사적 함의
 - : 송석하의 풍속화론과 相同性
 - : 민속의 탈 유산화와 현대화(현대적 재창조) 지향/민속학의 실천성 강조/주체의 예측화와 엘리트주의적 위험성
 - : 근년, 본질주의 구제 민속학의 정치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대두

일상으로의 전회

■ 오늘의 과제

- '민속의 유산화와 탈 유산화'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의 민속학은 '살아있는(생동하는) 문화' 및 그 생활의 주체들과 어떠한 관계를 어찌 맺을 것인가?
- '유산화' 개념의 精緻化

■ 유산화의 再定位

- 생활자들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문화적 소산을 '유산'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자 행위/실천이다.
- 거기에선 문화적 소산들이 로컬의 생활 현장에서 가졌던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등신대의 일상과는 다른 관점, 흔히 내셔널한 민족문화나 글로벌한 '인류무형문화'의 가치로 회수되어 공적 기구에 의해 관리된다.
- 그 과정에서 '유산 가치'에 걸맞게 주조(鑄造)된 유산이 다시 일상의 생활 현장으로 환류되어, 생활자들의 실존적 삶의 필요에 따라 객체화, 재맥락화, 전용된다.(松浦雄介, 83; 岩本通彌 1; 정수진, 남근우)

일상으로의 전회(轉回)

■민속학의 위기

- 성과주의 시대와 한국민속학의 현재: '민속의 자원화'에 대한 사회의 수요 증대, 폐과와 정원 미달
- 그러면, 민속의 유산화를 추구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 성찰의 물음: '조선민속학' 출범 이래 지난 약 100년간
줄곧 민속의 유산화를 실천해 오지 않았는가?

■민속학의 가능성

- '민속(folklore)'의 방기와 '일상'으로의 전회: '風俗=民俗'의 재발견, 단 '風化' 곧 官邊의 계몽적 위치에서 탈각
- '일상학으로서의 민속학': 독일어권 민속학의 타산지석, '일상과 문화 연구회' 태동
- '문화유산과 일상'의 중층적(유네스코/국가/지방정부/지역사회/생활자), 역동적 관계성 탐구
- 민속학의 실천성과 연구자의 포지셔닝을 초점화: **중층적 상호작용과 응답성의 다양한 스펙트럼**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편, 『석남 송석하(상, 하)』, 국립민속박물관, 2004.
- 남근우, 『한국민속학 재고: 본질주의와 복원주의를 넘어서』, 민속원, 2014.
- 남근우, 「공공민속학의 가능성과 한계: 두 민속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1, 한국민속학회, 2020.
- 문호연, 『연행예술운동의 전개』,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 실천민속학회 편, 『민속문화의 수용과 변용』, 집문당, 1999.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 임재해, 『민속문화를 읽는 열쇠』, 민속원, 2004.
- 정수진, 「무형문화재 보호정책과 민속학」, 『실천민속학』 37, 실천민속학회, 2021.
- 정수진, 『문화유산의 근대와 탈근대』, 민속원, 2021.
- 한양명, 「축제 정치의 두 풍경: 국풍81과 대학대동제」, 『비교민속학』 37, 비교민속학회, 2004.
- 松浦雄介, 「産業遺産と文化のグローバル化—九州・三池炭鉱の事例から」, 『日仏社会学年報』 22, 日仏社会学会, 2012.
- 岩本通弥, 「文化遺産化と日常のポリテクス—日本における“生活文化”と“親しい日常”の系譜学」(未刊, 국제심포 발제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속의 풍속화’ 와 탈유산화」에 대한 토론문

배영동(안동대)

남근우 교수의 발표문은 민속학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으로서, 오늘날 민속학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견지하고 고민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민속학과 운영은, 전통문화로 인식되는 민속에 대한 신세대들의 경험 부족, 사회변화 등의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민속학을 갱생(更生)의 학문으로 되살려낼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설득력이 크다.

1. 발표자께서는 민속학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도입되어 자리잡을 때 활약했던 송석하 선생의 논의에서부터 ‘현재학적 민속학’의 태동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민속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민속’과 ‘풍속’이란 개념을 대비하여 살피고 있다. 송석하 선생이 밝혔듯이, “민속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풍속은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해석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민속은 관속(官俗)의 상대어 혹은 반례(班禮) 중심의 반속(班俗)의 상대어라면, 풍속은 상풍하속(上風下俗)의 준말로 상층의 ‘풍’과 하층의 ‘속’을 가리킨다는 뜻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송석하 선생이 1938년 발표한 글에 따르면, 묵은 민속에서 새 풍속으로 죽은 데서 산 것으로 소기(甦起)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발표자께서는 甦起를 ‘굶어 모으다+일어나다’로 해석하였는데, 甦는 ‘다시 살아나다’ 뜻도 있으므로 甦起는 ‘되살아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1)묵은 민속에서 새 풍속으로, (2)죽은 데서 산 것으로 하는 것 전체를 송석하는 소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송석하의 관점에 대해서, 소멸의 이야기와 구제, 보존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 호흡/부활/재생을 강조했다는 발표자의 해석이 부정될 수는 없다. 과거의 묵은 민속이 이 시대의 풍속으로 소기되기를 바랐던 송석하의 문화민족주의적 시선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고 있다.

2. ‘민속의 유산화’ 논의에서는 민속을 경연대상화·예술화, 문화재화(문화유산화, 유산화) 하고, 나아가서 민속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체제 속으로 편입되어 작동하는 구조적 양상을 지적하였다. 민속의 유산화에 대해서는 민속학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 소명의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민속 사상에 대한 한국 문화재화에 이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 방식의 유산화가 민족문화 창달과 국격 신장, 지역사회 재생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민속학계가 동참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3. 이어서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민속의 유산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그 근거는 오늘의 문화재화(유산화)가 민속을 박제화되고 상업화할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현실적인 삶과 문화 향상에 실제로 이바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온당한 지적이다.

생활자들의 일상적 삶을 유산화하면 문화현상(발표문에서는 ‘문화적 소산’)이 생활현장에서 가졌던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국가의 민족문화나 인류무형유산의 가치로 평가되어 ‘유산가치’가 중시되고 결국 공적 기구에 의해 관리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유산이 다시 일상의 생활현장으로 환류되어 사람들의 실제 삶의 필요에 따라 객체화, 재맥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속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민속을 유산화하는 데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대안은 민속을 송석하 선생의 주장처럼 살아 생동하는 풍속이 되도록, 현대적 재창조를 이루도록 민속학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길이라고 설파한다. 발표자께서는 이 시대 민속학의 실천성에 대해서 ‘일상으로의 전회(turn)’론을 펼친다. 일상으로의 전회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일상학으로서 민속학’을 지향하고, ‘문화유산과 일상의 중층적 관계성’을 해명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

1. 민속을 풍속화하고, 민속을 탈유산화하고, 민속학의 일상으로의 전회를 실천하면, 당연히 연구할 과제가 많아지고 거두어지는 성과도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미 유산화 된 민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또한 모든 민속학 연구를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민속의 탈유산화, 민속학의 일상으로의 전회로 인하여 잃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2. 일상으로의 전회론에서, 일상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일상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왜 그렇게 해야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통상 문화연구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시간에 따라, 일상과 비일상으로 대별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일상은 비일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생활자’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의 전회’라기보다는 ‘생활로의 전회’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 한다.
3. 일상학으로서 민속학을 강조하셨는데, 표명한 것과 예시로 드는 것은 일상이라기보다는 비일상에 해당하는 연중행사, 탈춤과 풍물 그리고 놀이, 신앙적 의례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런 영역과 일상의 연결고리는 당연히 있지만, 보통 일상이라고 하면 매일매일의 생존활동과 관련이 큰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노동과 생업, 일과 같은 것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께서도 평소 일반적인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대상을 주로 다루고 연구하면서 일상학으로서 민속학을 강조하는 것이 일견 덜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다.

제2세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농민의 대응 :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봉관 · 정명철(농촌진흥청)

- I. 농업유산제도의 도입
- II. 농업유산제도에 대한 평가 검토와 문제 제기
- III. 농업유산이라는 텍스트의 생산
- IV. 농업유산 보전과 전통의 소환
- V. 전통의 유용과 생강농업의 의미 재구성

I. 농업유산제도의 도입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지난 2002년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이하 GIAHS로 약칭) 제도를 창설하였다. FAO에 따르면 농업유산은 기존의 다른 유산이나 보호지역(경관)과 일정하게 구별되는데, GIAHS를 지역과 문화, 농업경관, 생물다양성 및 더 넓은 사회환경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공동체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다. GIAHS는 이상의 요건을 부합한 농업유산을 보전·관리하여 기후변화, 자연재해, 사회·정치적 변동 등에 대처하며 작게는 식량과 생계안보, 크게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¹⁾

한국에서는 지난 2012년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114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2021년 8월 현재 전 세계 22개국에서 62개 시스템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으며, 15개 시스템이 등재를 위한 신청을 완료했다. 한때 세계중요농업유산이 한중일 3국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됐다는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유럽과 남미 지역의 유산도 등재가 이뤄지고 있다. 자세한 현황은 세계중요농업유산 홈페이지(<http://www.fao.org/giahs/background/en/>, 2021.7.20.)를 참조하기 바람

를 마련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현재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16개소를 지정했으며²⁾ 그 중 5개소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대상과 기준은 관계 법령에 의해 정의돼 있으며,³⁾ 그 중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⁴⁾

국가중요농업유산(이하 KIAHS로 약칭) 지정 기준은 GIAHS의 등재 기준을 일정하게 준용한 것으로,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부분을 별도로 제시한 것 이외에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⁵⁾ KIAHS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표 1>에서 제시한 항목을 고루 충족해야 하며, 특히 이를 시스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 2)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순서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산도 구들장 논(‘13, GIAHS), ② 제주 밭담(‘13, GIAHS) ③ 구례 산수유농업(‘13) ④ 담양 대나무 밭(‘14, GIAHS) ⑤ 금산 인삼농업(‘15, GIAHS) ⑥ 하동 전통차농업(‘15, GIAHS) ⑦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16) ⑧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17) ⑨ 울릉 화산섬 밭농업(‘17) ⑩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18) ⑪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18) ⑫ 장흥 발표차 청태전 농업시스템(‘18) ⑬ 완주 생강 전통 농업시스템(‘19) ⑭ 고성 해안 지역 둠벙 관개시스템(‘19) ⑮ 상주 전통곶감(‘19) ⑯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20)
- 3) 법령에 따르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4) 2012년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2-285호」에 지정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별표1)의 내용으로 신설하였다.
- 5) 제도 창설 이후 약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① 식량 및 생계 안전성(Food and Livelihood Security) ② 농업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 ③ 지역 및 전통 지식시스템(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④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Culture,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sations) ⑤ 육지 및 바다경관 특징(Landscape and Seascape Features) 등 5개 요건을 고루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	항목	세부 기준
농업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표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2015)

이상의 지정 기준은 농업유산의 지정 목적과 연동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보전·활용하여 농촌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3년간 15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유산자원의 발굴 및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힘쓰도록 하고 있다.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계획수립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자원조사(유산/생물다양성/경관/문화 등), 전통자료 수집, 경관영향평가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개선	자원보호	자원 D/B 구축, 쓰레기 청소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가치향상	팜 파트, 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농업유산전시관 등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성, 폐가 등 협오 시설물 철거 등
가치제고	교육홍보	주민협의체 구축, 자원 및 전통기술 전승교육, BI개발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물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 축제상 등

〈표 2〉 농업유산 주요 사업 내용(예시,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업유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 2〉와 같은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⁶⁾ 예시된 내용 중 계획수립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전보다는 활용 부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표 1〉의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농업 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부분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요구는 이보다 앞선 2012년 지정 기준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당시 지정 기준에서는 농업유산의 ‘효과성-활성화 또는 생물다양성’ 항목에서 “농업유산의 지정에 따라 도농교류활동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은 GIAHS와 일정하게 다른 것으로, 기본적으로 GIAHS에서는 농업유산과 연관된 경관, 생물다양성, 지식시스템 및 문화 등을 보호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⁷⁾

문제는 농업유산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목적에서 볼 때, 관광 이외에는 두드러진 보전 및 활용방식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농업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산의 지정 목적과 활용방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다른 유산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인간의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⁸⁾ 농업유산의 보전 주체는 과연 누구로 상정돼

6)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참조(mafra.go.kr/mafra/1360/subview.do, 2021년 8월 6일 검색)

7) The overall goal of the GIAHS Programme is: to identify and safeguard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and their associated landscapes, agricultural biodiversity, knowledge systems and culture(<http://www.fao.org/giahs/background/goal-and-objectives/en/>).

8) 정명철·김상범·이민우, 「다원적 가치의 바로미터, 농업유산: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 『RDA Interrobang』217, 농촌진흥청, 2018.

있는지 위 사업 내용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가 없다.⁹⁾

물론 법률에 의해 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한 시장·군수는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함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농업유산을 보전해온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농업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장·군수는 농업유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다분히 수동적인 존재로서 주민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상의 문제는 농업유산 보전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들이 농업유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두고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¹⁰⁾

II. 농업유산제도에 대한 평가 검토와 문제 제기

1. 농업유산제도에 대한 평가

GIAHS의 도입과 KIAHS의 시행으로 인해 관련 분야의 연구도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농업유산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주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연관된 사업이나 연구의 양적 팽창을 위해 농업유산을 보전·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표의 생산이나 각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농업유산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¹¹⁾ 이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문화나 경관 또는 농업 지식 체계 등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을 위해 농업유산 후보지역을 발굴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뒤따랐다.¹²⁾

최근 들어서는 농업유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9)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무형문화재가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헤리티지 산업(Heritage industry)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기·예능’ 보다 그것을 보유한 사람 즉 보유자가 권력화된 것과 달리, 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는 농업유산 고유의 시스템과 이의 활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농업유산을 계승해온 전승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농민을 위시한 전승 관계자들이 누구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정수진, 문화재 보호제도와 전통 담론, 『문화재』47-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181-183쪽 참조).

10)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지정하여 농업유산 보전 주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유산을 보전·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완주군의 경우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2020.12.31.제정)를 마련하며 주민협의회로 (사)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를 명시하였다.

11) 윤원근·최석인,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 발굴과 보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김은자 외 3인, 「텔파이 기법을 이용한 농업·농촌유산 유지·보전 평가지표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21(4), 한국농촌지도학회, 2014.

12) 이상 농업유산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권봉관,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책의 실행과 향후 과제」, 『무형유산』4, 2018’ 을 참조하기 바람.

위한 연구가 뒤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개 농업유산 발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나 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농업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권봉관은 제도 도입 초기에 농업유산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해 단순 경관이나 작물, 무형유산 중심의 발굴과 보고가 잇달았으며, 농업유산을 발굴하여 신청한 지자체가 농업유산의 발굴에 필요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장기간의 현장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¹³⁾

이다영의 경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6개소의 보전·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행정은 농업유산의 발굴 및 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정 이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인력 확보 등의 기반 구축이 미약하고, 전문가집단이 조사 및 발굴, 지정 이후 시행 및 활동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¹⁴⁾ 그리고 그 대안으로 조사 및 발굴 단계에서 주민 주도의 조직 형성을 지원해야 하며, 어메니티 자원으로써 인센티브와 규제의 통합적 시행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민들에게 보조금이나 인증제도를 통한 농업활동 지원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¹⁵⁾

주남희는 농업유산 관련 법제 분석 및 지정 지역 관련자들과 접촉을 통해 농업유산의 문제를 진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한 개념 및 방향성 명확화, 잠재지역 제도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운영체계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 평가 기준 및 관리체계 보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¹⁶⁾

김지효·정명철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12개소의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및 FGI 조사를 통해 농업유산의 동적보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유산 지역 보전 관리의 문제점으로 주민협의체 등 보전·관리 조직이 구성돼 있으나 필수비용 지원이 없어 활동이 저조하며, 이와 연동하여 농업유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¹⁷⁾

이상과 같은 최근의 문제제기들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의 발굴과 지정, 보전관리 등의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농업유산 자체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그들에 의해 호명되고 창출된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13) 권봉관, 앞의 글.

14) 앞서 권봉관이 말한 전문가집단은 학자들을, 이다영이 언급한 집단은 컨설팅업체 관계자를 뜻한다.

15) 이다영,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6) 주남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7) 김지효·정명철, 「지속가능한 농업유산의 동적보전 방안 개발」, 『관광레저연구』32-5, 한국관광레저학회, 2020.

지역의 농민들에게 그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로 대변되는 농민들은 정작 농업유산과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선행연구가 있어 그 내용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랑 외 2인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된 담양지역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¹⁸⁾ 이들은 지자체 담당자와 인터뷰에서 전문가 및 지역협의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역 주민은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가 구성돼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협의체 대표격인 협동조합에서 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나, 주민들은 협동조합의 일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협동조합 및 위원회의 구성원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농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생적인 소득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앞의 연구자들은 펍진한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낸다. 이들은 “주민 대부분 관에서 주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사업비 계획에 관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것과, 농업유산 지정으로 인한 규제가 발생하여 “마을주민들은 불편없이 살고 있으며, 삶의 터이다. 전답도 팔고 해야 하는데 규제가 많아서 아무도 땅을 사지 않는다.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불편을 언급하며, “대나무발 관리 주체가 주민 개인인 것에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농업유산 제도와 괴리를 느끼는 이유는 농업유산의 신청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돼 있었으며, 지정 이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업유산으로 인해 규제가 발생해 불편하다는 주민의 이야기는 물론 사실일 리가 없지만, 그만큼 농업유산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¹⁹⁾ 또한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에서 수행되는 농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서 지속되는 농민의 자율적인 활동에 해당하는데, 국가에서 이를 일부나마 강제하려 한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의견은 “농업유산의 전승자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라는 것과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농업유산과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가 서로 괴리돼 있는 것은 농업유산의 지정 신청과 지정 이후의 프로세스에서 주민들이 소외돼 있기 때문으로, 그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김영랑, 김은솔·이태겸, 「근거이론을 활용한 담양 삼다리마을 지역주민의 파트너십 갈등 연구 :

국가중요농업유산 제 4호, 담양 대나무밭을 중심으로」, 『농촌계획』26-4, 한국농촌계획학회, 2020.

19) GIAHS 및 KIAHS의 지정과 등재로 인한 규제는 현재까지 전혀 없는 형편이다.

2. 농업유산 지정 과정과 농민의 소외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신청 이후 지자체 발표 및 신청서 검토, 현장조사, 보완신청서 검토 및 최종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²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를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농식품부에서는 1차 농업유산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와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현장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2차 농업유산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보완신청서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자문내용이 얼마나 보완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평가를 내린다. 농식품부에서는 2차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유산 지정 여부를 발표하는 것으로 농업유산 지정을 마무리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농업유산 지정은 ①신청서 제출 ②1차심사 ③현장조사 ④2차심사 ⑤최종발표 등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과정에서 주민으로 대변되는 농민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먼저 신청서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일정한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때 신청서 작성을 주도하는 것은 농업유산에 해박한 일부 공무원 또는 컨설팅업체 등이다. 물론 앞서 <표 1>에서 확인한 것처럼 신청서 항목에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협력 여부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때 형식적인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²¹⁾

지정 신청서 제출 이후 두 차례의 서면 및 발표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배제돼 있으며, 관련 공무원과 컨설팅업체에서 심사와정에 대응한다. 이때 농업유산자문위원들에 의해 신청서 및 발표 내용이 검토되는데, 농업유산 지정을 당면한 과제로 삼고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컨설팅업체에 의해 작성된 신청서가 1차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 내지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신청서의 내용이 자문위원들에게 인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과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한 신청서 검토와 현장조사만으로 해당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²²⁾ 더욱 큰 문제는

20) 해양수산부령 제403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

21) 2021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강진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유산 지정 지역은 강진군 강진읍,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등 총 4개 읍면 전역이다. 이 거대한 지역을 대표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 동의서는 작천면 용동 18가구, 병영면 중고마을 44가구, 병영면 중가마을 13가구뿐이다. 여기에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앞으로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22) 연구자는 행정 내부자로서 농업유산자문회의와 현장조사 참석한 경험이 있으며, 보통 자문회의는 신청한 지역 당 1시간, 현장조사는 3시간을 채 넘지 않게 진행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신청 당

이처럼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돼 있던 농민들이 지정 이후에는 농업유산 보전·활용의 주체로 다급히 상정된다는 점이다.

농업유산은 지금까지 농민들의 사고와 인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문가집단과 국가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형태의 지식체계에 불과할 따름이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국가에 의해 호명된 농업유산은 지정신청 과정에서 지자체에 의해 사업신청서가 작성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농민들은 동원의 대상일 뿐이다. 형식적인 사업설명회 내지 신청동의서 작성이 끝나면, 지자체와 전문 컨설팅업체는 파편적으로 분산돼 있는 농업유산의 구성요소들 중 인상적인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콜라주 처리하여 전에 없던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이상의 텍스트는 농업유산 지정심의 과정에서 일종의 전문가라고 초빙된 학자들의 지도 의견에 따라 일정하게 가공처리되며, 농업유산으로 재탄생한다.²³⁾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농민들은 그들의 지식과 의사를 분명하게 주장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며, 지금껏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농업유산이라는 창출된 텍스트를 보전·활용해야 하는 주체로 부지불식간에 상정되고 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출된 텍스트인 농업유산은 물화되고 지금까지 농업의 전승자였던 농민과 상호 소외의 관계로 접어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²⁴⁾ 과연 농민들은 그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농업유산이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어떤 일을 담당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농업유산은 기회인가 혹은 위기인가? 농업유산 제도가 본연의 사명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일조할 수 있을까?

이상의 문제 의식 속에서 지금껏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농업유산과 결합하여 어떠한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정은 그리나아 보이지 않는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협의체가 농업유산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보이지 있는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거의 없으며 심할 경우 주민협의체와 지자체가 분란을 겪고 있는 사례도 확인된다. 특히 사업비 지원이 끝나면 그 동안의 농업유산 보전활동 역시 그대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최근 참여관찰을 지속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사례는 다른 지역과 일정하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완주군에서는 지난 2017년도에 완주군의 특산물인 봉상생강과 생강저장굴을 소재로 농업유산 신청서를

사자들에 의해 작성된 신청서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실제 연구자는 신청서의 내용 중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유산 신청서가 압축적으로 과장되거나 단순나열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뒤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23) 이상의 과정은 민속예술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각종 기술들이 동원되는 측면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농민들은 해당 과정에서 소외돼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민속예술이 무형문화재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한양명, 『한국 민속예술축제가 민속의 전승에 미친 영향』, 『한국민속학』50, 한국민속학회, 2009’를 참조하기 바람.

24) 한양명, 앞의 글, 146-152쪽 참조.

제출했으며 두 차례 고배 끝에 지난 2019년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받았다. 농업유산 지정 이후에는 지난 2020년부터 ‘보전 협의체를 발족’하고 ‘조례를 제정’했으며,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복원 시범포’를 조성하고 ‘생강굴 농업유산 자원매입’을 위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농민들 스스로 새로이 조직을 구성하고 전통농법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해당 사업의 진행을 살펴보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²⁵⁾

Ⅲ. 농업유산이라는 텍스트의 생산

1. 완주 전통생강 농업시스템의 지정 과정

완주군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의 일이다. 당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후보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산과 완주의 생강농업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당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농업유산제도와 완주 지역 생강농업의 독특한 체계에 대해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태 박사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관심을 갖고 있던 김선태는 완주군과 협의를 거쳐 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추진하게 되었다.²⁶⁾

완주군에서 작성한 지정신청서를 살펴보면 농업유산을 신청하기 위해 주목했던 것은 봉상생강의 역사성(시배지 포함), 생강과 관련된 농업지식체계로서 생강굴과 전통농법 등이었으며, 이를 앞에서 제시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표 1>)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⁷⁾

1) 농업자원의 가치성

①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60년 이상의 역사적 기록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오래된 역사적 기록을 요구한다.²⁸⁾ 완주군에서도 생강농업의

25) 연구자는 이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틈나는 대로 생강풀-보리간작농법 공동경작단에 객원으로 참여하여 관찰을 계속하고 있다.

26) 당시 김선태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몇몇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유산의 주요 소재인 봉동생강은 그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

27) 이하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완주군, 「완주 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신청서」2019’를 참조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참고로, 완주군은 2017년부터 농업유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두 3종의 신청서가 작성되었으며, 2019년의 자료가 가장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28) 2012년도 지정 기준에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성을 요구했지만 2015년도부터는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기자 및 임창봉 유래설’²⁹⁾ ‘신만석 유입설’³⁰⁾ 등의 구전과 함께 아랍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ādhbih)의 저서 『諸道路 및 諸王國志』, 『고려사』 현종 9년의 기록³¹⁾, 『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의 기록³²⁾ 『세종실록지리지』, 『동의보감』, 『도문대작』 등의 다양한 문헌기록을 제시했다. 그런데 기자 및 임창봉 유래설이나 신만석 유입설 등은 구전으로 전하던 내용이 문헌에 편입된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아랍 학자의 기록은 생강이 봉동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완주군에서는 『고려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완주 생강의 전통을 천년 이상으로 소급하였다. 완주군에서는 『고려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완주 생강의 역사를 소급한 것의 이유로 “역사에서 생강 관련은 전주부가 유일한 점을 기반으로 추정” 하였으나 해당 기록에 등장하는 생강이 완주 봉동 지역에서 생산한 생강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다.

②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세종실록지리지』에 생강이 전주의 특산물이며, 읍인이 업으로 삼고 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생강이 이미 조선시대에 봉동지역의 중요한 작물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봉상산업조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생강의 생산 및 가공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자료를 토대로 당시와 현재의 생강 생산량 및 시세를 비교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1962년부터 2012년까지 완구군 내 읍면별 생강 생산량을 비교 분석하여 약 50년 동안 완주군 전체 생산량에서 봉동지역이 78.4%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③ 농업 자원의 지식 체계 및 기술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 중에서 주목할 만한 농업 지식 체계와 기술로 생강풀 덮기를 비롯한 생강 농업 전승 지식, 온돌식 저장굴 개발, 토종 생강의 특성과 효능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³³⁾ 특히 생강풀 덮기를 비롯한 전통적인 농업방

29) 조선일보, 「特産 朝鮮의 實態」, 1936년 2월 11일자 기사.

30) 완주군, 『전통의 고장 완주』, 1982.

31) 북쪽 변방에서 전사한 장수와 병졸의 부모처자에게 차·생강·베를 하사하다(『高麗史』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32)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청원군 심종의 죄를 청하였으니, 심종이 지난해 가을에 어가를 따라 남행하였을 때에 몰래 방간의 보낸 생강을 받고도 임금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다(『太宗實錄』 27卷, 태종 14년 4월 19일 임술 2번째 기사)

33) 여기서 말하는 생강풀은 다름 아닌 참나무류의 잎을 말하며 달리 ‘참풀’이라 부르기도 한다. 참풀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거름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울진 지역의 경우 소만 무렵이면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참풀을 베어다가 분노나 오물을 섞어 논에 거름으로 사용했다. 마을에서 영이 떨어져야 참풀을 베러갈 수 있다고 하여 ‘영풀베기’라고 일컫기도 했다. 참풀을 베다 거름으로 만들어

식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며, 전통지식의 현대적 적용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한편, 완주 봉동 지역에서 현대화된 생강농법을 시도하다 실패 후 고유농법으로 회귀한 사례도 제시해놓았다. 대표적으로 생강밭 이랑에 비닐 멀칭을 하지 않거나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방식으로 밭갈이를 하며,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광막을 사용하지 않고, 연작을 하지 않으며 퇴비를 많이 준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면서 생강을 심고 그 위에 볏짚이나 가랑잎으로 멀칭을 하는 농법의 친환경 생태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해당 농법이 각종 곤충이나 지렁이 등의 서식에 적합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볏짚이 습도 및 보온을 유지하고 잡초 억제 효과가 있으며 볏짚 누룩곰팡이가 유해균 포식, 생강 보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해두었다.

온돌식 저장굴은 국내에서 완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는 전통지식으로서, 해당 저장방식이 개발되면서 조선시대 생강농업이 한반도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겨울철 생강을 썩지 않게 보관하여 이듬해 종강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년 생강농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³⁴⁾

구들식 생강굴은 겨울철에 온도 13 ~ 15℃, 습도 85 ~ 90%를 유지하여 생강이 부패하거나 발아하지 않도록 막아주며, 구들의 열과 연기는 생강토굴방의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를 조절하여 생강 저장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생강저장굴은 구들식과 수직하강식, 수평이동식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좀 더 많은 생강을 저장하기 위해 구들식에서 점차 수직하강식이나 수평이동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지정신청서 상에는 2019년 현재 완주 봉동 지역에 온돌식 508개, 수직하강식 336개, 수평이동식 21개 등이 남아 있다고 보고돼 있다.

④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생강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문화자원을 열거했으며, 주로 당산제와 씨름, 생강을 사용한 음식문화, 구들장 아래 생강굴을 조성한 독특한 건축문화, 생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산제와 씨름은 봉동지역 농업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었던 치수와 연관돼 있다. 봉동에서는 만경강 본류인 고산천이 범람하여 물란리를 겪는 경우가 많아 ‘멍에방천’을 만들었으며, 해마다 제방을 보수하는 일이 중요했다. 이런 까닭에 봉동 당산제가 마을단위 제의에서 점차 고을단위로 바뀌었으며, 당산제를 이어 벌어지는 씨름판을 벌이는 등 생강고을 주민들의 단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생강과 관련된 음식으로 강수, 개약, 편강 등을 서술했다. 여기서 강수는 도라지

사용하던 관행은 1970년대까지 일부 계속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화학비료의 보편화로 자취를 감추었다. 참풀을 거름으로 사용하던 기록에 대해서는 ‘한양명, 『울진의 세시풍속』, 울진문화원, 2012’를 참조하기 바람

34) 이상 생강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완주 봉동 생강토굴 저장시스템」, 농업유산자문위원회 회의자료, 2018(미간행)’을 참조하기 바람.

처럼 길게 뻗은 상품성이 없는 생강을 말하는데, 봉동사람들은 강수를 잘 모아두었다가 고춧가루에 버무려 무침으로 먹거나 매운탕 등에 넣어 비린내를 잡고 감칠맛을 더했다. 개약은 생강줄기나 잎을 발표시켜 만든 음식으로 다소 거칠고 질긴 생강줄기나 잎을 부드럽게 발표시키고 고추장이나 된장 등에 담가 장아찌처럼 먹기도 한다. 지금은 60대 이상 여성들의 기억에서나 개약 제조법을 확인할 수 있을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건축문화는 앞서 살펴본 구들식 생강굴을 가옥과 관련지어 서술한 것이다. 낙평리 일대에서는 지금도 구들식 생강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완주 생강 전통농업에서 중요한 유형적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 자원으로는 유몽인의 『어유야담』에 수록된 ‘울공금이야기’와 북만주에서 제주도까지 생강을 팔러 다닌 봉동사람들의 이야기, 생강풀을 구하기 위해 지계를 지고 걸어다녔던 이야기 등을 제시했다.

⑤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증진에 기여

생강농업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주변 봉실산과 만경강 일대 동식물상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생강 농업 시스템으로 환원하는 과정에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강풀, 짚 등의 친환경 소재와 유기질 거름을 사용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완주군에서는 생강농업의 지속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생강과 연관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완주 전통 생강 농업 유산 보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농업유산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봉동 생강 전통농업보존협의회의 운영 지원을 제안하며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2. 농업유산 지정 이후의 움직임

완주 봉동생강농업은 처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2017년 이후 삼수 끝에 지난 2019년 11월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란 이름을 달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되었다. 당시 농식품부에서는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 등이 현재까지 유지 전승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다.³⁵⁾ 또한 농업유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유산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생동하는 자산이다. 단순히 보존·유지하는

35)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2019년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2019년 11월 14일자 보도자료 참조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산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감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수 역시 농업유산 지정의 쾌거를 축하하며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직접 일궈낸 성과라서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 (중략) 민이 주도하고 관은 단지 지원하는 ‘민간 주도’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밝히며 “봉동생강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중략)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브랜드 가치 증진, 농가 소득증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알렸다. 아울러 “생강 저장굴을 잘 보존하고 관광체험과 경관농업으로 육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며, 작은 집이라도 매입하여 농기구와 생강사진, 생강 제품을 전시하는 소박한 전시체험관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³⁶⁾

분야	사업내용	세부사업
I. 완주생강 전통농업활동지원	보존협의체 지원	보존협의체 구축 및 활동지원
	벤치마킹	기존 농업유산 지정 지역 벤치마킹 (보존협의체 활동 상황 청취 등)
	교육	전통 영농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농업유산공동체학 교운영)
II.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복원	생강농가 복원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전통사업 복원정비 실행계획 수립 및 생강굴 정비 복원 실시 설계
		생강굴 농업유산 및 복원, 자원매입 (완주 생강 경관 조성 및 관리)
		생강굴 주변 정비 및 관리
III. 농업유산홍보 및 가치창출	홍보	완주 생강 스토리텔링 및 브랜드 개발
		농업유산 홍보영상 / 책자 제작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물 설치 및 물품제약 구입
	가치창조	농업유산안내시스템 구축(지역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완주생강 농업유산 고유특성과 세계농업유산 가치 개발연구

〈표 3〉 완주군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계획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약 15억원 가량의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에서는 2020년 1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며, 해당 내용은 위의 <표 3>와 같이 구성돼 있다. 위의 계획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앞으로 농업유산을 보전·관리할 주체로 상정된 보존협의회의 활동비로 8천만원 가량의 지원이 예정돼 있으며, 시범재배지 공동경작단 운영 부분까지 더하면 주민들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36) 전북일보, 「완주 봉동생강 국가농업유산 지정, 새로운 시작이다」, 2019년 11월 28일 기사 참조

예산은 1.4억원 정도가 편성되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민활동 지원에 전체 예산 중 5%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주민들은 빠르게 보존위원회(이하 보존회)를 구성하여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빠르게 지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것) 2020년 2월 18일 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렸다.

보존회에서는 2020년 4월 7일 ‘천년완주토종생강’ 검증 행사도 열었다. 보존회 측에서는 낙평리에 거주하는 이점동(102세) 씨와 장기리의 김명식(92세), 둔산리의 최쌍호(88세), 구미리의 임익준(87세), 신성리의 국중창(80세) 씨 등 오래 전부터 생강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검증위원으로 초빙하여 완주 토종생강을 찾으려 했다. 검증위원들은 9농가에서 제출한 토종생강의 모양과 맛, 향, 생강이 꺾이는 소리 등을 확인하고 토종생강을 인증하였다.

한편, 보존회에서는 ‘완주생강 경관 조성사업’도 추진하였다. 보존회는 완주군으로부터 봉동읍 신성리 121번지의 군유지 1,500평을 임차하여 토종생강 시범재배를 통해 경관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완주군과 협의하여 농업유산 관련 조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존회가 농업유산 주민협의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포함시켰으며, 토종생강 농법을 규명하기 위해 8농가를 선정하고 지원하였다.

IV. 농업유산 보전과 전통의 소환

1. 이익단체가 된 보존회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농업유산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서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농업유산은 분명 창출된 텍스트이다. 농업유산 지정 신청하는 과정에 이를 주도한 공무원 또는 전문컨설팅업체에 의해 일정하게 정해진 규격에 따라 내용이 기술되고,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하나의 정전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정전화된 텍스트가 농민들에게는 낯선 존재이고, 결국 보전 활동을 위해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농민들의 경우 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일정하게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이해가 소략하며 이 때문에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 완주의 농업유산 보존회 해당 맥락에서 크게 버성나지 못했다.

사실, 보존회가 농업유산을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내용은 없다. 보존회 또는 주민협의회가 주체로 상정되어 기술된 내용은 거의 없고, 다분히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정신청서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정 신청서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생강농업유산 관리 체계 수립>

- ①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 정밀 조사
- ② 완주 생강 전통농업 보존 관리를 위한 시범지 매입
- ③ 완주 생강 전통 농업(재배/생강토굴) 보존 및 관리(계승) 사업 실시
- ④ 완주 생강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 ⑤ 완주 생강 전통 농업 확대와 경쟁력 강화
- ⑥ 농업유산 활용시스템 구축
- ⑦ 공동체 네트워크 활용

위의 각 항목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나, 실제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②뿐이며, 다른 항목들은 조사 내지 조성 등의 사업이다. ②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완주 생강 재배지를 매입하여 시범지로 정하고 전통농법에 따른 재배의 과학적인 자료와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조사 시범 재배
-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지속에 필수적인 생강토굴 보유 전통 가옥 매입
- 완주 생강 전통 농업 구현 및 토종 생강 농업 지역 확대
-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는 방식
- *소농 방식 전통생강 농업 및 재배지 확대

보존회는 지정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듬해인 2020년 들어 토종생강 시범 재배를 위해 8농가를 선출했고 이들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생강농사를 짓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 이외에는 사실상 보존회가 직접 해야 할 일인지가 불분명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실상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회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보존회에서는 2020년 주요 업무로 ①완주군의회 조례제정 ② 천년완주생강상표 완성 ③ 고속도로변 천년완주생강 표지판 설치 ④ 완주생강 경관지 우량농지 조성 및 주변 정리 등의 내용을 추진했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천년완주생강의 위상과 사업의 완성을 위해” ① 경관지에 온돌식 생강굴 복원 ② 완주생강 테마공원 ③ 토종생강 판매장 ④ 저온저장고 ⑤ 토종생강 먹거리 체험 학습장(조성) 등의 내용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³⁷⁾ 사실상 보존회는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상정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보존회를 위한 이익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37)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2020년 정기총회 대비 이사회를 겸한 임원회의 의사록」, 2020년 12월 26일.

2. 과학영농의 실천 vs 전통농업의 소환과 유용

2020년 보존회의 활동 가운데 주목할 것으로는 경관지 조성 사업과 전통생강농법 규명 시도를 들 수 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직접 생강을 재배하는 농업유산 보전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 둘 모두 2020년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경우 지정 신청 과정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전통농업시스템의 경관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생강 농업의 특성 상 생강경작지가 연속적으로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생강밭이 조성돼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다, 생강이라는 작물의 특성상 4월에 파종을 하면 그 싹이 올라와 생강밭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는 6월경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생강농사가 연작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생강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일명 ‘뿌리썩음병’을 방제하기 어려워 연작을 피한다. 병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연작의 경우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더욱이 생강의 경우 고투입-고수익의 작물로서 1평 당 투입비용이 1만원 정도라서, 농사에 실패할 경우 그만큼 손해가 크다. 따라서 매년 경작지가 바뀌고, 한 번 경작한 땅에서는 몇 년간 생강을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경작지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상의 문제 때문에 보존회 측에서는 생강농업경관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시범재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군의 협조를 얻어 앞서 살펴본 ‘완주생강 경관 조성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사업은 보존회장 ○○○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도 농사에서는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으나, 보존회장의 주도로 2021년에 다시 경관지 시범재배를 실시하였다.

1) 과학영농으로 조성한 완주생강 경관재배지

경관지 생강재배는 2020년도에 뿌리썩음병이 일부 발생하여 수확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으나, 보존회장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철저한 과학영농을 표방했다.³⁸⁾ 그는 2020년 11월 토질을 개량하기 위해 경관지에 객토할 흙을 받아놓았고, 생강 파종 후 피복용으로 사용할 벼짚을 미리 확보해두었다. 2020년 12월에는 폭우 침수피해 방지와 새로운 재배환경 조성을 위해 지면을 높이고 배수로를 정비하였다. 2021년도 작업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38) 경관지 생강재배와 관련한 내용은 ‘(사)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의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했으며, 연구자 역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생강의 생육상태와 적용농법을 확인했다.

일자	작업 내용	일자	작업 내용
2. 4.	유황갈슘 비료 구입	4. 8.	생강파종
2. 14.	경관지 돌 제거 작업	4. 21.	벚꽃 피복
2. 24.	유황갈슘 비료 살포(트랙터 이용)	4. 24.	생강밭 고랑 흑백필름 피복
2. 26.	석회질비료 살포 및 경운 작업	4. 29.	밭 주변 흑백필름 피복
3. 15.	트랙터 쟁기질 및 밀거름, 비료 살포	5. 24.	경관지 주변 제초작업(포크레인 이용)
3. 18.	제초를 위한 쟁기질(트랙터)	5. 26.	경관지 풀매기
3. 20.	배수로 공사	6. 19.	풀매기 작업(제초제 사용 및 인부 고용)
3. 25.	토양검증 시비처방서를 토대로 부족한 비료 살포	7. 1.	풀매기 작업(인부고용)
4. 6.	종강끼기(인부 고용) 및 침지소독(살균소독제 미리카트)	7. 5.	살충제 및 영양제 살포

〈표 4〉 생강 경관지 주요 작업

보존회장은 그 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전언으로는 그가 생강농사를 지은 것도 처음이며, 생강농법에 대해 봉동의 농민들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특히, 봉동의 농민들은 생강재배지에 뿌리썩음병이 발생하면 그 이듬해 연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존회장은 객토를 하고 과감하게 연작을 시도했다. 그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시비처방서를 바탕으로 필요한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투입하고, 생강 소독시에는 살균제를 이용했으며,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했다. 또한 생강 파종, 풀매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일에는 대부분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으며 필요할 경우 제초제를 살포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현재 보존회장은 경관지 생강농사에 실패했거나 실패할 것이라고 지역사회에서 평가받는다. 이미 뿌리썩음병이 발생하여 경관지의 생강이 누렇게 말라죽기 시작했으며, 봉동사람들은 봉동 입구 초입인 마그네다리 바로 앞에 위치한 경관지의 생강이 말라죽는 것은 봉동의 부끄러움이라며 완주군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존회장은 조만간 회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 전통농법의 소환과 유용

2020년 보존회에서는 완주군의 토종생강을 보전하기 위해 토종생강 시범재배 사업에 참여할 9농가를 선정하였고, 이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토종생강 재배일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민철 역시 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생강농법을 구사하였다. 그가 시도한 생강농법은 일명 생강풀-보리 간작농법인데, 그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복원을 시도한 전통농법 중 하나였다.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은 봉동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던 생강농법 중 하나이다. 그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겨울에 밭고랑에 보리를 파종한 뒤 이듬해 봄이면 이랑에 생강을 심어놓는다. 생강을 심은 다음에는 그 위를 생강풀로 덮는데, 생강풀을 가지째 베어다가 사용한다. 생강풀을 덮고 보리가 누렇게 익으면 보리를 수확하고 보릿대는 생강밭 이랑을 덮는 데 사용한다. 해당 농법에 대한 내용은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현재 이민철이 어른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하고 적용한 농법과 거의 동일하다.

생강의 재배는 맥간작으로서 오월상순 일단보에 대하여 사, 오십관의 종자를 주간 육촌 가랑의 거리로 두 줄로 하종하고 (종강은 일개 육문 가랑) 그 위에 이춘쫓 복토하고 또 그 위에 건초와 낙엽 등을 복하여두면 일개월쯤 지난 후 밭하를 시작한다. 유월하순에 맥을 수확할 시에 맥주를 조금 노피베이고 그 근주를 밭취하여 흙을 떨어 휴상에 퍼서둔다. 이러케하고 때때로 제초하여 생육을 촉진하는 것이다. 팔월상순경에 지하면 경엽은 칠팔촌에 달한다. 이때에 근원을 굴취하여 최초종자로 하한 종강을 채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가용우는 판매용이 되는데 그 양은 대개 하종한 때의 반량 가량이 된다.³⁹⁾

이민철이 생강풀-보리간작에 주목한 것은 해당 농법이 연작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민철은 농업유산 지정 신청 과정에 긴밀하게 관여한 농민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봉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농사를 짓는 겸업농이다. 그는 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을 주도한 민속학자 김선태의 대학교 1년 선배인데, 대학 시절부터 같이 농약을 연행하고 이후 지역에 남아 농요를 조사하거나 생강과 관련된 여러 민속을 조사해왔다.

이민철 역시 농업유산 신청 이전에는 이른바 전통적인 생강농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관문제와 관련하여, 이의 근본적인 문제가 연작피해에 있음을 확인하고 언제부터 연작피해가 있었는지 노인분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했다.

아니 궁게 임익준 어른이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연작 피해가 없었다고. 그 어른들 생강농사 지을 적에는 연작 피해가 전혀 없었다니까. 어른들 이야기를 해봐도 뿌리썩음병이 1970년을 전후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가 비료하고 농약 막 쓸 때 아니냐. 그럼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연작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생각으로 보리간작으로 해본 것이지.⁴⁰⁾

이민철이 2020년에 그의 부모님 집 앞 밭에서 시도한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은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연작 피해 방지를 실험하기 위해 시도한 첫해 농

39) 조선일보, 「생강재배법」, 1936년 5월 9일자 기사.

40) 이민철의 제보(2021년 4월 25일, 완주군 봉동읍 공동경작지).

사에서 봉동읍 장기리 905-1번지 밭 300평에 150kg 정도 생강을 파종했는데, 그는 아무런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폭우의 피해를 극복하고 1200kg 정도를 생산할 수 있었다.⁴¹⁾

이민철이 시도한 전통생강농법은 지역사회에서 잔잔한 파고를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그의 부분적인 성공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2021년 들어 그와 함께 전통방식의 생강농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민철은 이들과 함께 ‘전통생강 공동작업단’을 구성하고 봉동읍 장기리 1180-26번지 논 900평 가량에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확대 시도하였다.

이민철과 함께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시도한 사람들은 지역에서 토종씨앗 보급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씨앗받는농부(이하 씨받농)’ 구성원들이다. 2020년 7월경 이민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씨받농 대표 이○란 씨에게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같이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는 뜻을 알렸다. 제안을 받은 이○란은 이민철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전통농법으로 농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이끌려 제안을 수락했으며, 씨받농 회원들에게 동참의사를 물었다. 그 결과 이민철과 김선태, 씨받농 회원 7가구 등 모두 9가구 10명의 인원들이 전통농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공동경작을 위해 가구당 50만원씩 거두어 농사에 필요한 종자돈을 만들었으며, 모든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2021년 이들이 수행한 생강풀-보리간작농법 작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작업 내용	일자	작업 내용
2. 22.(월)	이랑 조성 및 봄보리 파종(관리기 대여)	6. 16.(수)	보릿대 뽑아 피복 및 제초작업
4. 7.(수)	생강 파종 전 제초(수작업)	6. 16.(목)	보릿대 뽑아 피복 및 제초작업
4. 23.(금)	씨생강 꺾기 및 소독(햇볕소독)	6. 26.(토)	생강밭 제초작업
4. 24.(토)	생강 파종	6. 26.(일)	생강밭 제초작업
5. 14.(금)	생강풀 베기 및 피복(회원소유 트럭 2대)	7. 3.(토)	공동경작단 단합대회
5. 15.(토)	생강풀 베기 및 피복(회원소유 트럭 1대)	7. 12.(월)	생강밭 제초작업
5. 19.(수)	보리이삭 베기	7. 13.(화)	생강밭 제초작업
6. 14.(월)	보릿대 뽑아 피복 및 제초작업	7. 19.(월)	생강밭 제초작업
6. 15.(화)	보릿대 뽑아 피복 및 제초작업	7. 20.(화)	생강밭 제초작업

〈표 5〉 생강풀-보리간작농법 주요 작업

전통생강공동작업단은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2.22일 작업 전에 왕겨를 태워 만든 거름을 논에 뿌리

41) 이민철에 제보에 의하면 종강값은 1kg 당 약 1만원 가량이며 그의 경우에 보통 1마지기 당 종강 110kg을 파종했다고 제보했다(이민철의 제보, 2020년 2월 20일, 완주군 읍곡교회).

고 이랑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관리기는 임대형식으로 하룻동안 빌린 것이며, 생강풀을 베어오는 작업에서 사용한 트럭은 회원 소유였다. 이후 생강 파종, 보릿대 피복, 제초작업은 회원들이 공동작업으로 진행하여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도 따로 없었다. 공동작업단이 활동하면서 사용한 비용은 대부분 식비와 간식비 정도였으며, 이에 따라 농사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할 꾀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이 시도한 전통농법은 지역의 노인들이 구술하거나 일제강점기 신문기사에 소개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소와 쟁기가 아닌 관리기를 사용하여 경운을 했으며, 노동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리를 수확하지 않고 보리가 땅에 떨어져 발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 여물기도 전에 예초기로 이삭을 절단하였다. 또한 과거와 같은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구강을 제거하여 재활용하는 것도 시도하지 못하였다.⁴²⁾ 한편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활방식이 달라 모든 인원이 정해진 시간에 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들은 생계유지 등 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최선을 다해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공동작업단이 시도하고 있는 생강풀-보리간작농법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어떨까? 아직 평가를 하기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른감이 있지만, 분명 주변의 농민들은 이들의 작업에 대해 현재까지의 결과는 인정하고 있다. 농업유산 지정신청서에는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기술돼지 않았지만, 봉동지역의 관행화된 생강농사에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며, 관행농법을 시도하고도 충해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 그런데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공동작업단의 생강밭은 현재까지 충해와 병해를 전혀 입고 있지 않아 관행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한편 성공을 응원하고 있기도 하다.

아니 이게 신기한거지 나는 이번에 약을 4번이나 쳤는데도 벌레가 싹 먹어버렸는데, 아니 이놈의 것은 어떻게 된 것이 약도 안 쳤는데 생강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거 새벽에 몰래 나와서 농약 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농사 잘 된거여. 약도 하나도 안치고 이렇게 농사가 된다는 것이, 전통농법이 진짜 신기하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현재까지 이거 농사 진짜 잘 됐다고 해. 다른 데 약 겁나게 치는 데도 벌레 피해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왜 물은 모타로 줘야 하냐고, 내가(양수기 설치를 도와주고 있었음). 똥지게에다 물 길어다 뿌리라고 그랬어, 아 전통농법인게. ⁴³⁾

42) 앞에서 살펴본 각주 37의 일제강점기 신문기사에는 “팔월상순경에 지하면 경엽은 칠팔촌에 달한다. 이때에 근원을 굴취하여 최초종자로 하한 종강을 채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가용우는 판매용이 되는데 그 양은 대개 하종한 때의 반량 가량이 된다” 라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지금도 봉동지역의 노인들은 생강대가 올라온 이후 무강(목강)만 제거하여 다시 판매했다는 내용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는 땅속의 무강을 제거하여 다시 판매하여 얻는 수익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 해당 농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V. 전통의 유용과 생강농업의 의미 재구성

앞서 농업유산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주군의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확인했지만, 사실 완주군의 농업유산 지정신청서는 다른 지역과 일정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바로 지역의 학자들과 주민들이 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때문인지 지역 주민들의 사정과 이해를 일정하게나마 반영하고 있다.⁴⁴⁾ 대표적인 게 바로 농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기록된 ‘농업 자원의 지식 체계 및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완주군의 지정신청서에는 특이하게도 특정한 농업 지식체계나 기술을 제시하지 않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농업지식과 기술을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해당 내용은 지정신청서 상에 “농업 체계와 저장굴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농업 지식과 기술”이라는 부분인데,⁴⁵⁾ 농민 저마다 달리 실천되고 있는 생강농법이 그 원인인 듯하다.

완주군은 지정 신청서에 완주군의 생강농업 체계를 두고 ① 땅심돋기 ② 종자 생강 꺾기 ③ 경운·파종·생강풀 덮기 ④ 풀뽑기 ⑤ 수확·저장 ⑥ 유통/판매 등을 나열하며 “이상의 체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생강 연작 피해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농가들은 대파와 양파 등의 윤작 순환 영농 형태를 보여주며 일부 재배농가에서는 생강과 타 작목 간의 간작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농업 체계는 단순한 농작업 순서에 불과할 따름이며, 뒤의 다양한 윤작 순환 영농 형태는 일부만 사실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완주의 생강농업은 많은 경우 기계화학농법으로 점철돼 있으며, 매년 생강을 재배하지 않은 땅을 찾아 고투입 농법으로 추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는 생강농업 체계에서 다양한 방식의 생강농업 실천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농업유산 자체를 정형화된 어느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농민들의 실천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민철은 그가 발굴하여 새로이 시도한 전통농법인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두고 그대로 전승해야 할 전통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는 시대가 변한만큼 옛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강농법을 유용(appropriate)한다. 그가 전통의 소환과 자유로운 유용을 시도하며 확인하고 싶은 단 하나는 1970년대 이전과 같은 생강농업의 연작이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나마 끊임없이 새로운 농법을 고민하고 시도한다. 예를 들어, 생강풀-보리간작을 시도했던 첫 해, 그는 보리가 다 익어가자 그네(그는 홀태라 부른다)를 이용하여 아들과 함께 보리 이삭을 훑어내고 보리를 베어 생강 위에 덮었다. 그러나 일일이 낫으로 부리를 베고 훑어내는 과정에 적지 않은 노동력이 투입되자, 이듬해부터는 방식을 바꿨

43) 오형택의 제보(남, 1970년생, 완주군 농민회 총무, 2020년 7월 30일).

44) 신청서에 따르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완주의 생강농업인 1,740명이 농업유산 신청에 동의하고, 여러 생강 관련 유산들을 확인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완주군, 「완주 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2019. 115쪽).

45) 완주군, 「완주 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2019, 39쪽.

다. 그는 과감하게 동력예초기를 사용해서 채 익지 않은 보리이삭을 잘라내고, 보릿대를 뽑아 생강 이랑 위에 덮었다. 이민철은 이마저도 노동력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여겼는지 최근에는 아예 이삭이 여물지 않는 일본의 보리품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농법을 소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유용하고 있는 양상은 다른 농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정신청서에는 생강의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 생강과 감자를 2기작으로 경작하는 김용희 씨의 사례가 소개돼 있으며, 기후온난화로 인해 여름 햇볕이 과도하게 뜨거워지자 생강이 말라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랑에 옥수수를 심는 방식도 주목할 만한 농법으로 제시했다. 농업유산 지정 이후에는 토종생강 시범재배에 참여한 한 농민이 솔잎으로 생강 이랑을 덮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민철과 함께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시도하고 있는 공동경작단은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농법이 전통적인 것이라는 의식하는 한편, 그들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기 위해 여러 방식을 검토하기도 한다. 먼저 이들이 전통적인 생강농법을 의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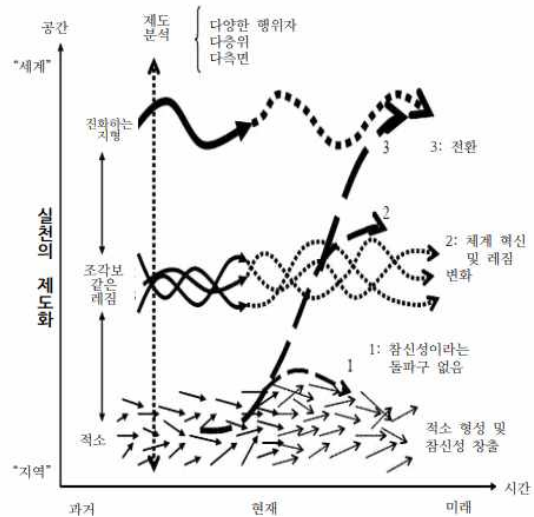
새벽에 이번 보리대뽑기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ㅎ 며칠동안 꼭두새벽부터 날뜨거운데, 벌레까지 물러가며.. 쪼그리고 앉아.. 허리집어가며..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힘은 좀 들지만, 농약안하고, 제초제 안하고, 전통농법 안에서 천년 완주의 조상들의 지혜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참 값진 시간이였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더 빠르고, 최신의 것을 투입하지만.. 뭔가 더 깊은.. 천년의 역사를 타고가 더 넓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네요. 많이 배우는 시간이고, 또 함께하는 이가 있으니, 노동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참 놀라운 따름이네요.ㅎㅎ (혼자면 죽어도 못할일...ㄱㄱ)46)

공동경작단의 배두현은 화학비료와 농약을47) 사용하지 않고도 생강농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며 ‘천년 완주의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감탄하지만, 이민철이 함께 시도하고 있는 농법 자체를 고수하지 않으며, 이런 경향은 공동경작단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은 최근 강행하고 있는 풀메기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풀메기 과정에서 생강이 무더운 여름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이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효과성 있는 생강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들은 8월 1일 4차 풀메기 작업을 마치고 저녁식사 겸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잡초들의 생육을 억제하고 생강싹을 덮어줄 수 있는 새로운 간작 작물을 찾아보자며 생강고랑에 콩이나 옥수수를 심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콩은 질소를 공급할 수 있어 가능하지만 옥수수는 땅심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시도하기 어렵다는 논의를 했다. 일찍

46) 배두현의 카카오톡 ‘생강농사팀’ 단톡방 채팅(2021. 6. 17., 보리대 뽑기 작업을 마치고)

47) 공동경작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희수는 ‘농약’이란 용어가 잘못되었다며 ‘농독’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한다.

이 신호가 언급한 ‘민속지식의 역전’ 현상은 농업유산에서도 분명 비슷한 맥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⁴⁸⁾ 공동경작단에게 민속지식이라는 전통은 언제라도 분절하여 선택적으로 취하고, 새로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일 따름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김정섭이 언급한 전략적 적소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⁴⁹⁾ 그는 전환연구의 틀을 따라, 혁신 또는 참신성이 상당 기간 적소에 머물다가 특정한 계기에서 상층의 레짐 변화와 맞물려 확산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혁신도 많기 때문에 혁신이나 참신성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른바 전략적 적소관리 정책은 활동의 장을 보호하고 활동가의 역량을 형성하는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⁵⁰⁾ 다소 거칠게라도 그의 주장을 농업유산과 지역 농민들의 실천과 결부시킨다면, 농업유산이야말로 다종다양한 농민들의 지식과 실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장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⁵¹⁾



<그림 1> 기술적 진화 및 제도 변화에 관한 다행위자, 다층위, 다측면 관점

한편, 농업유산 지정 이후 완주생강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담론도 일정하게나마

48) 신호, 「민속지식의 역전 : 1960년대 이후, 강릉단오제를 사례로 하여」, 『비교민속학』21, 비교민속학회, 2001.

49) 김정섭, 「농촌 발전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관하여」, 지역재단 농촌재생혁신 3차 정책세미나 자료, 2021년 4월 23일.

50) <그림 1>의 출처는 ‘Roep, D. and Wiskerke, J.S.C.(2004). “Reflecting on Novelty Production and Nich Management in Agriculture”, in J.S.C. Wiskerke & J.D. van der Ploeg(eds.), Seeds of Transition, Assen: Royal Van Gorcum, 2004, p.352.’이며, ‘김정섭, 앞의 글, 3쪽’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

51)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에서는 2021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 추진계획(핵심보전구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산의 보전가치가 높은 대표구역(핵심구역)을 유산별로 지정, 집중·관리를 통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갖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는 농업유산의 보전 주체로서 농민을 간접적으로나마 규정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유산(핵심보전구역)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즉 농민의 보전활동 직접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유산 보전에 필요한 활동 역시 농민들이 판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해당 사업비를 농민들의 보전활동 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기도 하다. 기타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1’을 참조하기 바람.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함한회에 따르면 봉동의 농민들은 생강의 판로가 어려워지고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1993년 전북생강협동조합을 세우면서 과거의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해석하기도 했다.⁵²⁾ 그 과정에서 상부상조의 덕목, 애향심의 강조, 토산물의 우수성 자랑 등을 통해 문화적 담론(또는 대항담론)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 담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레 소멸 또는 일부나마 지속되고 있었는데, 토종생강의 우수성에 관한 의미는 적지 않게 퇴색했다. 완주의 농민들은 개량종 생강과 토종생강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개량종 생강이 더 굵고 생산량도 많아 토종생강경작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농업유산 지정 이후에는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산 지정 이후 어떤 영향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보전회의 토종생강 검증을 위한 행사와 생강농사 지원에 따라 8가구가 토종생강 농사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8가구 외에 이민철과 함께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시도하고 있는 8가구 농민들도 2021년 이후 계속해서 적은 면적이거나 토종생강농사를 계속하겠다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함한회가 관찰한 상부상조의 덕목은 봉동에서 계속 생강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보전회의 운영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전회는 아직까지 참여 농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원 확대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상부상조의 덕목은 오히려 완주에 귀촌 또는 귀농하여 이민철과 함께 공동경작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 사이에서 더 쉽게 관찰된다. 이들은 땅이 없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회원에게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땅을 빌려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힘을 합쳐 농사를 짓자는 제안을 즉석에서 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동경작단에게 토종생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민철에게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은 어떻게든 연작피해를 극복해내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소농활성화로 의미가 확장된다. 이민철은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바탕으로 연작피해를 극복하여 누구나 매년 300평 정도의 적은 면적에서 1천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봉동 지역사회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조금만 농사를 지어도 생계 걱정 없이 손자들 용돈 주며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새로운 젊은이들이 봉동으로 들어와서 농지 300평을 확보하고 연작 가능성이 증명된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통해 최소 1천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시금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바람. 2021년 7월 3일 완주군 고산면의 어느 계곡에서 열린 공동경작단의 여름 중간풀이는 이상의 바람을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다.

52) 함한회, 「토산물의 상업화 과정과 농민들의 역사적 경험 : 전북 봉동읍의 생강재배 농민의 경우」, 『韓國史學論叢. 2, 朝鮮時代篇, 近・現代篇 /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編』, 일조각, 1994.

<생강풀-보리간작농법 ‘공동경작단’ 사진자료>



1. 고랑에 싹이 난 보리



2. 생강 심기 전 제초작업을 마치고



3. 좀 더 자란 보리 사이에 생강 파종



4. 생강 파종을 마치고



5. 생강풀



6. 트럭 가득 실은 생강풀



7. 생강 위에 생강풀 깔기



8. 바닥에 깔린 생강풀



9. 이삭을 베어낸 보릿대



10. 보릿대를 뽑아 생강풀 위에 덮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농민의 대응 :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편

강성복(충청민속문화연구소)

최근 한국민속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하나는 농경·어로와 관련된 전통 경작시스템이나 어로기술·어로방식에 천착한 조사연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취지를 수용한 무형문화재의 범주가 기·예능 중심에서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이와 함께 유엔 식량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도의 창설 및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 제도가 도입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주목한 발표자는 최근 농업유산에 관한 매우 주목할 만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성과들은 농업유산의 발굴과 지정에 유의미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농업유산제도에 대한 평가와 비판적 검토는 물론, 농업유산의 지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농민 소외의 문제를 세세하게 짚어주었다. 아울러 참여관찰을 토대로 타지역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2019)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완주생강이 지닌 유산의 가치와 농업유산 지정 이후 이익단체가 된 보존회의 활동과 전통농법인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복원하려는 재배농가의 움직임이 밀도 있게 포착해냈다. 농업유산을 바라보는 발표자의 시선에 대체로 공감한다. 따라서 토론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기준과 완주생강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을 준용하여 ‘농업자원의 가치성’ 6가지 외에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가 별도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애당초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자칫 해당유산의 보존 및 농업활동에 유관기관의 과도한 개입과 요구가 반영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유산의 명칭 문제이다. ‘완주생강’은 생강의 주산지인 봉동읍이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후기 이래 전국인 명성을 획득한 ‘봉상생강’, 1914년 이후에는 ‘봉동생강’이란 지명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해당유산의 명칭은 마땅히 기존의 주산지 이름을 취하거나, 혹은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해도 ‘완주 봉동생강’이라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주산지의 지명도와 전통 농업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성·정체성과는 무관한 완주생강 ‘이라 명명한 이유가 궁금하다.

셋째, 발표문에 언급한 것처럼 현행 농업유산 제도는 국가(지자체)와 전문가집단(컨설팅업체)에 의해 새롭게 텍스트화된 ‘농업시스템’을 강제(주입)함으로써, 그 전승자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완주생강 또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 이후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동향을 주시하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의 참여관찰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완주생강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갖는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넷째, KIAHS의 주관부처와 지자체 및 전문가집단은 해당유산의 보전·보호 노력보다는 활용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유산의 지정과 동시에 3년 간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주요사업으로 환경개선과 가치제고를 설정한 것은 지속가능한 유산의 보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직된 ‘봉상산업조합’ 및 1993년 ‘전북생강협동조합’ 등과 같은 주민자치의 전통이 단절된 채 2020년 구성된 보존협의회는 단체의 이익사업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재배농가는 과학영농 대신 전통방식인 ‘생강풀-보리간작농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작의 피해를 극복하고, 나아가 생강재배가 지역사회의 소농활성화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을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

심지윤(경북기록문화연구원)

1. 머리말
2.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전승지와 전승단체
3.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과정
4.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의 방식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전승이 단절되었던 기록유산인 『음식디미방』과 수록 음식을 현대에 재현하는 과정과 이를 둘러싼 여러 주체의 의도적 선택이라는 문화 현상을 구명한 것이다. 『음식디미방』이 저술된 연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장계향이 노년에 저술했다고 밝혀두어 1600년대 후반에 쓴 것으로 추측된다. 장계향은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조리법이 전승되길 원했으나 원전은 가져가지 말라고 기록해두었다.

그러나 『음식디미방』이 처음 발견된 곳은 장계향의 첫째 아들이자 석계(石溪) 이시명의 둘째 아들인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의 종가였다. 이시명의 첫째 아들은 김사안(金思安)과의 사이에서 낳은 정묵재(靜默齋) 이상일(李尙逸)이다. 현재 『음식디미방』의 소유권을 가지고 수록 음식을 재현 전승하고 있는 석계종가는 이상일의 혈통을 이은 집이다. 『음식디미방』은 장계향이 저술했고,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인 존재 이휘일 종가에 원전이 보관됐음에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장계향의 저술인 『음식디미방』은 여전히 종가의 부계중심적 혈통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그 소유권이 석계 이시명-정묵재 이상일로 이어지는 종가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처럼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과 상품화에는 주요 재현 주체와 운영 주체가 있다. 음식디미방보존회, 석계(장계향)종가 종부, 연구자 허성미 교수, 영양축제관광재단이다. 이들의 재현과 상품화에 대한 입장과 그에 따른 성격, 지향점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음식디미방보존회는 현실지향적, 연구자는 학술지향적, 종부는 종가지향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재현에 참여했음을 밝혔다. 또한 기록유산을 토대로 과거의 것을 현대에 재현하는 과정은 현대의 소비문화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을 구현해야 한다. 이에 상품화 과정에 전통과 현대의 절충, 종가중심주의, 종가의 진정성 만들기라는, 재현주체들의 의도와 정치성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기록유산,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 상품화, 선택, 의도성, 종가

1. 머리말

『음식디미방』은 17세기 양반가 여성인 정부인(貞夫人) 장계향(張桂香, 1598~1680)¹⁾이 한글로 저술한 조리서이다.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음식은 그 당시 반가에서 먹던 음식이었지만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재현되어 현대인들에게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다. 상품은 상차림으로 기획되어 한 끼 식사를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으로 먹는 것이다.

『음식디미방』의 마지막 장에는 집안의 딸들이 배껴가되 원본은 가져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소장지를 한정된 것인데, 『음식디미방』이 처음 발견된 곳은 이시명과 장계향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인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의 종가이다. 이는 『음식디미방』이 존재종가에서 보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음식디미방』은 이시명의 첫 번째 부인인 김사안(金思安)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인 정묵재(靜默齋) 이상일(李尙逸)의 혈통을 이은 13대 종손 이돈(李燾) 씨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석계종가와 존재종가 사이에서 『음식디미방』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석계종가가 가지게 되었다. 『음식디미방』은 기록유산으로 가치를 지니며, 한글로 기록된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음식디미방』의 가치를 알고 있고, 장계향이 종가의 위대한 인물로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식디미방』을 저술한 장계향의 첫째 아들 존재 이휘일 종가에서 『음식디미방』이 보관되어 왔으며 처음 발견된 곳도 존재종가임에도 불구하고, 김사안이 낳은 첫째 아들인 이상일이 석계종가의 적장자이기 때문에 석계종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유교이념이 없어졌음에도 종가에 한해서는 종법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법은 종가의 혈통을 장자가 계승하도록 하는 관습적 기준이고 제도이다. 종가는 혈통 중심으로 계승되며 혈통적 위계질서에 의해 장자가 차자보다 혈통의 우위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다.²⁾ 이에 『음식디미방』 관련 재현도 석계종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부가 그 재현 과정에 참여하게 되

1) 배영동, 『『음식디미방』 저자 실명 ‘장계향(張桂香)’의 고증과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19, 실천민속학회, 2012. 장계향의 본명은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배영동이 안동 장씨 불천위(不遷位) 신주의 후신 함중(後身 陷中)에 있는 기록에서 발견하여 밝힌 것이다.

2) 강혜경, 「근현대 한국사회 종부(宗婦)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94쪽 참조

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 과정을 구명하는 것이며, 그 선택에 어떤 문화의 정치학이 담겨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음식디미방』은 350년 전에 쓰인 조리서이며, 중세국어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경북 북부 지역의 언어와 음식문화사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중세국어는 지금의 말과 다른 점이 매우 많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음식디미방』을 해석하는 작업을 했다.³⁾ 이들의 해석을 통해 재현 주체가 조리법을 이해하고 음식을 조리해 볼 수 있었다.

중세국어로 기록된 조리서를 현대국어로 해석했지만 완벽히 재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재현 주체들이 수록 음식을 여러 차례 만들어보고 상품화했다. 이러한 수록 음식의 재현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수년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는 재현 주체인 음식디미방보존회, 석계 이시명 종가의 종부, 호텔조리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재현에는 선택이라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가 작용하였는데, 이 선택에는 재현주체의 의도와 해석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택은 여러 가지 가운데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재현 주체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에 어떠한 선택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주목한다면 각 재현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고 왜 ‘선택적’ 재현을 하게 되었는지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인 『음식디미방』과 수록 음식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조리학, 국어학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문화의 측면에서는 『음식디미방』이 저술된 당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문화유산은 국가라는 큰 틀을 위해 활용해왔다면 오늘날에는 문화유산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관광에 주목하였고, 특히 ‘세계화 대 지역화’의 기치 아래 세계와 직접 교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모든 문화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해석되었던바, 특히 이미 그 가치가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공인된 무형문화재는 지역 경제를 책임질 글로벌한 관광 상품으로 재맥락화 되었다.”⁴⁾

『음식디미방』은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문화관광자원이 되었으며 세계에 한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⁵⁾ 그러나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현대에 재현하여 관광

3) 『음식디미방』을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경북대학교 김사엽 교수이다. (김사엽, 「閨壺是議方과 田家八曲」, 『영서 고병간박사 송수기념논총』, 경북대학교, 1960.) 가장 먼저 『음식디미방』을 해석한 연구자는 손정자, 「飲食知味方」, 『아시아여성연구』 5,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966, 다음으로 황혜성, 『규곤시의방: 음식디미방』, 한국인서출판사, 1980, 한복려·한복선·한복진,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 궁중음식연구원, 1999,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고전총서10-음식디미방』,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백두현,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리, 2006, 영양군, 『음식디미방』, 2007. 이와같이 『음식디미방』 수록 내용을 해석한 것은 1편의 논문과 5편의 책이다.

4)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관광자원화와 포클로리즘」,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57쪽 인용.

상품화로 활용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재현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미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 과정과 그 과정에 작용하는 선택의 논리에 대해 구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거의 문화유산을 현대에 재현하는 창출의 과정에서 비롯된 문화의 정치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전승지와 전승단체

1)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 전승지 두들마을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하고 관광상품화로 활용하고 있는 전승지는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이다. 재현은 두들마을의 장계향예절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곳은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음식디미방체험관이다. 이에 현지조사도 두들마을에서 이루어졌다.



<그림1> 경북 영양군 석보면 원리2리의 두들마을 전경

<그림1>⁶⁾은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이 전승되고 있는 원리2리의 두들마을 전경이다. 동쪽에 위치한 장계향예절관은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을 위해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원들이 모여 음식을 조리한 곳이었다. 서쪽에 위치한 음식디미방체험관은 재현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상차림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곳이다. 현재 <그림1>의 북쪽에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을 신축하여 2018년부터 『음식디미방』 수록

5) 2015년에 한국의 집에서 각국의 주한대사 등이 모여 한국의 반가음식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반가 음식으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이 제공되었다. 또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상품화 공간인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

6)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yyg.go.kr/jghcenter>)의 두들 마을 사진에 음식디미방체험관과 장계향예절관을 표시한 것이다.

음식 재현 사업의 핵심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석계고택, 주곡고택, 석간고택 등 석계종가와 관련된 고택들이 있다.

장계향은 영양군 수비면 신원2리 수산(首山)에 19년간 살면서 『음식디미방』을 저술하여 석보면 원리2리의 두들마을에서 『음식디미방』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며,⁷⁾ 1680년 이 마을에서 별세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두들마을은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하기 위해 음식디미방보존회가 결성될 당시 두들마을에 거주하던 재령 이씨 집안의 며느리나 마을 주민이 보존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장계향예절관에서 이루어진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조리에 참여해 재현 과정을 함께했다.

2)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전승단체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과정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재현주체 중 하나인 음식디미방보존회를 살펴보아야한다. 『음식디미방』이 세간에 알려지고 난 후 영양군에서는 2006년 즈음부터 『음식디미방』을 관광상품화 하고자 했다. 이에 영양군 문화관광과에서 음식디미방보존회를 결성하고자 사람들을 모았다. 음식디미방보존회는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하고, 이를 현대인들에게 알리며, 보존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영양군 우리음식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던 황○○ 씨를 회장으로 정하고, 석보면 생활개선회 회장을 맡고 있던 윤○○ 씨를 부회장으로 하여 음식디미방보존회를 꾸렸다. 황○○ 씨는 영양군청에 일하고 있는 남성 공무원의 부인들을 위주로 영입했으며, 윤○○ 씨는 석보면에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젊은 사람을 위주로 영입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보존회에 가입을 했다가 일이 힘들거나, 보존회 활동에 관심이 없는 등의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윤○○ 씨는 재령 이씨 문중의 며느리들에게 직접 찾아가 음식디미방보존회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집안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 같기 때문이었다.

“우리 뿌리니까 자기 문중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거 때문에 하게 되지. 하자카고 권유하고 그래 인제 우리가 도와야 안 되나 이카고. 내가 제일 많이 회원들을 문중에 며느리들을 다 회유를 했지. 거의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들자들자카고 그래 내가 많이 했지 (중략) 우리 집안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음식디미방 쓰신 분이 우리 집안 어르신이고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한다는 그런거지. (중략)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을 받기를 했나 무작정 봉사했는데 그때는 무료로 계속 했지. (중략) 집안일이니까 하는거지.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하지 서로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하는거지.”⁸⁾

7) 배영동·정연상 외 1명, 『장계향 수산유거지 복원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2019, 45쪽.

8) 윤○○, (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장)의 제보(2020년 11월 24일, 통화자료).

윤○○ 씨는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하는 일이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당연히 집안의 며느리가 도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재령 이씨 문중 며느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회의 역할이자, 집안의 일로 여기며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현 초기 황○○ 씨가 회장이었을 때는 재령 이씨 문중 며느리보다는 지역 공무원의 부인이 많았다가 점차 윤○○ 씨의 권유로 재령 이씨 문중 며느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음식디미방 보존회 회원 중 재령 이씨 문중 며느리는 석계면 거주 5명, 주남리 거주 4명, 영양읍 거주 2명으로 전체 약 30명 중 11명이다. 음식디미방보존회의 역대 회장은 1대 황○○ 씨, 2대 조귀분(석계중가 13대 종부) 씨, 3대 신○○ 씨, 4대 윤○○ 씨이다. 이를 보았을 때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에 있어 재령 이씨, 석계중가의 가치관이 의도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음식디미방보존회는 수록 음식을 처음 재현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재현과 상품 판매를 맡아오다 2016년부터 영양축제공관재단으로 주도권을 넘겼다. 재단은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록 음식 상품화를 맡고 있는 운영단체이다. 따라서 음식디미방보존회와 재단이 어떤 의도로 선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 전승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으로 재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 과정

문화연구에서 재현이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오늘날 새롭게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현에는 원형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과거의 것을 원형 그대로 복원 혹은 재현하는 과정에는 참여 연구자나 재현주체의 가치관, 의도, 해석이 부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에 참여한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의 주체 변화

앞서 언급한대로 연구자들이 『음식디미방』 수록 내용을 해석했기 때문에 17세기의 음식을 조리해볼 수 있었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은 두들마을에서만 재현된 것이 아니라 요리연구가 황혜성과 한복려·한복선·한복진이 먼저 재현한 바가 있다. 이들은 1999년 해석본인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을 출간하면서 재현한 수록 음식과 조리법을 함께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두들마을에서 이루어진 재현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초기 재현부터 현재 재현까지 재현 주체에 주목하여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 안에 적용되는 각각 주체의 가치관

이나 성격에 대해 구명할 것이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초기 재현은 2006년 음식디미방보존회가 결성되고 난 후 시작되었다. 보존회 첫 회장인 황○○ 씨를 필두로 회원들과 함께 재현했으며, 당시에는 연구자 없이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을 보며 수록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의 해석에는 생략된 부분이 많아 원전을 파악하는 경우가 생겼고, 『음식디미방』은 중세국어로 쓰였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본이 필요했다. 이에 2006년에 발간된 백두현 교수의 『음식디미방 주해』를 함께 보면서 연구했다.⁹⁾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후기 재현은 음식 연구자에게 용역을 주게 된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여름까지다. 보존회 회원들이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없이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자 영양군청에서 음식 연구자에게 재현 용역을 주었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조리법 표준화 사업(이하 후기 재현)은 <반가음식(음식디미방음식) 계량화 및 메뉴얼화>라는 이름으로 2008년 겨울부터 시작했으며, 계량화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¹⁰⁾ 후기 재현은 『음식디미방』에 기록된 조리법을 토대로 음식을 만들고 계량화하여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후기 재현에는 허성미 교수, 김정순 교수, 석계종가의 종부,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원 등이 참여하였다. 종부 조귀분 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다 영양군의 요청으로 영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재현 사업은 2008년 겨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귀분 씨가 영양으로 왔을 때는 이미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사하기 전부터 시간이 나면 영양으로 내려와 재현 사업에 참여하였다.

재현 주체 중 한 사람인 종부는 『음식디미방』의 소유권을 가진 석계종가의 13대 종부인 조귀분 씨이다. 사실 『음식디미방』과 수록 음식은 석계종가에서 전승되던 것이 아니지만 종부가 재현에 참여하고 소유권도 석계종가가 가지게 되었다. 현재 종가를 중심으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이 재현·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에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하는 것에 석계의 첫째 아들인 이상일의 후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재현을 위해 혈통적 위계질서의 우위에 있는 석계종가의 종부가 보존회 회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윤○○ 씨는 2006년에 음식디미방보존회가 결성될 때부터 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재현 초기에도 참여한 재현 주체이다.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봄까지 사업에 참여하였다. 2009년 봄부터는 개인적인 일이 바빠져 신○○ 씨가 윤○○ 씨를 이어서 참여했으며,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 작업은 장계향예절관 부엌에서 이루어졌다.¹¹⁾

재현 주체가 변화된 과정을 정리해보면 초기 재현은 『음식디미방』에 관심 있는

9) 윤○○(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장)의 제보(2020년 8월 22일, 통화자료).

10) 허성미 외 3명, 『반가음식(음식디미방음식) 계량화 및 메뉴얼화』, 영양군, 2009. (미간행 내부자료)

11) 조귀분(여, 72세, 석계종가 13대 종부)의 제보(2020년 7월 27일, 두들마을).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원 즉, 영양 지역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자의 부재로 어려움이 따랐으며, 이로 인해 후기 재현은 음식 연구자가 참여하여 재현되었다. 후기 재현부터는 보존회 회장이 종가의 종부로 바뀌면서 참여하게 되었다.

2)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표준화 과정과 재현 주체의 가치관

『음식디미방』에 기록된 조리법은 현대에도 조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상세한 계량을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연구자의 참여가 필요했다. 이후 연구자의 참여로 재현된 수록 음식 조리법은 표준 조리법이 되어 재현본(本)¹²⁾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조리법을 표준화하는 후기 재현 과정을 알아보면서 재현 주체 각각의 지향점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조리법은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현본에는 면병류, 어육류만 수록되어 있다. 면병류는 18가지를 모두 재현하고, 그 중 주재료나 조리법에 차이가 있는 음식을 추가로 재현하여 총 25가지 조리법을 표준화 했다. 어육류는 74가지 중 재료를 구할 수 없는 음식은 만들지 않고 54가지를 재현했으며, 하나의 음식 조리법에 다른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 15가지를 추가로 재현하여 총 69가지 음식을 재현했다. 조리법은 『음식디미방』을 최대한 따르고자 했다.¹³⁾

“(원전을 그대로 복원했을 때) 음식이 맛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된다고, 제가 주 연구 책임자고 그렇게 하면 이 연구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 내지는 나중엔 그냥 밀어 붙였어요. (중략) 원형 그대로를 맛보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맛을 보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거지. 요즘 스타일로 변형이 된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맛이 있고 없고는 적어도 함부로 말할게 못 되죠. 적어도 300년 이상 된 음식을 그게 맛이 있다 없다라고, 보편적으로 맛이 있네? 없네? 이런거는 자기가 느낄 수는 있지만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가 없는...”¹⁴⁾

허성미 교수는 원전에 수록된 조리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현대인들이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먹고 느낄 맛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느낄 수는 있지만 원전의 역사성을 생각했을 때 그 맛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 가지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조리 실습과 관능검사를 병행했다.

『음식디미방』의 조리법에는 음식마다 양념을 얼마나 넣어야하는지 기록되어 있

12) 이 글에서 재현본(本)은 허성미 외 3명, 『반가음식(음식디미방음식) 계량화 및 메뉴얼화』, 영양군, 2009. (미간행 내부자료)를 의미한다.

13) 허성미 외 3명, 『반가음식(음식디미방음식)계량화 및 메뉴얼화』, 영양군, 2009.

(미간행 내부자료) 1쪽 참조

14) 허성미(여, 안동과학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의 제보(2020년 12월 19일, 통화자료).

으나 그 수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조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연구를 통해 음식 조리법마다 들어가는 식재료와 양념의 양을 계량하였다. 계량은 1큰 술, 1작은 술, 되, 홑 등을 기준으로 무게를 재어 킬로그램(kg)과 그램(g)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계량한 양념류는 간장, 국간장, 기름, 된장, 식용유, 참기름 등이 있다. 또한 누르미소스, 간장국 같은 다른 양념과 혼합하여 만드는 것도 계량하였다.

원전에는 ‘청장(淸醬)’ , ‘기름간장’ , ‘겉죽한 장’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간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나 심도 깊은 연구와 해석이 필요한 양념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회의와 조리 실습을 통해 재현했다. 청장은 메주를 띄운 후 처음으로 나오는 맑은 간장인 ‘첫 간장’ 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을 넣어 만드는 첫 간장으로 재현하였다. 또한 간장은 메주와 함께 오래 둘수록 달고 겉죽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보고 단간장으로 해석하였다. 기름간장은 간장 중에서 기름의 비율을 간장보다 많이 넣어 만드는 유장(油醬)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간장기름의 경우에는 간장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¹⁵⁾ 이처럼 양념을 계량하는 것을 통해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상품화 했을 때 일정한 맛이 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은 항목상 146가지이지만 상세히 읽어보면 다른 방법의 조리법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¹⁶⁾ 또한 조리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이라 해도 여러 방법으로 조리했다. 외화채의 경우 ‘녹도ㄴᄂᆞ 고로 못쳐(녹두가루 고루 묻혀)’ , ‘쓸는 물의 데쳐 다시기를 세 번 흐여(끓는 물에 데쳐 건져내기를 세 번 하여)’ 라는 조리 내용이 있는데, 오이채를 삶은 후 녹두가루를 묻히고 다시 끓는 물에 넣기를 세 번 반복하라는 의미이다. 이에 재현 과정에서 녹두 행구는 방법, 녹두전분과 찬물에 행구는 방법, 녹두가루와 찬물에 행구지 않는 방법 즉, 총 3가지 방법으로 재현되었다.

음식 연구자인 허성미 교수는 『음식디미방』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복원하고자 했다. 허성미 교수는 주말마다 두들마을 장계향예절관으로 가서 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음식 연구자의 지향점과 성격을 알아볼 수 있었다. 첫째, 최대한 원전과 부합한 재현을 선택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둘째, 양념류를 계량화하여 객관성과 학술성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수치화되지 않은 양념을 연구하여 수치화 했고, 순수 양념 외에 다른 양념과 섞어 만드는 경우를 연구하고 계량화 하여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일정한 맛이 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원전에 항목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재현하는

15) 허성미(여, 안동과학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의 제보(2021년 1월 9일, 통화자료).

16) 배영동, 「17세기 장계향의 삶과 조리지식의 현재 문화자원화 과정」, 『비교민속학』 63, 비교민속학회, 2017, 11~12쪽 <표1> 참조.

방식을 선택했다. 146가지 항목 중 추가로 조리법이 더 기록된 유형도 연구하여 수록 음식 표준화 선택지의 다양성을 높였다. 이후 상품화로 기획할 때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원전의 조리법을 최대한 많이 재현하고자 한 것이다. 세 가지 유형을 보았을 때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술적 지식을 통해 연구하고, 계량화 하는 점, 재현본이 제작된 점을 통해 허성미 교수의 재현 성격은 학술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식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음식도 만들 수 없고, 상품화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후기 재현에서 재현할 음식의 식재료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어떤 식재료가 선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후기 재현에 필요한 식재료는 영양군 시내 마트에서 구입했으며,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해당 식재료를 재배, 사육하는 농장에서 직접 구매했다.

잡채와 꿩김치 등에 들어가는 꿩의 경우 전문 사육 농장에서 기르는 것을 구매하였으며, 당시 안동에 있는 꿩 전문점에서 사육하여 손질한 꿩을 택배로 받기도 했다. 쑥탕에 들어가는 마른 청어는 포항에서 구하여 재현에 사용했다. 조리법 표준화 용역 당시 마른 청어를 구했던 경험에 대해 윤○○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른청어) 그걸로 쑥국을 해봤는데 (중략) 청어 과메기를 구해와가 그거도 어렵게 구해왔지. 여기는 청어 과메기가 잘 없어 포항 같은데 가면 몰라도. 그래서 포항에 부탁해가지고 사서 붙여가지고 해봤거든 교수님들하고. (중략) 그래서 해봤더니만은 좀 비린 맛이 많이 나요. 옛날에는 요즘 같이 음식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것도 맛있게 먹었는데 현대인 입맛에는 조금 아닌 거 같았어요. 꿩치 비린 거보다 청어가 더 비리(비려) 근데 또 비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청어를 먹잖아요. 그래도 그게 기호식품이지 일반식품은 아니거든 일반인들 상대로 하기에는 쑥탕이 너무 아니드라고.”¹⁷⁾

마른 청어가 들어가는 쑥탕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재료를 공수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맛이 비려서 상품화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른 청어처럼 어렵게 재료를 구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또 다른 식재료로는 마른 해삼이 있다. 마른 해삼은 ‘해삼과 전복’에 쓰이는 식재료로 국산 해삼을 구매해 직접 말리는 작업을 통해 재현했다. 그러나 국산 해삼은 말렸을 때 크기가 너무 작고 볼륨이 없었다고 한다.

“마른해삼은 구입을 하니까 중국산이잖아, 중국산이라서 우리가 국산 해삼을 사가지고 말려봤거든. 사서 말려보니까 해삼이 너무 쪼그라들어 버리는거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 중국산을 사는 수밖에 없더라고. 중국산은 말려 놓은 거 되게 크고 좋은데 우리나라 해삼 비싸고 좋은 거 사서 말려봐야 제제한게 제제한게 (중략) 그렇더라고 큰 걸 시켰는데도.”¹⁸⁾

17) 윤○○(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장)의 제보(2020년 9월 22일, 통화자료).

18) 윤○○(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장)의 제보(2020년 9월 22일, 통화자료).

그럼에도 ‘해삼과 전복’ 조리법 중에서 해삼탕을 재현하긴 했지만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크고 좋은 중국산 마른 해삼이 있었지만 전통 음식을 재현하는 작업에 중국산을 쓰는 것은 의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국산 해삼을 이용했다고 한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조리법에 기록된 식재료 중에는 현재 어떤 식재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재료가 몇 가지 있다. 그 예로 식염초, 천초, 참버섯 등을 들 수 있다. 조리법 표준화 용역 당시 천초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음식디미방』 해석본 중에도 천초를 산초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¹⁹⁾ 영양에서는 난두라고 부르는 천초가 있었기 때문에 영양에 사는 보존회 회원들은 난두를 천초라고 주장하였고, 다른 사람은 산초가 천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음식디미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천초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처럼 천초는 난두, 산초, 제피, 초피, 등 여러 향신료로 추측되었으며,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천초라고 판매되는 것을 구매해 재현에 사용하였으며, 천초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제피를 사용하기도 했다. 식염초, 참버섯도 정확하게 어떤 식재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식염초는 시금치로, 참버섯은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으로 대체하여 재현했다.

윤○○ 씨의 제보를 통해 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윤○○ 씨는 보존회 회원이자 재령 이씨 문중 며느리이고 4대 회장을 맡고 있던 재현 주체로 보존회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음식디미방보존회의 지향점과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상품성 있는 음식을 선택했다. 마른 청어의 사례를 보아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상품으로 재현했을 때 상품성이 있는지 고민하고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원전의 가치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택했다. 해삼의 사례를 보아 원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산 해삼으로 만들면 더 보기 좋았을 것이지만 전통 음식을 재현한다고 생각했고 원전을 그대로 재현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산 해삼을 선택했다.

셋째, 현실적인 재현을 선택했다. 천초의 사례를 보아 재현 주체 마다 천초의 정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엔 상품으로 판매할 때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곤란하니 시중에서 천초라고 판매하는 것으로 재현하게 되었다. 천초를 구하기 어려울 땐 제피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융통성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음식디미방보존회는 상품성 있는 재현, 조리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재현, 원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 재현을 했기 때문에 현실지향적 성격을 지녔다 할 수 있다.

재현 주체 중 종부 조귀분 씨는 원래 영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지만 수록 음식

19) 백두현, 『음식디미방 주해』와 영양군, 『음식디미방』은 ‘천초’를 천초로 번역했지만 별탕, 양숙, 양숙편에 기록된 ‘천초’는 예외적으로 산초로 번역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재현을 위해 영양을 오가며 참여했다. 종부도 역시 다른 재현 주체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내고 조리를 하며 수록 음식 재현에 힘썼다. 그 중 종부의 의견이 선택된 사례를 알아보려고 한다.

양념류 중에서 간장은 단간장, 기름간장, 초간장 등으로 추가되는 양념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며 쓰였기 때문에 간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간장은 종가에서 전승되고 있지 않아 다른 간장을 써야했다. 그러나 간장은 각 가정마다 염도와 맛이 달라서 음식을 했을 때 맛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윤○○ 씨는 옛날 음식 맛을 내려면 직접 메주를 만들어야 하고, 간장도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종부는 이와 다른 의견을 냈다.

“할머니가 상세하게 요즘처럼 국간장 몇 술 참기름 몇 술 이렇게 적어놓진 않았잖아요. 양념을 우리가 만들면서 현대인의 입에 맞도록, 예를 들면 국간장하면은 가정집에서 담은 조선간장은 염도가 좀 진하잖아요 많이 짜거든요. 그러면은 국간장을 우리가 샘표에서 나오는 국간장으로 통일시 하자. (중략) 그래야지 주부들이 자기가 담은 조선간장으로 안 먹어도 마트에서 그냥 샘표 사와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통일시 해서 사용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²⁰⁾

종부는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시중에 판매하는 간장을 사용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재현 당시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샘표간장’을 사용하여 재현하기도 했다.²¹⁾ 그러나 현재 상품으로 판매되는 수록 음식은 윤○○ 씨의 간장 공장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중에는 수증계라는 항목이 있다. 수증계²²⁾는 닭고기가 주 재료로 쓰이는 요리이다. 허성미 교수는 조리법을 바탕으로 재현하였으나 종부는 이를 보고 양반가의 음식에 걸맞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냈다.

“교수님이 닭을 삶아가지고 큰 덩어리로 말을 하자면 닭을 한 뿔 사등분 잘랐다

20) 조귀분(여, 72세, 석계종가 13대 종부)의 제보(2020년 7월 27일, 두들마을).

21) 샘표간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윤○○ 씨, 신○○ 씨의 집간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허성미(여, 안동과학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의 제보(2020년 12월 19일, 통화자료).

22) 백두현,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2006, 204~205쪽. “<수증계>-살찐 암탉의 (털을) 모두 뜯어 (뼈)마디를 풀고, 영치와 양가슴을 매우 두드린다. 노구술을 달구고 기름 반 종지쯤 쳐 고기를 넣어 익도록 볶고, 맹물을 가득 부어 장작불을 지펴 끓이되, 토란알 한 되를 순무 적(炙)의 모처럼 썰어서 한데 넣는다. 어느 정도 삶아 그 고기가 다 물러지거든 고기와 나물을 건져 낸다. 그 물에 간장을 알맞게 타서 고기를 도로 넣어 한 번 솟구치도록 끓여 내장 냄새가 없어진 후 밀가루 두 국자를 알맞게 타서 늙은 동화적(炙)의 모 길이만큼 오이도 길쭉길쭉 썰어 넣는다. 잔 파와 부추를 한 줍씩 옆에다가 묶어 넣어 물에 타 넣은 가룻기가 걸쭉해지고 나물이 익을 만하거든 넓은 대접에 잡채 벌여 놓듯 나물과 고기를 걸걸이 놓는다. 국 뜨고 위에 계란 부쳐 잘게 썰어 생강과 후춧가루를 같이 뿌려 써라.”

그렇까? 닭 한 마리를 이등분인가 사등분으로 크게 잘라서 그릇에 담고 그 위에다가 인제 할머니가 오이를 실로 묶어서 해라 쪽파를 실로 묶어서 닭 육수로 익혀서 내라 그런게 있어요. 그러면 그 실로 묶은 거를 닭고기 위에다가 그냥 막 그대로 이래 놓은거야. 내가 이래 보니까 그건 잘못됐어. 양반가에서 먹는 스타일은 정말 작게 짧게 한입에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음식이 반가의 음식인데 이거는 아니라(아니다). (장계향이) 연세가 70대 초반에 이 조리서를 썼거든요. 그러면 깜빡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안적을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다보니까 (중략) 그니 할머니가 실로 묶은 것을 실을 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꼼꼼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허성미 교수는 닭고기를 이렇게 크게 그릇에 담고 실 묶은 채로 쪽파가 이래 길잖아, 이삼십 센치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해서 쪽파도 실 묶은 거를 풀고 길이를 한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로, 달걀지단처럼 새끼손가락 길이, 오이도 새끼손가락 길이, 달걀지단도 새끼손가락 길이, 황지단, 백지단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거를 차례차례 놓는거야. 오이 파 부추 이런 식으로 놓고 중간에 흰 지단 노랑지단 하고 그 위에 생강을 뿌리고 이래서 아주 칼라풀하게 그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허성미 교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전에 그렇게 했는데 섬섬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꿨다고, (중략) 허교수는 살코기를 얹어 놓은거를 우리는 다 풀었어요. (중략) ‘아이고 종부님이 종가에서 하는 음식이니까 얼마든지 고쳐도 됩니다. 종부님이 고치세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섞어서 앞 접시에 나눠먹거든” 23)

종부는 조리법 표준화 작업 결과물을 보고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장계향이 노년에 『음식디미방』을 저술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조리법을 변경했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이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이고 장계향의 나이를 생각해 재현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허성미 교수는 ‘종가에서 하는 음식이니까 얼마든지 고쳐도 된다.’는 답변을 한다. 이는 종부에게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과 상품화에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에는 음식 조리법 외에도 식재료를 어떻게 삶는지, 보관하지 설명하는 항목도 있다. 그 중 쇠고기 삶는 법²⁴⁾이 있는데, 늪어서 질긴 쇠고기를 삶을 때 살구씨와 갈잎을 넣으라고 기록되어 있다.

“갈잎이라는거는 칩 있잖아 칩. 칩 뿌리를 갈근이라 하고 그 잎을 갈잎이라 하고 칩의 새순 있잖아요. 그걸 갈용이라 해요. 도토리나무 갈잎이 아니고 그게 갈잎이에요. (중략) 종부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종부님이 가르쳐주셨어. 근데 내 생각에도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중략) 갈잎이 칩의 잎이라고 얘기하셨거

23) 조귀분(여, 72세, 석계종가 13대 종부)의 제보(2020년 7월 27일, 두들마을).

24) 백두현,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2006, 162쪽. “<쇠고기 삶는 법>-센 불로 달여 (물이 끓어서) 솟구치면 천천히 (쇠고기를) 넣어 약한 불로 달이되 뚜껑은 덮지 마라. 만일 잘못해서 덮으면 독(毒)이 있게 된다. 늪어서 질긴 고기인 경우에는 부순 살구씨와 갈잎 한 줌을 한데 넣어 삶으면 빨리 무르고 연해지느니라.

든. (중략) 훨씬 와 당췌. 갈대읻은 아닌 거 같아 갈대읻이 얼마나 질기고 아무 그 거(효능) 없는데 약초라고 할 수가 없는데” 25)

기존에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해석한 해석자들은 갈읻을 갈대읻, 떡갈읻으로 해석했지만 종부는 ‘갈’ 이 葛(췌 갈)의 갈을 의미한다고 했다. 장계향의 아들인 갈암(葛庵) 이현읻(李玄逸)의 호에서 실마리를 얻어 의견을 낸 것이다. 종부는 수록 음식 재현에 종가를 접목하려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재현 주체로 참여한 종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종부의 지향점과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 첫췌,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대중성·상품성 있도록 재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양념은 집집마다, 상품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수록 음식을 만들었을 때 같은 맛이 나야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는 수록 음식이 대중적으로 활용되기를 원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췌, 양반가의 기록이니 반가의 격에 맞도록 재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수증제의 사례를 보았을 때 반가에서 먹던 음식이니 그에 맞게 재현하는 것을 원했다. 두들마을은 고택이 즐비한 곳으로 전형적인 전통 반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한 곳에서 맛 볼 관광음식도 역시 양반가의 음식을 표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경향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셋췌,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에 종가를 접목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장계향 아들의 호를 사용해서 음식을 해석하기도 했으며, 상차림 상품화에도 장계향의 설화를 연결하여 음식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는 4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이러한 종가와 연결하려는 재현은 종가가 참여했으니 합당한 진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부는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에 장계향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며 종가 재현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부여했다. 또한 양반가의 형식으로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점에서 종가지향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세 재현 주체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해석·복원하였고, 이를 통해 음식디미방체험관에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었다. 세 재현 주체는 함께 재현에 참여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각각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해석에 차이점이 있었다. 재현에 있어 선택되는 기준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25) 윤○○(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장)의 제보(2020년 9월 22일, 통화자료).

〈표1〉 세 재현 주체의 성격과 지향점

재현 주체 \ 내용	성격	지향점
연구자	학술지향적	•원전에 최대한 부합한 재현 •객관적 입장에서 학술적 근거를 통한 재현 •조리법의 다양성을 제안하는 재현
음식디미방보존회	현실지향적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써 재현 •상품성 있도록 재현 •종가의 의견을 존중하며 재현
종부	종가지향적	•대중성 있는 재현 •양반가의 형식에 맞는 재현 •종가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재현

초기 재현이 기초를 닦은 재현이었다면, 후기 재현은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관광의 논리에 따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 재현 과정에는 재현 주체의 의도적인 선택이 포함되었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할 때 ‘선택’이라는 행위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들의 선택은 주어진 역할과 단체의 성향에 따라 의도적으로 해석하여 재현한 것이다. 초기 보존회 회원은 『음식디미방』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이 다수였지만 점차 재령 이씨 문중의 며느리들이 유입되었다. 보존회의 초대 회장은 재령 이씨 문중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후에 석계종가의 종부가 필요에 의해 회장을 맡게 되었다. 연구자도 원전에 부합한 재현을 지향하지만 종부의 선택을 수용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보존회의 경우도 종부를 2대 회장으로 요청하며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종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후기 재현에는 종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상품화까지 연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가는 『음식디미방』과 수록 음식 전승과 재현에 의도적인 의견을 내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종가를 중심으로 재현하는 현상을 종가중심주의로 해석하였다. 종가중심주의는 기존의 전통 자원이 지역민에 의해서 전승, 계승되고 있다가 종가와 종부의 참여로 인해 정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맥락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정권이나 소유권에 있어서 종가와 종부의 의견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디미방』을 지역의 유산으로 바라보고 재현할 수 있는 주체는 꼭 종가와 종부가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에 적합한 사람으로 종부가 요청되었으며, 종가중심주의가 작동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에는 종가중심주의의 논리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상품화하는 과정까지 이어진다.

4.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의 방식

현대사회에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비자의 입맛과 같은 요구의 수용, 공급자의 수월한 조리를 위한 조리법 표준화 등을 갖추었으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전통, 양반가 등의 표상도 충족시키고자 했다. 현대사회에서 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함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구매해 먹는 음식에 대해 맛의 일정함과 양의 일정함을 원하며, 공급자는 조리의 일정함과 재료의 일정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광상품화의 조건을 지니기 위한 작업으로 재현본을 제작한 것이다.

앞서 재현 과정과 그에 수반하는 선택의 논리와 정치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재현 후 상품화 하는 과정과 상품으로 판매되는 수록 음식에 어떤 선택적 재현 방식이 적용되는지, 재현 주체의 관점은 무엇인지 구명해보고자 한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디미방체험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오랫동안 판매되었던 만큼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바뀌고 운영 사정 등이 변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상품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부상·정부인상 메뉴 구성을 표로 나타내고, 변화상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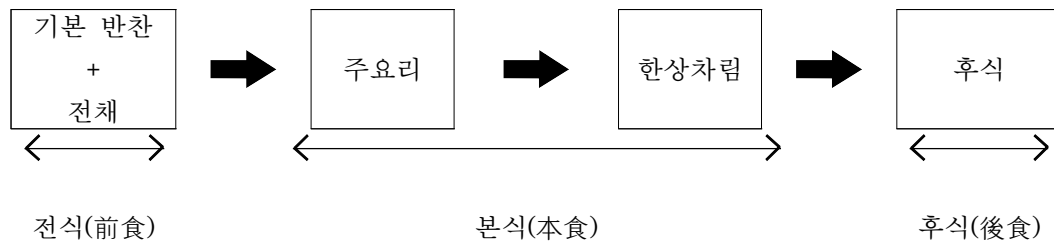
처음 재현한 수록 음식을 체험객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상품화 초기로 블로거, 기자단 등 체험단을 초빙해 의견을 듣는 식으로 판매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상품화 정착기로 팸투어, 장계향아카데미 등을 개최해 체험객을 모았으며 메뉴의 변동이 크지 않은 시기이다. 2018년부터 2020년은 상품화 발전기로 상차림 메뉴가 달라지고 교육원으로 체험공간을 옮기는 등 여러 변화를 준 시기이다.

음식디미방체험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차림 메뉴는 2020년 기준 소부상, 정부인상, 연잎밥상, 잡채밥상이다. 이 중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이 포함된 것은 소부상, 정부인상, 잡채밥상이지만 상품화 초기부터 판매된 소부상과 정부인상을 기준으로 변화상을 살필 것이다. 소부상의 ‘소부(少婦)’는 며느리를 의미하여 낮은 단계의 상차림이고, 정부인상의 ‘정부인(貞夫人)’은 장계향의 셋째 아들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이 이조판서를 지내자 장계향에게 부여된 위호에서 가져온 말로, 높은 단계의 상차림을 의미한다. 명칭에 따라 소부상과 정부인상에 올라가는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수를 다르게 하여 상차림의 단계와 가격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부상은 33,000원, 정부인상은 55,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은 한 상에 밥, 반찬, 국 등을 모두 올려 먹는 방식이지만 서양식 상차림은 에피타이저, 육류·어류 요리, 디저트를 순차적으로 먹는 방식이

26) <부록> 참고.

다. 역설적이게도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을 상품화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상차림은 코스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2>을 통해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상차림 코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2> 음식디미방체험관 소부상·정부인상 상차림 순서

<그림2>는 상차림 음식이 나오는 순서를 나타내고 유형별로 전식·본식·후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기본 반찬과 전채가 제공되는 전식은 체험객이 오기 전에 미리 수저와 개인 접시, 기본 반찬인 멸치볶음, 명이나물 장아찌를 낸다. 전채는 체험객이 자리에 앉으면 물김치와 함께 도토리죽이나 단호박죽을 내고, 정부인상일 경우 감향주가 추가된다.

본식은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으로 이루어진 주요리와 가정에서 먹는 일반식으로 이루어진 한상차림을 합친 것이다. 주요리에서 수록 음식의 가짓수로 소부상인과 정부인상의 차별을 둔다. 소부상에는 주로 잡채, 빈자법, 연근채, 연계찜, 가제육, 동아누르미가 올라가고, 정부인상에는 잡채, 어만두, 대구껍질누르미, 빈자법, 연근채, 수증계, 동아누르미, 가제육이 올라간다. 이 구성이 기본적인 주요리 구성이고, 상황에 따라 가지누르미, 쟈산삼, 석류탕 등을 대체 음식으로 올리거나 추가적으로 음식을 더 차린다.

주요리를 먹은 후에는 한상차림이 차려지는데, 밥과 국, 찌개, 여러 반찬을 올린다. 주요리를 한상차림보다 먼저 차리는 것은 조선시대 음식과 현대 음식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현대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면 다음 순서에 먹을 조선시대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미리 먹은 현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주요리는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없게 된다. 다른 이유로는 주요리가 입맛에 맞지 않던가, 양이 적어 배가 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음식으로 차려진 한상차림을 먹음으로써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이에 주요리를 먼저 차리고 다음으로 한상차림을 먹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상차림 이후에 먹는 후식에는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인 전화법(화전)과 석이편이 올라가고 차로는 오미자화채가 제공된다.

전식·본식·후식 상차림을 구성하기까지 10년간 변화를 거치며 상품화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그 과정에서 고려되는 선택의 논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메뉴 선택, 식

재료 선택 등에 재현 주체의 의도가 깔려있다.

첫 번째, 관광상품화를 의도한 재현이다. 상품화로 활용하는 것은 판매를 위한 것인데, 체험객이나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재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요구나 입맛에 맞추어 반찬을 추가로 올리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쓴 음식을 올리는 식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전통과 현대의 절충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 이유는 전통음식인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과 현대 음식인 전체 반찬, 한상차림 등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음식디미방』에는 고춧가루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재현한 음식들은 대부분 담백하고 싱거운 맛이다. 맵고 짭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추어 한상차림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반찬을 제공하며, 고추장과 간장을 양념으로 제공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관광이 중요한 문화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관광지의 음식, 즉 관광음식을 맛보는 것은 관광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다. 관광음식이란 관광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해오는 음식, 지역 특산물, 지역의 유산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음식을 말하며 해당 지역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뜻한다. 한국인들은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유명한 음식을 꼭 맛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관광음식은 일상에서 먹을 수 없는 비일상의 특별함을 가지는 음식으로, 이를 맛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디미방체험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메뉴로 선택했다. 감향주, 녹두나화, 수증계, 누르미, 잡채, 어만두 등이 예이다. 그 중 감향주와 잡채는 가장 특색 있는 음식으로 평가된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잡채는 당면으로 만든 음식이지만 『음식디미방』에 기록되어 있는 잡채²⁷⁾는 여러 채소와 꿩고기를 버무리고 밀가루즙을 뿌려 먹는 식의 음식이다. 전통적인 잡채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감향주는 떠먹는 술로, 걸쭉한 요거트 제형으로 만들어진다. 떠먹는 술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생소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이다. 이러한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은 흔치않은 고급 경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소비 욕구가 발동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관광객이 선호하지 않고 식재료를 구하기도 어려워 선택되지 못한 음식도 있다. 곰발바닥, 참새, 개고기 음식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곰발바

27) 백두현,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2006, 279쪽. “<잡채>-오이채, 무, 땃무, 참버섯, 석이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녹두질곰(=숙주나물)은 생것으로 해라 도라지, 거여목, 마른 박고지, 냉이, 미나리, 파, 두릅, 고사리, 시금치, 동아, 가지와 꿩고기를 삶아 가늘게 찢어 놓아라. 생강이 없거든 건강이나 초장으로 하라. 후추, 참기름, 진간장, 밀가루, 갖가지 것을 가늘게 한 치씩 썰어라 각각 기름 간장으로 볶아, 혹은 교합하고 혹은 따로 담기를 임의로 하여 큰 대접에 놓아라. 즙을 뿌리되 적당히 하고, 위에 천초, 후추, 생강을 뿌려라 즙은 꿩고기를 다져 해라 걸쭉한 장을 걸러 삼삼하게(=담백하게) 해라 참기름과 가는 밀가루를 넣되, 국맛이 알맞거든 진말국에 타서 한 번 솟구치도록 끓여라. 즙을 걸쭉하게 하지는 말아라. 동아는 생생할 때 물에 잠깐 데쳐서 한다. 빗깔을 넣으려면 도라지와 맨드라미로 붉은 물을 들이고, 없으면 머루 물을 들이면 붉어진다. 이것은 반드시 (앞에서 말한) 가지가지 것을 다 하라는(=쓰라는) 말이 아니니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대로 하여라.

닭은 재현도 하지 않았으며 참새, 개고기는 재현은 했지만 상품화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개고기는 선호음식 아닌 기호음식이기 때문이고, 곰발바닥과 참새는 식재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상품화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메뉴를 선택할 때 소비자의 관광 욕구와 경향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두 번째, 재현 주체가 의도한 선택이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을 재현한 주체는 음식디미방보존회, 종부, 연구자였으나 상품화 과정과 판매 과정에서는 음식디미방보존회, 종부, 영양축제관광재단이 참여했다. 2010년부터 음식디미방보존회가 판매와 운영을 맡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 영양축제관광재단이 운영하게 되었다.

“영농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해볼라 그랬는데 돈이 안 되고 직업이 없이 그거만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거 같아서 재단에 넘어 간거지. 우리가 뭐 넘겨 준건 아닌데 군청에서 그렇게 해서 법인으로 하면 질이 떨어지겠다 판단한거지. 그래서 법인을 결성했다가 해체하고 축제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법인 해체했지. 재단에서 하겠다 하니까 손 뗐지 뭐 자신이 없고 우겨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해서 확실하게 돈을 내겠다는 자신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손 떼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거지.”²⁸⁾

보존회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보길 원했지만 보존회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군청에서 재단으로 운영권을 넘겼으며, 이러한 이유로 재현부터 상품화, 운영을 도맡아 하던 보존회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수록 음식은 원래 두들마을 음식디미방체험관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나 영양군청과 재단은 2018년 4월에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이하 교육원)을 건립하여 이곳에서 음식 판매를 시작했다. 재단의 운영방식은 현대인이 기대하는 전통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식이다. 그러나 재단이 운영하면서부터 한상차림 반찬의 가짓수도 축소되고, 연계점 위에 올라가던 자소임을 갯잎으로 변경하는 등 상차림 메뉴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기존 정부인상, 소부상 외에 2019년부터 연잎밥상, 잡채밥상 등을 기획하여 더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고자 했다.

정부인상과 소부상은 며칠 전에 예약 주문을 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찾아온 손님들도 수록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잎밥상과 잡채밥상을 기획했다. 하지만 연잎밥상과 잡채밥상에 제공되는 수록 음식의 수는 매우 적어 여타 한식당에서 먹는 코스 요리와 비교했을 때 특색이 있지 않았다.²⁹⁾ 그러나 정부인상

28) 윤○○(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장)의 제보(2020년 8월 22일, 통화자료).

29) 예○○(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원)의 제보(2020년 10월 21일, 음식디미방체험관). 연잎밥상은 연잎밥, 불고기, 김치, 당면잡채, 샐러드, 우영조림, 콩나물국, 삼색나물, 부추전으로 한상차림을 차리고, 후식으로 화전과 녹두나화를 내는 밥상이다. 잡채밥은 잡채, 불고기, 김치, 북어채무침, 낙지젓갈,

과 소부상에 비해 1인당 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음식디미방체험관에서 판매하던 것을 교육원으로 옮긴 후 한상차림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체험관에서는 된장국, 계절 반찬 등 10여 가지 이상의 계절 반찬을 올렸지만 교육원에서는 파전과 도토리묵밥, 반찬 몇 가지를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이는 재단에서 선택한 결정이었으며 2018년에만 진행되고 이후엔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재단은 상품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보존회와 종부의 입지가 줄었으며, 이에 윤○○ 씨는 걱정스러운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재단에서 우리가 머리 맞대서 회의를 해요. 종부님하고 보존회하고 재단하고 모여서 해요. 그전에는 무턱대고 묵밥도 그냥 내놓고 그랬는데, (중략) 내가 그랬거든. 최소한 음식메뉴가 바뀔 때라도 업그레이드하든 뭘 하든 그런 걸 할 때만큼이라도 운영은 재단에서 해도 보존회나 보존회 못 믿겠으면 종부님한테라도 협조를 구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³⁰⁾

초기 재현부터 애정을 가지고 참여했지만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보존회의 역할이 축소되자 종부에게라도 협의를 요청해야한다며 운영 형식에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상품화에 있어서 보존회가 종부와 종가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보존회는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 방식이 서운할 수 있지만 종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재단도 수용하여 상품화 과정이나 운영 방식에 종부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³¹⁾

종부는 재현부터 상품화까지 참여한 재현 주체이며 상차림 메뉴에도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대표적인 메뉴가 도토리죽이다. 장계향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도토리나무를 심고 도토리죽을 쑤어 구휼했다는 설화가 있어 이를 상품화에 반영한 것이다.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장계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알리고자 한 것이며, 종가의 유명한 선조를 신성시하고, 기리기 위해 상차림에 접목한 것이다.

이는 도토리죽이라는 메뉴를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통해 장계향을 신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음식디미방』에는 도토리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토리죽을 상차림에 메뉴로 올린 것은 의도적 재현이다. 도토리죽은 석계

연근조림, 부추전, 맑은 된장국을 차리고, 후식으로 화전과 녹두나화를 낸다.

30) 윤○○(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장)의 제보(2020년 8월 22일, 통화자료).

31) 조귀분(여, 석계종가 13대 종부)의 제보(2020년 11월 28일, 통화자료). “음식디미방 식당 관계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재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 가서 오찬을 차려야 되는데 종부님 메뉴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내가 식당에 항상 출근 하는거는 아니지만은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오늘 뭐 중요한 분들이 식사를 하시니까 설명을 해달라 하든지 그러면 설명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거죠 뭐. 어쨌든 음식디미방에 대해서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을 서로 합니다.”

종가에서 전해지던 음식도, 지역에서 먹던 음식도 아니었다. 따라서 장계향과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이 “신성화”의 과정 중에 있었으므로 언제든 그 출발과 기원의 자의성을 노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²⁾ 이에 종부가 직접 조리법을 개발해 2013년부터 도토리죽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수록된 음식도 아니고 설화로 전해질 뿐이지만 의도적으로 메뉴에 추가하여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재현에 진정성과 종가의 설화를 접목시킨 것이다. 따라서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상품화에는 재현 주체의 의도에 따라 메뉴가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식디미방』은 17세기 말의 기록유산이지만 수록된 음식을 오늘날 재현할 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늘날 재현을 하려면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정하게 상상하고, 추론적으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상과 추론적 연구에는 어떤 식으로든 재현 주체의 가치관과 이념이 적용된다. 또한 해석은 상당 부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자의적인 해석엔 재현 주체 나름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부여하여 진정성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체험객들이 의심하지 않고 재현된 음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비록 진짜인지를 의심한다고 해도 음식 연구자, 장계향의 종가와 종부가 재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가에 전승되지 않던 음식이라는 진실에 대해서는 체험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전승이 단절되었던 기록유산인 『음식디미방』과 수록 음식을 현대에 재현하는 과정과 이를 둘러싼 여러 주체의 의도적 선택이라는 문화 현상을 구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승 단체, 재현 주체, 운영 주체 등의 성격과 지향점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과 상품화의 모든 과정에는 ‘의도적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현 주체를 음식 연구자 허성미 교수, 음식디미방보존회, 석계종가 종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재현 사례를 통해 각 주체의 성격을 분류해보았다. 음식 연구자는 수록 음식을 현대에 재현한다고 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는 것보다 원전의 기록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이에 재현본 제작을 통해 조리법을 계량화하고, 조리법에 추가로 기록된 음식까지 재현했다. 보존회는 지역의 기록유산인 『음식디미방』을 재현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 식재료를 선택할 때 상품화의 편의성을 생각하며 재현하기도 했다. 종부는 보존회가 결성된 시점부터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장계향과 이시명의 종가 종부라는 이유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후 재현에 대한 의견을 종가와 연결하고자 했으며, 종부가 낸 의견은 상당 부분 수용되는 영향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음식 연구자는 학술지향적, 음식디미방보존회는 현실지향적, 석계종가 종부는 종가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했다.

32) 정수진, 「축제의 문화정치학」,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215쪽 인용.

수록 음식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메뉴의 변화와 주체의 의도를 분석했다. 이 변화 과정에 관광객을 고려한 전통과 현대의 절충이라는 의도적 논리가 적용되었다고 해석했으며, 영양축제관광재단의 운영 방식을 짚어 보았다. 종부는 상품화에도 장계향과 종가를 연결하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재현에는 여러 문화적 현상이 작용하고 있었다. 종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가중심주의, 과거의 음식을 현대에 상품화하기 위한 전통과 현대의 절충, 종가가 재현에 참여하는 진정성 만들기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문화현상에는 모두 참여 주체들의 의도적인 선택과 해석이 작용한다는 문화의 정치성이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고전총서10-음식디미방』,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 남권희·백두현·배영동 외, 『음식디미방와 조선시대 음식문화』,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7.
- 마빈 해리스, 서진영 옮김,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2018.
- 배영동·정연상 외, 『장계향 수산유거지 복원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2019.
- 백두현,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2006.
- 손정자, 「飮食知味方」, 『아시아여성연구』5,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966.
- 영양군, 『음식디미방』, 2007.
- 전경수, 『관광과 문화 : 관광인류학의 이론과 실제』, 일신사, 2004.
- 한복려·한복선·한복진, 『다시 보고 배우는 음식디미방』, 서울궁중음식연구원, 1999.
- 허성미 외 3명 『반가음식(음식디미방음식)계량화 및 메뉴얼화』, 2009. (미간행 내부자료).
- 황혜성, 『규곤시의방: 음식디미방』, 한국인서출판사, 1980.

2. 논문

- 강혜경, 「근현대 한국사회 중부(宗婦)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사엽, 「閨壺是議方과 田家八曲」, 『영서 고병간박사 송수기념논총』, 경북대학교, 1960.
- 배영동, 「『음식디미방』 저자 실명 ‘장계향(張桂香)’의 고증과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19, 실천민속학회, 2012.
- _____, 「17세기 장계향의 삶과 조리지식의 현재 문화자원화 과정」, 『비교민속학』 63, 비교민속학회, 2017.
- _____, 「중가음식의 혈연공동체성 변화와 전승 과제」, 『실천민속학연구』 36, 실천민속학회, 2020.
- 심지윤,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과 관광자원화」,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정수진, 「무형문화재의 관광자원화와 포클로리즘」,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 _____, 「축제의 문화정치학」, 『한국민속학』 52, 한국민속학회, 2010.
- _____, 「무형문화재의 향방 : 한일 양국의 제도 비교로부터」, 『동아연구』 31-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3.
- _____,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정치학-유네스코 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6, 실천민속학회, 2015.
- _____, 「근대문화유산의 근대와 탈근대」, 『비교민속학』 72, 비교민속학회, 2020.

3. 인터넷 홈페이지

- 영양군 홈페이지. <https://www.yyg.go.kr/?main=true>
-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yyg.go.kr/jghcenter>
- 영양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www.yftf.kr/board/index.php>

〈부록〉『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상차림의 구성과 변화

음식 구성은 소부상과 정부인상 메뉴를 합친 것
굵은 글씨는 변동되는 메뉴

연도	구분·변화	음식 구성
2010년	전식	단호박죽, 간장, 초고추장, 두릅장아찌
	본식	주요리: 잡채, 대구겹질누르미, 가제육, 동아누르미, 가지찜, 연계찜
		한상차림:물김치, 굴강회, 문어숙회, 실파강회, 무생채, 장아찌, 명란젓, 김치, 부추콩가루무침, 고등어구이, 두릅장아찌, 박전, 부추고추장떡, 삼색나물
	후식	석이편, 계피차
2011년	전식	감향진사주, 단호박죽, 물김치, 멸치볶음, 감장아찌, 간장, 고추장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대구겹질누르미, 수증계, 동아누르미, 가제육, 빈자법, 화전, 섭산삼, 연계찜
		한상차림:문어숙회, 실파강회, 명란젓, 김치, 고등어구이, 호박전, 부추고추장떡, 삼색나물, 도토리묵, 북어보푸라기 , 산나물국, 고추찜, 더덕무침
	후식	석이편, 오미자화채, 매실차
	변화	• 잡채: 버무리지 않고 나물을 고명처럼 배치 • 어만두: 송어가 없을 경우 광어로 대체 • 동아누르미 · 대구겹질누르미: 장식용 실파 추가
2012년	전식	단호박, 감향주, 물김치, 감장아찌, 명이나물장아찌, 멸치볶음, 간장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대구겹질누르미, 빈자법, 화전, 연근적, 수증계, 동아누르미, 가제육
		한상차림:두부부침, 북어보푸라기 , 삼색나물, 부추고추장떡, 호박전, 고추찜, 더덕무침 , 명란젓, 된장찌개, 산나물국, 문어숙회, 실파강회, 고등어구이
	후식	석이편, 오미자화채, 계피차 , 매실차
	변화	• 감향주: 일반 술처럼 나오다 떠먹는 형식으로 변경, 명칭도 감향진사주에서 감향주로 변경 • 연근적: 섭산삼 없어지고 연근적이 추가됨 • 가제육: 고기 아래 연근을 얹고 고기 위에 ‘마늘 담은 법’으로 만든 편마늘과 햇천초를 올림 • 한상차림: 두부부침 추가
2013년	전식	도토리죽, 단호박죽 , 감향주, 물김치, 명이나물, 멸치볶음, 간장, 개두릅장아찌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대구겹질누르미, 빈자법, 연근적, 화전, 수증계, 연계찜, 가제육, 동아누르미
		한상차림:고등어구이, 더덕무침 , 삼색나물, 호박전, 부추고추장떡, 김치, 고추찜, 부추콩가루무침 , 북어보푸라기 , 산나물국, 두부부침, 된장찌개
	후식	석이편, 오미자화채, 계피차

	변화	• 화전: 주요리에 나왔었으나 후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김 • 수증계: 알토란이 없을 경우 밥으로 대체 • 동아누르미 · 대구껍질누르미: 실과 장식을 부추로 변경 • 가제육: 편마늘 위에 올리던 햇천초 생략
2014년	전식	도토리죽, 단호박죽 , 감향주, 물김치, 명이나물, 멸치볶음, 간장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대구껍질누르미, 빈자법, 연근적, 수증계, 연계찜, 가제육, 동아누르미
		한상차림:고등어구이, 더덕무침, 삼색나물, 호박전, 부추고추장떡, 김치, 부추콩가루무침, 복어보푸라기 , 고추찜 , 산나물국, 두부부침, 된장찌개
	후식	석이편, 화전, 오미자화채, 계피차
	변화	• 화전: 주요리에서 후식으로 완전히 변경
2015년	전식	도토리죽, 감향주, 물김치, 명이나물, 멸치볶음, 간장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대구껍질누르미, 빈자법, 연근적, 수증계, 연계찜, 가제육, 동아누르미
		한상차림:고등어구이, 더덕무침, 삼색나물, 부추고추장떡 , 김치, 부추콩가루무침, 두부부침, 명란젓, 우영조림, 부추전, 산나물국, 된장찌개
	후식	석이편, 화전, 오미자화채
	변화	• 한상차림 반찬 변화 외에 없음
2016년	전식	도토리죽, 감향주, 물김치, 명이나물, 멸치볶음, 간장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대구껍질누르미, 빈자법, 연근적, 수증계, 연계찜, 가제육, 동아누르미
		한상차림:고등어구이, 더덕무침, 삼색나물, 부추전, 김치, 부추콩가루무침, 산나물국, 우영조림, 두부부침, 된장찌개, 명란젓
	후식	석이편, 화전 , 오미자화채, 계피차
	변화	• 화전: 소부상에서 후식에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음
2017년	전식	도토리죽, 감향주, 물김치, 명이나물, 멸치볶음, 간장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대구껍질누르미, 빈자법, 연근적, 수증계, 동아누르미, 가제육, 연계찜 , 가지누르미 , 송어전 , 섭산삼
		한상차림:고등어구이, 고등어조림 , 부추고추장떡 , 더덕무침, 삼색나물, 부추전, 김치, 부추콩가루무침, 산나물국, 우영조림, 두부부침, 된장찌개, 명란젓
	후식	석이편, 화전 , 오미자화채
	변화	• 연계찜 · 송어전: 정부인상의 수증계 대체 음식 • 가지누르미 · 섭산삼: 소부상의 동아누르미 대체 음식
2018년	전식	도토리죽, 감향주, 물김치, 명이나물, 멸치볶음, 간장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대구껍질누르미, 빈자법, 연근적, 수증계, 가제육, 섭산삼
		한상차림:파전, 도토리묵밥, 김치, 고추장아찌, 오징어젓갈, 시금치 , 우영조림 , 가지볶음
	후식	석이편, 화전 , 오미자화채
	변화	• 음식디미방체험관에서 먹던 상차림음식을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의 여중군자실에서 체험

		• 수증계: 식재료인 알토란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음 • 섭산삼: 정부인상의 동아누르미 대체 음식 • 한상차림: 정부인상 한상차림을 파전, 도토리묵밥, 밀반찬으로 구성된 식단으로 변경
2019년	전식	도토리죽, 감향주, 물김치, 명이나물, 멸치볶음, 간장
	본식	주요리: 잡채, 어만두 , 대구찜질누르미 , 어전법 , 석류탕 , 빈자법, 연근적, 수증계 , 가지누르미 , 연계찜 , 동아누르미 , 섭산삼, 가제육
		한상차림: 수육 , 새우젓 , 메추리알조림 , 새우볶음 , 김치, 오징어초 무침, 우영채조림,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산나물국, 낙지젓갈, 우영채조림, 빔밥 , 고추찜 , 시금치 ,
	후식	석이편, 화전 , 오미자화채
	변화	• 석류탕 · 송어전: 정부인상의 어만두, 대구찜질누르미 대체 음식 • 가지누르미: 동아누르미 대체 음식 • 연계찜: 정부인상의 수증계 대체 음식 • 한상차림: 파전, 도토리묵 식단에서 비빔밥으로 변경했지만 기존 한식 식단 횟수가 더 많음
2020년	전식	도토리죽, 감향주, 물김치, 명이나물, 멸치볶음, 간장
	본식	주요리: 석류탕 , 잡채, 빈자법, 연근적, 가지누르미, 동아누르미, 연계찜, 수증계, 가제육, 어전법 , 섭산삼
		한상차림:백김치, 김치, 오징어숙회, 실파강회, 우영채조림, 고추찜, 명란젓,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산나물국
	후식	석이편, 화전 , 오미자화채(녹도나화)
	변화	• 오미자화채: 정부인상에만 녹두착면이 추가됨 • 가지누르미: 동아누르미 대체 음식이었다가 구성에서 빠지지 않고 올림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의 선택적 재현」에 대한 토론문

라연재(한국학중앙연구원)

본 발표문은 수 세기 단절되었던 전통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기로 전승 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관광과 상품화 현상과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정치·사회적 맥락을 드러내는지 『음식디미방』을 중점에 두고 설명한다. 전통의 재현은 진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결속력으로 이어지며, 필연적으로 생기는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전승 주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특히 『음식디미방』은 요리책이므로 기록 문헌이 가진 특성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리책은 요리재료, 요리순서, 요리도구, 상차림 등의 요인에 따라 결과물인 음식의 모양새가 달라진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시대 요리책은 특히 문자권력층인 양반계층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양반 여성이 가정(家政)의 차원에서 요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성이 한글로 작성한 요리책은 더욱 가치 있는 문헌으로 여겨진다. 과거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요리책은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들에 따라 다시금 재현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고문헌을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주체와 고문헌을 소유·보관해온 주체, 고문헌을 (주로 관광과 상품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주체 사이에는 각 목적에 따른 견해 차이가 드러난다.

고문헌에 기록된 원형을 고증하고 복원시키는 재현 방식이 현재의 ‘전통 음식문화’ 지형도를 만들어내는 현실 속에서 발표자가 가진 문제의식에 심분 동감하며, 음식문화연구와 민속학 분야에서 후속연구가 계속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셨기에 이에 감사드리고 싶다. 현지조사가 어려운 실정에서도 각 주체의 이야기가 세밀히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 글이 가진 의의가 더욱 돋보인다고 본다. 앞으로의 조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 재현 주체 및 전승·보존 주체

『음식디미방』과 연관된 주체는 발표자가 주지하듯 종부와 종가, 음식디미방 보존회 회원, 연구자(학자), 관으로 대표되는 영양군청, 영양축제공관재단 등으로 나뉜다. 글을 읽으면서 관과의 연계를 통해 음식디미방보존회 모임이 발족한 이후로부터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부와 종가의 역할이 재현 과정에서 중요해지고 이후 재정적인 문제에서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까지 199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의 시기적인 상황을 나누어 이해할 수 있었다. 소견이지만 재현과 연관된 주체들에 대해 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을 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1) 현실지향적 주체와 재현

개인적으로 음식디미방보존회의 역할과 관련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조리법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문제에 가장 앞서온 각 회원의 지속적인 참여 동기가 궁금하다. 전통수호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옛것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전통을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며 본인이 오래 머물러 지역과 고향을 사랑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이 있기 마련이다. 오랫동안 『음식디미방』 재현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온 당시 석보면 생활개선회 회장이자 스스로 재령 이씨 문중 며느리인 윤○○가 지속해서 참여해온 동인은 무엇일까?³³⁾ 사실상 현재 전통 음식문화의 신(scene)을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동인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로 보인다.

발표자는 이에 해당하는 주체를 ‘현실지향적’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보존회가 적극적으로 재현에 앞서왔음에도 여러 주체와의 합의에서 절충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대응되는 관계망 속에서는 타당한 명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보존회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회원 간의 합의 도출 과정, 회원 간의 감정적 연계가 설명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영양군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회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임이 유지되기까지의 동인이 조금 더 본문 내에서 설명된다면 재현과 관련된 맥락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종가와 종부의 역할

발표자의 석사논문 77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조귀분 종부의 말이 등장한다.

“당연한거죠. 우리가 350년 전에 쓴 음식이 재현돼서 알려지고 그 음식 자체가 한국 음식 전통성이 있잖아. 한국음식으로 전통성이 있는 음식이니깐, 예를 들면 요즘 잡채 하면 당면이 주재료인데 당면은 우리 전통 잡채는 당면 안 들어가거든요? (중략) 근데 음식디미방에서는 책에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죠.”

양반이 형성해 온 문자 권력이 주가 되는 조선 시대 문화 복원에서 종가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음식문화가 종부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종가의 유교 사상과 종법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료가 풍부한 조선 시대에 대한 문화 복고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즉 한국 음식의 맥을 잇는 것이 순수하고 옳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원형을 찾고,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우리도 똑같이 먹음으로써, ‘우리’의 결속력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종부가 『음식디미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구전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메뉴에 넣은 ‘도토리죽’에서

33) 9쪽. 종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도 종가에 대한 소속감을 표출하지 않았을까? 초기에는 명목상 공무원 부인들이 참여하다가 이후 애향심을 가진 회원들로 변모하는데 이에 관한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현에 ‘전통수호’의 동기가 주된 목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조상의 미담을 내세우는 양상은 ‘종부의 미덕’, ‘종가의 존재 의의’ 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2.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질문 1에 덧붙여 각 주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 ‘정체성’을 언급할 수 있을 듯하다. 발표자는 3장 2) 『음식디미방』 수록 음식 표준화 과정과 재현 주체의 가치관에서 이를 가치관으로 보고 1) 학술지향적 2) 현실지향적 3) 종가지향적으로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술지향은 학문적 정합성과 논리를 기치로 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종가의 존속을 위시한 종가지향은 말 그대로 종가의 실존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전술하듯 음식디미방 보존회의 경우에는 ‘현실지향’ 이외의 더욱 다양한 동인을 살필 수 있을 듯하다.

3. 요리법의 재현과 정통성

허성미 교수가 주도하여 음식디미방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마련한 교본은 요리법의 현대화와 계량화가 포함된 매뉴얼(manual)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전통 개량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어떤 문화가 정통성을 획득했을 경우, 이는 순수하고 외부로부터 변하지 않는 원형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이는 특히 전반적으로 문헌을 문화적으로 고증하고 복원할 때의 문제로, 요리책의 저자가 실제 만든 음식과 요리책의 저자가 쓴 조리법을 동일시하면서 생겨난다. 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복원된 음식은 만들어진 음식이지 그 당시의 음식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전은 특히 학자와 학문의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이 점에서 『음식디미방』을 둘러싼 학계의 개입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교본 제작 과정 분석 연구가 가능하다면, 문헌 그 자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4. 상차림

마치 한식 파인다이닝(fine dining)처럼 서양식 코스 상차림(전식-본식-후식)으로 구성된 현재 음식체험에 대해서 발표자의 해석이 궁금하다. 물론 발표자가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 음식관광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체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한상차림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³⁴⁾ 대부분의 고급 한정식집도 ‘파인다이닝’적인 구도를 따르기 때문일까? 전통을 위시함에도, 어째서 각 주체는 서양식 상차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각 주체에게서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의도가 궁금한 대목이다.

다음은 논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을 첨

34) 본문에서 본식에 해당하는 주요리와 한상차림을 번갈아 내는 이유가 전통의 것을 먼저 맛보고 뒤이어 다소 현대적인 음식을 맛본다고 설명되는데, 물론 이유는 판이하지만, 대부분의 한식 파인다이닝에서도 주요리와 한상차림으로 코스가 마련된다.

부한 것이다.

* 전통주 복원

- 대부분의 조선시대 요리책을 포함하여 『음식디미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봉제사 접빈객’을 위시한 술 제조법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술은 상품화의 측면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활발히 복원되고 있는 전통 요리법이기도 하다. 글에서도 조귀분 종부가 복원한 감향주가 나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가에서 술 제조법이 전승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는데 혹시 전통주를 복원하는 다른 주체와의 연관 관계는 없었을까? 또 감향주 이외의 술 제조법 복원과 관련해 음식디미방 보존회의 활동은 따로 없었는가?

* 음식 윤리

- 『음식디미방』에 수록된 음식 중에서 개고기, 곰발바닥, 참새가 제외되는 이유(16쪽)에 대해서 음식 윤리를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3세션

국보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그 문화적 의의

이효정(안동대학교 민속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1. 머리말
2. 하회탈의 탈향토화와 하회탈 부재의 하회마을
3.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아우라 없는 탈의 대중화
4. 재현 하회탈의 진정성 차용과 하회탈놀이 연행형식의 정당화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 탈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은, 안동 하회마을의 표상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1964년 하회마을을 떠나 국보로 지정되면서 국립박물관(現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전량 이관되었고, 2017년 12월에는 53년 만에 안동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여러 지역에서 반환받지 못한 지역 문화유산을 환수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안동시에서도 문화계 전문가들과 하회마을 주민, 지역운동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회탈을 환수받으려 노력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하회마을보존회가 안동시청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각종 공문을 송달하는 등 지역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문화유산을 돌려받기 위해 문화행동¹⁾을 벌였다. 이처럼 하회탈하면 안동이 떠오르고, 안동하면 하회탈이 떠오르듯이 안동지역의 정체성은 하회탈과 전통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토록 하회탈이 지역성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안동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 일명 전통문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선조들의 생

1) 여기서 말하는 문화행동(cultural action)은 문화행동주의(cultural activism)와 동일시되는 용어로서 문화 영역에서 등장하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계획적 활동을 의미한다. 문화행동은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 정책 또는 문화비평가나 문화연구자의 평론과 연구 활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자발적 행위’이다. 좁게는 특정한 팬덤활동에서부터 넓게는 정치적 의제를 둘러싼 시위에 이르기까지 문화행동의 범위는 넓다. (문강형준, 「양날의 칼: 포퓰리즘, 민주주의, 문화행동」, 『문화과학』 71, 문화과학사, 2012, 106쪽.)

활방식과 생활양식이 담긴 문화자산은 오늘날 21세기까지도 비교적 온전하게 계승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 정체성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동의 ‘자기다움’은 지역 홍보문구에서 드러나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앞세운 “정신문화의 수도”로 표방되었다. 스마더스(Norman Smothers)가 “브랜드는 살아있는 인간처럼 브랜드의 개성 또는 브랜드네이밍과 연관된 인간적 특성의 집합”²⁾이라고 말했듯이, 안동시 홍보자원이자 상징(브랜드)인 하회탈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며 지역 브랜드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타 도시와 구분되는 그 고장만의 특색이 강해지므로 지역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진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자부심은 국보 하회탈의 안동지역 환수를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났고, 모조 하회탈의 제작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회탈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후 그 공백을 대신해 등장한 모조 하회탈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회마을에 하회탈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확보되지 못해 탈의 부재기간이 길어지면서, 하회마을 주민과 하회가면극연구회원들은 공백을 채워줄 새로운 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실측 자료를 토대로 한 복원적 재현이 실천방안으로 촉구되었고, 탈에 대한 지역민들의 욕망이 투영된 복원적 재현은 국보 하회탈의 진정성을 차용한 모조 하회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초기 하회탈가면극연구회의 탈춤에 사용된 모조 하회탈은 탈 전문 조각가가 없던 시절 몇몇 목공예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었기에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반복연습을 통해 조각 기술을 연마한 작가들의 작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판매되었다. 이처럼 모조 하회탈이라는 새로운 문화자원이 제작된 배경을 살펴본 다음, 국보 하회탈의 진정성을 차용한 자원화가 갖는 의의를 분석하려 한다.

모조 하회탈은 하회별신굿보존회 소속 조각가 한 사람과 보존회에서 탈퇴한 뒤 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두 조각가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모조 하회탈은 마을주민들로부터 서서히 잊혀진 마을민속을 재맥락화시키고, 역사와 전통을 다시금 잇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 이처럼 마을자산을 활용해 공공성을 띤 문화로 재창조시킨 창조산업이 안동 지역사회와 하회마을 간의 상호호혜성을 제공하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보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그 문화적 의의에 관해 고찰한 연구성과는 저조하다. 선행된 하회탈 관련 연구로는 하회별신굿의 의의와 가치에 관한 연구³⁾, 하

2) 권기백 외 2인, 「한국전통문화도시의 정체성 및 지역브랜드자산 비교연구 -안동, 공주, 전주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7(1),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9, 9쪽 재인용.

(Smothers, N., “Can Products and Brands Have Charisma?” , in *Brand Equity and Advertising: Advertising’s role in building strong brands*, eds. David A. Aaker and Alexander L. Biel.,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pp.97-112.)

3) 이두현, 「하회별신굿탈놀이」, 『한국문화인류학』 14, 한국문화인류학회, 1982; 윤천근, 「하회별신굿탈

회탈의 조형성과 미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⁴⁾, 하회탈의 제작시기에 관한 연구⁵⁾, 하회탈의 상품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⁶⁾와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하회탈 연구를 다각도에서 진행하기 위해 모조 하회탈의 제작환경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 진정성을 차용한 아우라(aura) 없는 모조탈이 하회탈놀이 연행에 미친 영향을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
- 놀이의 종교성과 민중성»,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美學』 8, 사계절, 1999; 한양명, 「하회별신굿의 축제적 성격»,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美學』 8, 사계절, 1999; 임재해, 「하회탈놀이의 제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민중적 창조력», 『안동학연구』 2,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3; 中村知代, 「전승집단과 연행상황에 따른 하회탈놀이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4; 박진태, 「탈놀이와 지역공동체 -하회마을의 공동체적 성격과 언어문화의 연극적 수용-」, 『국어교육』 116, 한국어교육학회, 2005; 조정현, 「안동지역 별신굿의 제의성과 축제성」,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손태도, 「하회 서낭신의 정체와 하회탈놀이의 공연예술사적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16, 실천민속학회, 2010; 배영동, 「전통적 마을민속의 공공문화 자원화 과정」,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유형동,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지역정체성 획득 과정과 콘텐츠로서의 가치」, 『배달말』 67, 배달말학회, 2020 등이 있다.
- 4) 임재해, 「하회탈의 도드라진 멋과 트집의 미학」,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美學』 8, 사계절, 1999; 고시정, 「한국 전통 탈의 감정표현 기법과 그의 적용: 하회탈에 나타난 분장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4; 권부경, 「하회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5; 임재해 외 6인, 『하회탈, 그 한국인의 얼굴』, 2005; 김완배·김응환, 「하회탈의 조형미와 그 제작과정」, 『아시아민족조형학보』 6(1),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06; 이정근, 「하회탈의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3),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0 등이 있다.
- 5) 이두현, 『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1979; 윤천근,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역사」, 『하회탈과 하회탈춤의 美學』 8, 사계절, 1999; 권두규, 「신분별 명칭으로 본 하회탈의 제작시기」, 『안동사학』 9·10, 안동사학회, 2005; 배영동, 「고려시대 하회탈이 제작된 시기와 배경」, 『고려시대의 안동』, 예문서원, 2006; 황성욱 외 2인, 「국보 하회탈의 제작연대와 수종에 관한 고찰」,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목재공학회, 2014 등이 있다.
- 6) 김훈, 「캐릭터사업을 위한 안동 하회탈의 시각화」, 『디자인학연구』 31, 1999; 김윤희, 「하회탈 제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의 감정 이미지 비교 연구」, 『감성과과학』 7(2), 한국감성과과학회, 2004; 서석민·신랑호, 「데스크 서비스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연구 -하회탈을 모티브로 한 문화상품 디자인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18, 한국가구학회, 2007; 고재성·김현기, 「전통문화를 활용한 디자인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하회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1; 김선영, 「전통 탈의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복식문화연구』 19(3), 복식문화학회, 2011 등이 있다.

2. 하회탈의 탈향토화와 하회탈 부재의 하회마을

1) 하회탈 연구와 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이관

하회마을에서는 1928년 이전까지만 해도 동제와는 별개로 3년 내지는 5년, 10년에 한 번씩 마을에서 정례적으로 별신굿을 행했다. 행여 마을에 우환이 있거나 돌림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에 의해 임시제로 거행했다. 여기서 제의에 사용된 탈과 판 형태로 연행된 탈놀이에 주목해야 한다. 백현순은 “탈과 탈춤은 삶의 문제를 주술로 해결하려 했던 그 시대의 문화”⁷⁾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처럼 탈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신앙적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탈을 사용한 제의는 삶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했다. 즉, 마을제의를 먹고사는 문제와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회문화적 행위였고,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 간절히 염원했다. 탈과 춤을 통해 주술적 힘을 빌려 신앙적 태도와 숭고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보편적인 문화이자 수단이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틀을 거부하는 한국인의 자유분방한 미의식을 담고 있다. 최준식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인은 질서가 잡힌 인위적인 세계를 좋아하지 않고, 굿 현장에서나 보일 법한 난장판 같은 질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⁸⁾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규율을 통해 국민들의 일탈행위를 검열하곤 하지만, 인간 본성에 속하는 신명을 풀어내는 데 노래와 춤은 빠지지 않는다. 의도를 담지한 규율과 달리, 흥과 신명은 자연 발생하는 것이므로 외부 억압에 상관없이 한국인의 놀이문화는 과감한 언행들로 점철되어 있다. 타인이 규정한 가치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여주려는 기질은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도 발현된다. 탈춤 연행자들은 본래의 자신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극 중 인물로 분장하여 망아경의 상태⁹⁾로 축제에 참여한다. 이 축제는 사회규범을 뒤집는 일종의 난장¹⁰⁾이기에 기층민들의 해방감과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계급 간의 갈등을 의례와 놀이를 통해 조화롭게 풀어가는 흐름은 조선 중기를 기점으로 전환되었다. 양난으로 피폐해진 경제가 복구되면서 양반 수가 크게

7) 백현순, 「제의적 마을 탈춤의 분석 -제의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4), 2010, 177쪽.

8) 최준식,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소나무, 2002, 44쪽.

9) 최준식은 ‘망아경’이 숨 막히는 질서가 거부되고 태초의 혼돈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질서가 잡혀지기 이전인 원초적인 카오스 상태로 회귀했을 때, 인간은 주객이 미분리되는 혹은 통합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즉, 인간이나 자연이 본연의 모습대로 노출되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식, 앞의 책, 35~36쪽)

10) 이를 두고 흔히 ‘의례화된 반란(ritualized rebellion)’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난장형 축제를 넘어 제의적 반란을 감행하는 도발적인 축제를 전복형 축제(기존 체제와 상하관계가 전복)라고 한다.

늘었고, 19세기 초에는 봉건적 신분 구조가 무너져 역삼각형 형태가 나타났다.¹¹⁾ 예속된 신분에서 벗어난 기층민들은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났다. 종교적 신념 혹은 마을제의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들에 의해 하회탈놀이는 근근이 유지되었지만, 피지배층이 주도한 행사였던 만큼 연행자들을 신분이 천한 이들로 공식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류씨는 양반, 그 외 타성은 천민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작동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일제의 집회 금지와 같은 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회탈놀이 연행에 있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¹²⁾ 1928년에 연행이 단절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마을 경제는 무너졌다. 이처럼 사회구조의 격변기를 지나 전쟁이라는 일대의 사건을 겪은 하회마을 주민들에게 별신굿과 하회탈은 관심 밖의 것이었다.

하회마을 내에서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 하회탈이 국내 학계에 알려지고 그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아서 맥타가트(Arther Joseph Mactaggart)의 방문 이후부터였다. 정확하게는 그가 하회탈을 미 잡지(FOURTUNE) 표지에 소개한 이후부터이다.¹³⁾ 안동민속박물관에서 펴낸 책에 따르면, 맥타가트는 대구미공보원(現대구미문화원)에서 근무할 당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채록한 류한상을 만났다. 류한상은 기회가 될 때마다 문화계 인사들과 외국 대사들을 찾아가 하회탈에 대해 알렸다. 송석하가 조사차 하회마을에 왔을 때 숙식을 제공한 마을이장 류장하의 아들로, 송석하의 방문 이후 하회탈의 가치를 깨닫¹⁴⁾게 되었다. 맥타카트는 그에게서 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하회탈을 직접 보기 위해 하회마을을 찾았다. 안내를 맡았던 류한상은 탈을 보여준 뒤 자신이 채록한 하회탈춤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맥타가트가 찍어간 탈 사진이 잡지에 실리고, 그가 발표한 하회탈 관련 보고서가 학회지에 게재되면서 유명해졌다.

전 세계가 주목한 하회탈은 국내 학계의 관심까지도 고조시켰다. 문화공보부와 국립박물관의 김재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하회탈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 그 시기에 조사를 위해 문화재위원으로 하회마을을 방문했던 이두현은 류한상과 함께 소실된 일부 탈을 복원하고자 했다. 이두현은 하회탈의 관리가 소홀하다면서 연구와 문화재 지정을 목적으로 탈을 서울로 가져가려 했고¹⁵⁾ 류한상은 하회탈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여 마을주민들과 논의를 거

11) 최준식, 앞의 책, 49~51쪽.

12) 배영동, 「근대 신분제 유습 해체와 마을공동체 민속의 단절 또는 변화에 대한 시론 -경북지역 반촌의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 『실천민속학연구』 32, 실천민속학회, 2018, 137쪽.

13) 임재해, 『민속마을 하회여행』, 밀알, 1994, 23~24쪽.

14) 이상현, 「안동 문화의 변화와 민속의 재창조」,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539쪽; 中村知代, 「전승집단과 연행상황에 따른 하회탈놀이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4, 22~23쪽; 조정현,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351쪽.

15) 배영동, 「전통적 마을민속의 공공문화 자원화 과정 -안동 하회탈놀이와 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108쪽.

쳐 확인증을 받고 탈을 빌려주었다. 그렇게 1964년 2월, 하회탈은 이두현의 요청으로 류한상과 류석호(당시 하회마을 동장)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¹⁶⁾ 한편, 하회탈은 그 해 3월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면서 위탁 형태로 박물관으로 완전 이관되었고, 국보 하회탈은 하회마을을 떠나 53년 동안 전승지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안동중학교에서 가장 행렬을 하다이까는...그때 마침 학생들 중에 하회 아들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들아, 하회탈춤이 거 어디 있다는데...” 물어보이까는 “하회 있던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됐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빌려갔다고 그래, 그 사이에. (중략) 국보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랐지 첨에는. 그러다 보이게네 나중에 거 올라갔는데... 탈을 빌려가서 보고 조사하고는 갖다 준다고 그랬어. 하회마을로 돌려준다 그랬는데 안 돌려주고...¹⁷⁾

위 이상호의 구술을 통해 하회탈 서울 이관과 이두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두현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회탈을 대여했지만, 만일 조치가 필요하다면 문화재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의 요청으로 하회탈은 서울로 옮겨졌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국보 지정으로 탈향토화되었다. 차용중에 적힌 하회마을 주민들과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화재법에 따라 국보를 보호·관리한다는 이유로 탈이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자 일부 주민들은 상실감을 느꼈다.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이상호는 인터뷰에서 그들이 느낀 아쉬움을 한껏 강조해 말했다. 하회탈을 서울로 직접 운반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류한상의 인터뷰¹⁸⁾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하회탈을 이관하는 게 아니라 대여해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랬기에 마을 대표로 동장과 함께 박물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에 인계해준 다음 유물 보관증을 받았고, 소유권은 하회마을에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겼다. 이 주장은 하회탈 운반에 동행한 동장(류석호)의 장남 류왕근의 인터뷰¹⁹⁾에서도 확인된다.

16) 김태홍, “국보 제121호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환수 행사”, 경상북도 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gbmuseums.org/m/sub2/sub1_1.asp?page=1&id=10

17) 이상호(남, 77세, 하회탈춤기능보유자)의 제보 (2020년 6월 16일, 안동댐 달그림자)

18) “처음에는 그냥 잠시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지. 동장을 하던 류석호씨 하고 같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지고 갔어. 그때 박물관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이두현 박사도 같이 왔어. 하회에서는 우리 두 사람이 대표로 갔지. 탈을 국립중앙박물관(이관할 당시에는 국립박물관)으로 가지고 가서 인계하고 보관증을 받아 왔어. 그런데 그 보관증을 하회에서 보관해오다가 잃어버렸어. 다행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옛날 기록이 남아 있고, 처음부터 탈을 빌려 간다고 한 것이 맞고 소유권이 하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문화인물 1-하남 류한상』, 영남사, 2018, 72쪽.)

19) “당시 하회동사무소 동장이시던 아버지하고 하남 선생하고 국보지정을 앞두고 마을에서 안동역까지 가지고 가서 탈이 든 께짝을 중앙선 열차에 싣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탈이 든 께짝 위에 앉아서 갔다고 아버지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 두 분이서 그걸 다른 사

2) 하회탈의 국보 지정과 이후 마을 귀환의 단절

이두현은 마을 차원에서 하회탈을 관리하기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회탈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완전 이관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회탈의 서울 이관에 관해 마을주민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은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내부자 시선에서 재해석된 구술이므로 이관을 요청한 당사자가 밝힌 당시 상황을 덧붙이려 한다. 단, 아쉽게도 그의 저서나 논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하여 이두현과 직접 대화를 나눈 배영동의 제보²⁰⁾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두현은 하회마을에서 하회탈을 직접 본 뒤 두 가지 생각을 했다. 하나는 ‘이 탈이 초기 제작된 하회탈의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하회탈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을까?’ 라는 궁금증이었다. 그 답을 찾고자 이두현은 하회탈을 빌려와 국립중앙박물관에 탄소연대측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는 ‘하회탈의 연대 측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탄소연대측정법은 오차 범위가 ± 500 년이므로 수천 년 전에 제작된 유물연대를 측정할 때 필요한 기술이다. 하회탈의 경우, 여말선초를 기준으로 제작시기를 추정하더라도 1392년에 해당함으로 이 측정법을 이용하는 것은 무용했다.

한편 하회탈을 분석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의뢰한 유물이 매우 귀중하기에 박물관에서 보관하며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추후에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하회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회탈이 박물관으로 이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보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그러다 미문화원을 통해 미국무성이 입장을 표명²¹⁾하자 하회탈은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위원단 외에는 지정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유명세로 인해 하회탈은 하회마을을 떠나

람에게 안 맡기고, 한 번도 손에서 안 놓다시피 하면서 문화재 관리국으로 들고 가서 인수인계를 받는 담당자한테 넘기고 연구를 위해 임대해준다는 보관증을 받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 (안동민속박물관, 앞의 책, 72~73쪽.)

- 20) 이두현 교수는 1991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現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로 근무하며 『한국향촌민속지』를 6권에 걸쳐 발간했다. 그 중 제1권 경상북도 편에 안동이 실려 있었는데, 가일마을과 임하면 신덕2리의 옹기점마을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그 책을 만들기 위해 이두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안동을 방문했을 당시에 배영동 교수는 이두현 교수를 비롯하여 책 발간 사업에 참여한 몇몇의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식사자리에서 이두현 교수가 하회탈에 대하여 들려준 이야기이다. 배영동 교수는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안동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연구와 관리> 강의 중 과제 피드백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다.)
- 21) 아서 맥타카트가 미국학회지에 발표를 하면서 하회탈을 국보로 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국무성에서도 미문화원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우리 정부에 이야기했다고 한다. (안동민속박물관, 앞의 책, 74쪽.)

서울로 가게 되었고, 하회탈과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한 급진적인 학술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 가치를 알아본 학자들에 의해 하회탈 관리처는 하회마을보다 국가기관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학술 연구와 문화재 지정, 보존처리 등을 기대하며 탈을 빌려준 마을주민들이었지만 하회마을로 탈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국보 제121호가 된 하회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부분전시나 해외 순회전시 등에 간간히 모습만 드러낼 뿐 일반적인 경우엔 박물관 지하 수장고의 껍데기에 담겨 보관되었다. 문화재법에 규정된 관리상 절차와 규정이 엄격했기 때문에 하회마을 주민들조차 쉽게 하회탈을 꺼내볼 수가 없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의 회원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던 이상호는 제 소유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에 분통을 터뜨렸고, 거세게 항의해 겨우 탈을 보았다고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지고 가서 닦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민속자료로 봐 돌건가’, ‘국보로 지정할 건가’ 이거거든. 고마 급한기라...우선 국보로 지정을 시켜 분겨야. 국보로 지정을 시켰을게네 국보를 하회마을에 돌려보낼 수는 없단 말이야. 보관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거 박물관에서 참 지하창고에 넣어 놔놓고 안 내놓는 거야! 그이 우리가 박물관에 가 있는 탈을 내가 3번 봤어, 국립박물관에 올라 가가지고. 우리 하회탈춤보존회에서 왔다카면 보여줘! 첨에는 안 된다고... “하회탈춤 주인이 보자카는데 거 안 된다카는 게 어딴노” 이래 말하니까 나중에 끄집어내더라고...꺼내가 보여줘!

1960년대 중, 후반부터 하회탈을 마을로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국보의 보존과 관리를 둘러싼 문제로 오랫동안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보관시설부터 갖춰라’라는 통보가 되돌아왔다.²²⁾ 1970년대에 정비록(국보 제132호)과 서애 선생 유물(보물 제460호)을 보존하기 위해 하회마을 영모각을 준공했는데, 이때 하회탈을 관리할 공간이 확보되었다며 탈 환수를 요구하는 주장이 재차 있었다. 그러나 국보는 유물의 보존, 관리 규정이 철저하기 때문에 소장한 유물의 보존·관리·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갖춰져 있는 기관(시설)일 경우에만 이관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닌 마을 내부 공간에 국보 하회탈을 이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는 곧, 하회탈이 전승된 공간이 이제는 보관조차 어려운 부적절한 공간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뜻했다. 제의와 놀이의 맥락에서 연행된 하회탈이 탈향토화하면서 살아있는 실체로서 탈의 존재감은 퇴색되었고, 민과俗이 어우러진 마을민속의 전승현장에서 멀어져 국가보호물에 머무르게 되었다.

22) 김진호, “반백년 만에 하회탈 귀향, 안동시민들 ‘얼~쭈’”, 중앙일보, 2017,

<https://news.joins.com/article/22238521>

3.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아우라 없는 탈의 대중화

재현 대상이 부재한 회화와 달리 하회탈은 그 실체가 명확하다. 회화는 그림을 그린 화가의 시선과 그림을 관람하는 감상자의 시선이 상이하기 때문에 불확정적 해석²³⁾의 틀이 유효하다. 그러나 탈은 표상으로서 해석을 지배하고 구속하는 명확한 형태가 있다. 따라서 개별적 사유를 통해서 실체를 변형하는 것은 재현 차원에서 볼 때 순수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진품과 흡사하게 표현하는 것을 푸코는 유사, 상사로 개념화했다.²⁴⁾ 유사(類似, resemblance)는 한 부류에 넣을 만큼 서로 비슷함을 뜻하고, 상사(相似, similarity)는 모양이 서로 비슷함을 뜻한다.²⁵⁾ 박정자는 모두 비슷하다는 뜻을 갖지만, 유사(類似)는 재현에 봉사하고 상사(相似)는 반복에 봉사한다고 주장했다.²⁶⁾ 즉 그는 푸코의 주장을 참고해 유사(類似)는 주인을 갖고 있는 반면, 상사(相似)는 주인이 없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때 상사는 시물라크르와 동의어이다. 시물라크르는 일종의 사본의 사본이고 무한히 격화된 도상이며 주인이 없는 것으로부터 유사성을 갖는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²⁷⁾ 모든 복제가 나오는 최초의 것을 주인이라 명명한 푸코의 관점에서는 국보 하회탈이 주인에 해당하고 모조 하회탈은 비슷한 상태로 만든 유사에 해당한다.

이때, 마그리트가 주장한 유사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마그리트가 언급한 유사(類似)는 단순히 수동적인 반영에 머무르지 않고 주어진 것을 변형하기 위해 주관적 관점이 첨가된다. 그에게 유사(類似)는 세계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여 재형상화하는 마음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²⁸⁾이다. 원본은 있되 사유를 반영하는 마그리트의 유사(類似)와 비교했을 때, 모조 하회탈은 조각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작될지라도 원본에 충실한 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벽히 유사(類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만약, 유사(類似)를 순수한 모방으로 해석하는 이론가가 있다면 모조 하회탈도 유사(類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원본과 아무리 비슷해도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으므로 순수한 모방이라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다. 다만, 최초의 것을 참고해 유사(類似)품을 만들더라도 주인과 유사(類似) 간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원본과 대조했을 때 충실성을 기준으로 삼아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가 순수하다는 뜻에서 이 같이 표현했다.

23) 푸코는 재현(표상)을 지배하고 구속하는 요소들의 부재나 그 요소들 간의 순수한 놀이를 통해 재현을 비틀거나 재현을 이중화(재현의 재현)함으로써 단선적인 재현적 사유를 비판한다. 그는 회화에서 주체와 객체, 감상자와 모델의 무한한 교환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재현을 포기함으로써 재현된 내용들 간의 순수한 놀이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윤성우, 「예술과 해석: 하이데거-고흐, 푸코-마그리트, 들뢰즈-베이컨」, 『철학연구』 65, 철학연구회, 2004, 11~12쪽 재인용; 미셸 푸코, 『말과 사물』, 민음사, 1986, 27쪽.)

24) 윤성우, 앞의 논문, 155쪽 재인용; Alan Sheridan, Discours, sexualité et pouvoir: Initiation à Michel Foucault, PIERRE MARDAGA, 1982, p.111.

25) 박정자, 『마그리트와 시물라크르』, 기파랑, 2011, 75쪽.

26) 박정자, 앞의 책, 81쪽.

27) 박정자, 앞의 책, 82쪽.

28) 박정자, 앞의 책, 79쪽.

다시 말해, 위계에 상관없이 원본의 진정성을 따라감으로써 순수 모방이란 노력 속에서 모조 하회탈이 제작되었다. 따라서 복사, 복제라는 가벼운 단어와는 구분되는 ‘복원’ 차원에서 하회탈을 분석해야 한다.

모조 하회탈의 문화적 논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은 하회탈 조각가들의 제작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회탈 제작시기는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대를 기점으로 탈을 깎고 다듬는 기술이 계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탈을 깎는 조각가들은 원작자로부터 기술을 전승받은 장인들이 아니다. 마을제의에 사용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단절된 이후 하회가면극연구회가 결성됨에 따라 공백을 채울 새로운 하회탈을 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윽고 하회마을에 하회탈이 부재함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의 내적 욕망이 커졌고, 하회탈을 탈놀이에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조 하회탈이 만들어졌다. 안동에서 모조탈을 깎으며 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은 총 세 명이다. 이들은 안동에서 최소 10년 이상 모조 하회탈을 제작해왔으며 국보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에 깊이 관여하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력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통념적으로 장인은 수공업 제품의 예술적 기교를 체득한 사람을 이르며 혈연 내 전승 혹은 사승관계에 따른 대물림을 통해 예술을 아랫대로 전승하는 예술인²⁹⁾으로 통한다. 하지만 하회탈은 마을제의와 놀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만 존재할 뿐, 물질을 다듬는 기술과 기술을 계승한 장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회탈을 제작하는 조각가들 중에 일부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거나 사회적 인정을 토대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 계승에 중점을 두었던 장인의 기준이 격변한 한국사회에 영향을 받아 이전과는 다르게 설정되었음을 방증한다. 전승 계보가 아닌 독자적인 솜씨와 기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결과, 세 조각가들의 탈은 인간문화재의 인정을 받아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의 탈춤 공연에 사용되고 있다. 여전히 공인된 기술이 없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한정되어 형태, 색상, 기능 등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제작을 위해 하회탈 원본을 담은 사진 또는 실측 자료를 동원하여 정성껏 탈을 만들고 있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김완배는 1975년에 친인척이 있는 안동으로 거주지를 옮겨왔다. 당시만 해도 안동시에 목공예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다. 김완배가 생활 공예품을 만들뿐만 아니라 탈도 깎아본 적 있다는 소문이 하회가면극연구원들에게 전해졌고, 김수진 회장과 소속 회원들이 공방을 방문했다. 그들은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재연하는데, 춤(연희)을 추는 사람은 있지만 직접 쓰고 연습할 가면(탈)이 없어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회가면극연구회 내에는 탈을 깎는 사람이 없다. 연구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탈을 만들 수 있냐’고 물으면서 입회하여 하회탈을 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완배는 목

29) 유영대, 「한국문화와 장인의 미학」, 『한국학연구』 1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406쪽.

공예 학원을 다니면서 탈을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을 모두 습득했고 도구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탈에 대한 지식은 전무해도 큰 걱정 없이 회원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초기에는 제대로 된 실측 자료가 없어 안동의 어느 한 사진관에서 구한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조각했다. 사진 속 탈의 형상과 생김새를 어림짐작해 조각을 했기에 맨땅에 헤딩을 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김동표는 서울에서 목공예 학원을 수료하고 외국에서 목수 보조 일을 하며 모은 자금으로 작은 개인 공방을 차렸다. 공방에서 2년간 부족한 공예 기술을 연마하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우표에 인쇄된 6양반탈을 그대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³⁰⁾ 그는 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탈을 깎아본 경험이 있어 호기롭게 제작 의뢰를 승낙했다. 하회 인근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하회탈은 익숙했다. 그러나 탈의 생김새, 재질, 색상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었고 볼 기회조차 없었다. 우표 속 탈의 모습 그대로 만들고 싶었지만 실물에 가깝게 제작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공예 실력이 부족함을 깨달았고, 하회탈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탈 조각을 연습하려면 나무 자재를 구입해야 했는데, 그의 수중에는 푼돈조차 없었기에 이전에 의뢰받은 탈을 연습하다 쌓인 물건들을 판매해야 했다. 명동과 신세계 백화점의 공예 코너를 찾아가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며 납품을 의뢰했다. 진품과는 거리가 먼 시중 탈보다 2~3배가량 높게 가격을 매기자 모두 판매 부진을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삼시간에 전부 팔렸고, 높은 가격에도 작품이 제법 잘 팔리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다. 섬세하게 국보 하회탈을 재현했다고 해도 여전히 실력이 부족했던 그는 안동으로 내려와 탈 제작에 몰두했다.

이들은 실측을 하기 전부터 스스로 갖고 닦은 목공예 기술을 가지고 사진 속 국보 하회탈에 최대한 가깝게 탈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품 하회탈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대중과 감각에 의존해 만들 수밖에 없었고, 만든 탈이 가진 문제를 파악할 수 없어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 상황적인 한계가 있고, 수익도 거의 없어 두 사람처럼 복원에 중점을 두고 하회탈을 깎는 조각가는 없었다. 당시에도 하회탈을 모방하여 대량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었지만, 세밀한 조각과 치밀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찍어냈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고된 작업을 반복하는 노력 끝에 자신만의 재현기술을 갖게 된 두 사람은 각각 1981년(김완배/최초 실측), 1984년(김동표)에 박물관 승인을 받아 국보 하회탈의 길이, 높이, 폭 등을 실측했다.

김완배와 김동표가 1970년대부터 탈을 깎기 시작해 하회탈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진 시기에 류호철이 후기 조각가로 등장했다. 그는 학원을 다니며 체계적으로 기술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탈을 깎으며 꾸준히 기량을 연마했고 앞선 두 사람처럼 복원적 재현을 목표로 탈 제작에 힘썼다. 20살이 넘는 나이 차에도, 탈 복원에

30)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재학생 ‘김유진’ (당시 학부 4학년)이 2013년 <현장중심 민속학실습> 과제로 제출한 「안동 하회탈의 재현과 상품화 -생애사로 본 현대사회의 장인-」 일부(4-5쪽)를 참고했다.

대한 그의 열망은 초기 조각가 못지않았다. 류호철은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다가 서양화로 전과했는데, 그는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훈련하면서 독학했다. 풍산 류씨 문중 후손으로, 하회마을에서 나고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솜하게 (모조) 하회탈, 하회탈춤을 봐왔다. 진품을 보진 못했어도 마을 곳곳에 걸려있는 하회탈은 그에게 친근한 소재였다. 정서적으로 친숙하다보니 평소에도 탈, 탈춤을 주제로 삼아 그림을 많이 그렸다. 탈은 곧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미대에서 배운 조소와 회화를 접목해 하회탈 제작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고, 그 계기로 탈 조각가 되었다.

류호철은 김완배, 김동표와는 달리 제작 초기부터 국보 하회탈의 실측 자료를 가지고 진품에 가깝게 탈을 만들었다. 원로 작가들이 활동했을 때에는 실측이 불가해 눈, 감각 등 신체를 이용한 실측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실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계자에 한해 국보 하회탈의 실측이 가능해졌다. 그 덕분에 류호철이 활동했던 2010년대에는 자유롭게 실측 자료를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다 2017년에 하회탈의 안동지역 환수가 진행되었고, 안동민속박물관에서 하회탈 조각가로서 탈 실측에 직접 참여했다. 당시에 3D프린팅이 예술계에 도입되어 상용화되었는데, 류호철은 대학 선배로부터 3D프린팅 전문 기술자를 소개받아 사비를 투자해 하회탈 실측 자료를 프린팅했다.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은 신체를 이용한 실측에서 시작해 류호철에 이르러서는 기술 진보로 복제기술을 활용한 실측까지 가능해졌다. 차별화된 제작 방식 덕분에 국보 하회탈에 가까운 모조 하회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안동에서 하회탈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 사람 모두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는 류호철만 회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탈춤을 추는 동시에 탈놀이보존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가면을 제작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서른 명의 회원들 중 절반 정도가 류호철이 만든 가면(탈)을 쓰고 탈놀이를 연행하고 있다. 세 조각가들이 만든 탈은 모두 하회탈 인상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탈놀이에 사용되고 있지만, 회원들이 취향에 따라 탈을 골라 쓰기 때문에 선호하는 조각가도 저마다 다르다. 탈에는 작가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데, 색감의 차이나 마무리한 표정 등이 그 예이다. 안동지역 조각가들 외에도 경기, 서울, 경남 등 하회탈을 만들 수 있는 이들은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그들은 대개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탈을 제작하기에 국보탈과 비교하면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회탈의 표정을 원본과 같이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시도할 수는 있어도 아무나 만들지는 못 한다. 하회탈춤에 쓰이는 탈은 인간문화재들의 심사를 통해 선택되며 보존회에서 사용하는 탈은 김완배, 김동표, 류호철 이 세 명의 것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 조각가들은 제작기법의 차이는 물론이고, 저마다 판매 방식도 다르다. 김완배는 다양한 공예품과 함께 모조 하회탈을 자신의 공방에서 판매하고 있다. 목공예 명장으로 인정받으면서 전통적인 방식대로 하회탈을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외에 선물용, 장식용으로 호황을 누린 모조 하회탈은 수작업을 하는 탓에 가격이 3만원대 이상으로 높은 터라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대신 여러 공공기관에 연간 몇 차례씩 대량으로 하회탈을 공급하고 있다. 류호철은 대체로 주문을 받아 제작한다. 김완배와 달리 전국적인 판매는 적은 편인데,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어 따로 판매루트를 뚫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게다가 탈춤 공연을 하면서 보존회 회원들의 탈도 제작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어렵다. 김동표는 하회마을 입구에 하회세계탈박물관을 건립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탈을 비롯한 각종 목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로 자신이 개발한 하회탈 목걸이를 납품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여전히 탈 목걸이는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 모조탈을 통해 안동의 하회탈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진품인 국보 하회탈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제작된 모조 하회탈은 하회마을에 부재한 하회탈의 공백과 마을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우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조각가들마다 하회탈과 인연을 맺게 된 배경과 하회탈을 조각하게 된 동기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복원에 중점을 둔 국보 하회탈의 재현은 마을 내 하회탈의 부재로부터 비롯되었다. 마을자산이자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연행에 사용된 하회탈은 국보 지정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관계자 외에게는 비공개처리되었다. 실물조차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안동으로 탈을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점차 주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흐릿해져 하회탈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하회마을의 상징물처럼 여겨졌다. 실재하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재로 존재감이 굳어진 것이다. 이에 여러 조각가들이 하회탈의 제작 연대, 조각기법을 조사·분석하여 진품에 가깝게 복원을 하고자 부단히 애썼다. 이러한 노력 끝에 공정을 거친 복원적 재현탈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외형이 제각각인 공장제 탈도 대거 공급되었다. 어느 시기부터는 장인들도 선물용·장식용 모조 하회탈을 제작,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수작업이라도 평소 만들던 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값이 저렴하다 보니 판매가 확대되어 탈이 대중화되었다.

모조 하회탈은 표면상에 드러난 외적인 것들을 흡사하게 재현할 수 있어도 국보 하회탈만이 가진 ‘아우라(aura)’는 재현 불가능하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명명한 아우라 개념은 산업디자인의 전제조건인 기술복제가 아우라 파괴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³¹⁾ 국내에서 번역한 벤야민의 저서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³²⁾에는 “아우라는 예술작품의 유일무이한 존재, 그 진품성과 연관되면서 그러한 일회성과 진품성에 상응하는 전승의 형식에도 결부된다. 이 아우라의 마법적인 요인을 예술의 원초적 기능인 제의적 기능으로 소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아우라는 흔히 대상에게서 풍겨지는 분위기로 해석되지만,

31) 문금희, 「기술복제시대의 산업디자인과 아우라」, 『기초조형학연구』 9(1), 한국기초조형학회, 2008, 344쪽.

32) 발터 벤야민(최성만 옮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도서출판 길, 2007, 21쪽.

여기서는 ‘한 예술작품의 고유한 특성 혹은 미적 아름다움’, ‘종교적 후광, 무리(halo)등 사물이나 존재를 감싸는 정신적인 분위기’³³⁾로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의적·신비주의적 요소는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숭배물이자 유희 대상으로 살아 숨 쉬던 국보 하회탈에서 발견된다. 마을주민들이 초월적 대상과 교감하며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제의를 도구로 사용한 하회탈은 유일성을 가진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아우라를 풍긴다.

반면, 유일무이한 국보 하회탈을 대신하여 제작된 모조 하회탈은 원본성을 깨뜨린 결과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제의의 도구로 사용된 진품 하회탈의 희소성과 신비감을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기술과 생산력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대량복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고, 문화적 산물로서 원본성과 진정성을 갖춘 문화유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으로, 빠르게 재생산되었다. 대량생산에 적합하도록 원본을 규격화한 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단시간에 많은 유사품을 제작, 보급한다. 모조 하회탈 같은 경우에도 3D프린팅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계를 통해 공장제 하회탈이 엄청나게 제작되고, 동일한 실측 자료와 자재를 가지고 비교적 약한 노동 강도로 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복제기술에 의한 아우라의 몰락은 앞으로도 꾸준히 가속화될 전망이다. 희소성 있는 것이라도 대량생산되면서 다수가 복제를 통해 그것을 소유하며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제의와 원본성에 의한 국보 하회탈의 아우라는 모조 하회탈의 대중화로 퇴조되었다. 반면, 복제기술로 재현된 모조 하회탈은 신비감 대신 대중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익숙함을 느끼도록 해주었다.

4. 재현 하회탈의 진정성 차용과 하회탈놀이 연행형식의 정당화

유물의 보존과 복원을 둘러싼 비판적 인식은 18세기 발흥한 낭만주의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아름다운 쇠퇴에 대한 감수성이 고조되는 동시에 유물의 진정성과 사실적 풍미에 대한 취향이 확산되었다.³⁴⁾ 훼손된 진품이 발산하는 아우라는 복원된 사물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관점과 맞닿아있다. 일각에서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유물을 최선의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보존하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각성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살려두는 것과 같다’면서 비판³⁵⁾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유물에 대한 논쟁은 19세기까지 이어졌고, 마을주민 혹은 지역민, 나아가 국민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 유산들을 전통의 연속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렸다.³⁶⁾ 20세기에 와 그 인식이 국가적·국제적 차원

33) 권홍중, 「20세기 매체영상에 나타난 아우라의 일고찰: 사진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29쪽.

34) 정수진, 「송례문과 원형 담론」, 『비교민속학』 69, 비교민속학회, 2019, 16쪽.

35) 정수진, 앞의 논문, 16쪽 재인용; 데이비드 로웬달(김종원·한명숙 옮김), 『과거는 낯선 나라다』, 개마고원, 2006, 413쪽.

36) 정수진, 앞의 논문, 17쪽.

에서 각종 법률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 다만 전 지구적으로 벌어진 전쟁, 산업화와 개발, 관광 붐으로 인해 유물의 파괴가 가속화되었기에 온전한 계승에 국한되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물림을 고려해 시대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복원을 통한 보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1931년 ‘제1차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건축가와 기술자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아테네 헌장’과 이것을 계승한 ‘베니스 헌장’³⁷⁾(1964)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헌장에서, 건물의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요소들을 존중해야 하고 양식을 통일시키는 것이 보수의 목적이 아니라고 기술한 대목을 통해 원형 보존과 복원의 진정성에 대한 당시 인식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진정성 개념은 맥캔넬(MacCannell)에 의해 사회학에 도입되었다. 관광연구에서 관광경험과 대상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었으나, 관광 이외의 분야에서도 진정성을 인용해 널리 사용하면서부터 그 제한성이 드러났다. 트라일링(Trilling)에 따르면, 진정성은 미술관·박물관에서 사용되었는데, 전시품이 진품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찬탄할 만한 가치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에 사용되었다.³⁸⁾ 이러한 진정성에서 기원하여 관광에서는 예술품, 축제, 의례, 음식, 복장 등 관광상품들이 지역주민에 의해 전통적 방식으로 제작 혹은 수행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진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관광경험의 복잡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전통·기원·진짜라는 키워드에 편향하여 진정성을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구성주의자는 ‘진정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Cohen, 1988)이고 관광객이 부여한 하나의 가치평가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는 늘 변화하고 있어 절대적이고 고정된 진정성은 없다(Bruner, 1994)’고 주장한다.³⁹⁾ 구성주의(constructivism) 외에 진정성에 관한 접근으로 ‘객관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제시되고 있으나, 모조 하회탈의 진정성을 고찰하는 동시에 국보 하회탈을 재현한 모조탈을 연행자와 관광객이 진정한 것으로 수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으로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모조 하회탈의 진정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탈과 판을 활용하여 행해진 놀이이자 마을의 풍요와 공동체 질서의 유지를 기원하는 제의의 일부로 연행된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하회탈이 부재하면 사실상 그 의미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신분질서에 예속된 기층민들은 하회탈놀이에서만

37) 베니스 헌장은 고건축물 보수와 관련해서 오늘날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다. 이 헌장은 원형 보존의 원칙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 예시로, 제9조에는 “복원 과정은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이다. 복원의 목적은 기념비적인 건물의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나타내는 데 있으며, 본래의 재료와 원래 기록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한다.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보수는 멈추어야 하고, 불가피한 추가 작업은 건축 구성에 있어 식별되어야 하며, 당대의 표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정수진, 앞의 논문, 18쪽 재인용; ICOMOS, “The Venice Charter-The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1965)

38) Ning Wang, 『관광과 근대성: 사회학적 분석』, 일신사, 2004, 89쪽 재인용; Trilling, L., *Sincerity and Authentic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p.93.

39) 유창, 「관광에서 전통문화의 재현과 수용: 남산골 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4, 9쪽.

큰 기존 예법에서 강조하는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에 참여했다. 탈을 쓴 그 순간부터는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잊은 채 제3자로 분장하여 과감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여기서 연행자와 참여자를 망아경의 상태에 놓이게 하고 탈놀이를 난장형 축제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요소가 바로, 하회탈이다. 그런 하회탈이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생긴 공백은 하회탈놀이의 재현과 전승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회가면극연구회가 결성된 이후 하회탈은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보탈을 가지고 연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회탈놀이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하회탈이 마을에 부재하다고 해서 탈 없이 공연을 지속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처사이다. 하회마을의 마을공동체성을 투사한 하회탈이라는 이미지는 마을, 지역,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연행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하회탈이 갖는 의미는 상당했다. 하회탈놀이에 사용되는 하회탈이 가진 의미뿐만 아니라 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 조형미 등은 일찍부터 국보 지정을 거쳐 문화재법이라는 제도 안에서 인정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회탈놀이를 복원하는데 유사품이 아닌 진품이 적극 활용되었을 때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국보 하회탈을 대체할 수 있는 진품의 재생산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선택지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진품에 가장 가깝도록 복원하는 것이었고, 1977년부터 김완배를 필두로 모조 하회탈을 제작하기 시작해 3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준히 복원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물론 진품인 국보 하회탈은 객관적 진정성을 함축한 문화유산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것을 조각가들이 최대한 닮게 작업하여 복원한 것이므로 유사하다 할지라도 ‘가짜’임을 부정할 순 없다. 여기서 진정성을 진품에 한정시키는 이들에 의해 모조탈의 진정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다.

구성주의의 중요한 존재론적 가정은 인간의 지각활동이나 언어로부터 독립적인 진정한 세계란 없다는 것이다.⁴⁰⁾ 객관적 진정성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국보 하회탈조차 인간에 의한 해석과 구성의 결과이며 저마다의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 진리조차 정당성을 잃기도, 얻기도 한다. 즉, 상호주관적인 인식이나 상황적 맥락에 의해서 진정성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원화의 과정 속에서 진정성을 진품에 한정해 규정하는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구성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국보 하회탈, 모조 하회탈은 이해관계에 따라 둘 모두 진정성을 갖춘 사회적 구성물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하는 실체로서 진품에 해당하는 국보 하회탈은 모조 하회탈로 전통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전후 상황 모두에서 마을공동체의 토속적인 산물로 인식되고 있어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세상에

40) 낭왕, 앞의 도서, 95쪽 재인용; Bruner, J.,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Schwandt, T. A., “Constructivist, interpretivist approaches to human inquiry”, in N. K. Denzin and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1994.

어떠한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갖는다면 객관적 진정성으로 보기보단 객관성을 지닌 상징적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모조 하회탈 경우에는 마을민속을 자원화하여 전통을 창조한 것으로, 진품 하회탈이 갖는 그 진정성을 최대한 차용해 제작하고 하회탈놀이의 연행에 100% 사용함으로써 ‘진정성의 차용’을 갖춘 사례로 규정된다. 그저 외형만이 흡사한 것이 아니라 국보탈의 부재를 대신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창조되어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하회탈 춤 속 탈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기에 실체와 별개로 진정성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성의 차용은 모조 하회탈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동력이 된다. 실체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조 하회탈은 이름 그대로 모조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짝퉁이나 가짜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실측의 토대가 된 국보 하회탈조차도 8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람들에게 의해 손때가 타고 여러 환경변화를 거치면서 제작할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멀어졌다. 진품조차 변형되어가는 상황에서 실측에 의존하여 복원한다는 것은 완전 일치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가까워지고자 노력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깊은 주름과 뚜렷한 이목구비, 과격적이고 기괴한 탈의 표정 등 국보 하회탈의 풍만한 표정 연출과 민족성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에 겉모습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유일성에 기초한 하회탈의 진정성을 현장의 모조 하회탈이 진품을 대신해 공백을 채움으로써 그 존재가 되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두고 진정성을 차용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조각가들의 반복 훈련과 복제기술의 발전으로 진정성을 차용한 하회탈의 복원 수준이 높아지고, 탈의 수요 확대로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하회탈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다. 게다가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모조 하회탈은 하회탈놀이 표상으로 거듭났다. 이것은 진품과 얼마나 흡사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탈놀이의 형식미를 갖추으로써 연행자 혹은 관람객들에게 제대로 수용되었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정성을 차용한 모조 하회탈은 하회탈놀이의 문화재화로 그 나름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국보 하회탈이 서울중앙청으로 이관되고 국보로 지정되면서 그 공백을 채워 하회별신굿의 연행을 원활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모조 하회탈은 큰 역할을 해주었다. 초기 모조탈의 수준은 복원이라 말하기 어려울 만큼 실물과의 차이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를 제외한 지역민, 관광객은 대체로 하회탈 유무에 관심이 없고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복원 차원을 벗어나 대량으로 상품화된 모조 하회탈이 제작되어 다용도로, 다방면으로 판매되면서 안동에 하회탈이라는 문화자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모조를 진품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회탈놀이에 사용되는 탈이 실제 국보탈이라 생각하고 공연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

한편, 국보도 아닌 짝퉁, 가짜 탈을 가지고 탈놀이를 연행하고 사람들에게 선보였다는 점을 꼬집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연이 진행되는 판(현장)에서는 관객들이 국보 하회탈과 모조 하회탈을 정확히 구분 짓지 않고 자연

스럽게 모조탈을 공연에 필요한 요소 정도로 받아들인다. 여타 유물들의 보존·복원 문제와 비교해보았을 때, 모조 하회탈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도구로서 모조 하회탈이 국보 하회탈의 뿌리 깊은 역사성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진정성을 차용했다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58년 공연을 끝으로 마을공동체 민속으로부터 탈맥락화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다시금 연행하는 데 모조 하회탈이 기여한 바가 크다. 제의의 맥락이 아닌 공연의 형식을 빌려 복원한 마을민속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자원화 방식을 택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거부감을 없앴다. 무대화된 진정성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별신굿과 분리되어 독립된 하나의 공연예술로서 입지를 갖추고 있고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과 연행한 탈꾼들에게 하회탈놀이는 그 자체로 원본의 진정성을 못지 않은 진정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민들이 지역 문화자산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유, 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정책과 제도 속에서 문화유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화시키는 것은 안동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왔다. 그 촉매제이자 구심점인 모조 하회탈은 국보 하회탈을 넘어 독자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하회탈춤을 관람한 혹은 하회탈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구입한 이들로부터 새롭게 해석된 진정성을 가지게 되었다. 모조 하회탈과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연행과정 속에서 서로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있다.

5. 맺음말

하회마을에서 하회탈에 얽힌 금기는 마을주민들 간에 지켜야 할 약속처럼 여겨졌다. 하회탈은 성황신을 위한 신성한 탈 즉, 제앙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부로 보거나 만질 수 없었다. 이 금기는 마을공동체를 하나로 단결시켰고, 존재론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마을주민들로부터 동일한 실천적 양상을 보이도록 했다. 이렇듯 주민들의 행위를 규제할 정도로 마을에서 하회탈이 갖는 의미는 특별했다. 이 하회탈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회별신굿은 제의이자 극적으로 양식화된 탈놀이였기에 마을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판을 연행했다. 특히 하회탈놀이는 지배층에 종속된 피지배층이 주도하는 마을행사로, 기층민들은 예속된 신분 질서와 양반 중심의 체제, 규율에서 해방되어 난장을 즐기고 자체적으로 문화창조력을 표출했다. 즉 역동적인 제의도구이자 그 자체로 예술품인 하회탈은, 고립된 농촌마을 민중들이 저항의지를 나타내고 해방을 추구하면서 잠재적 창조력을 발현시킨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하회탈은 조선 중, 후기를 기점으로 하회마을에서 위상이 추락한다.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하회마을에 거주했던 기층민들은 대거 외부로 이동했고, 기층민인 타성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그들이 주축을 이뤄 연행한 하회탈놀이의 규모도 축소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마을이 파괴되고 주민의 생활은 빈곤과 궁핍에 찌들었으며 삶의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로부터 하회탈은 완전히 잊혀졌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원초적 삶의 공포를 극복하려는 제의이자 마을축제로 행해진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하회탈은 몇 차례의 사건들로 인하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의 신성성을 잃은 채 주민들로부터 터부시되었고, 장기간 마을 동사에 보관되었다. 그러다 미공무부에서 근무하던 맥타카트에 의해 미 잡지에 하회탈 사진이 실리면서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소식을 접한 국내 학계도 하회탈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자로 하회마을을 방문한 이두현 교수의 요청에 따라 하회탈은 연구에 활용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보존·관리한다는 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잠시 이관되었다.

이관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난 1964년 3월 하회탈은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법에 따른 엄격한 국보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했기에 하회탈은 전승지인 안동 하회마을로 반환되지 못했다. 하회탈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고 국보로 지정된 후 탈향토화하면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사용된 하회탈은 제의적, 놀이적 기능을 잃었다. 이처럼 마을자산이 본 공간에 부재함에 따라 주민과 지역민들의 의식 속에서 살아 숨 쉬던 탈의 모습은 점차 흐려졌다. 하회마을 주민들은 문화계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국보를 보관할 공간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을 당했다. 국관에서 진행되는 하회탈을 더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과 공허함을 느낀 마을주민과 하회가면극연구회원들은 국보 하회탈의 공백을 채울 새로운 탈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욕망이 투영된 복원적 재현은 국보탈의 진정성을 차용한 모조 하회탈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김완배·김동표·류호철의 손끝에서 완성된 모조 하회탈은 진품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전략적인 창조력의 발현이라 평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출신으로, 입회한 이후부터 하회탈 제작과 실측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자원화를 진행하여 안동지역에 창조산업의 신호탄을 발사했다. 풍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복원, 재현하는 공예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서 책임감이 생겼다.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모조 하회탈이 국보탈을 대신하여 하회별신굿탈놀이에 사용됨으로써 그 형식미를 채워 탈놀이를 더욱 탈놀이답게 하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하회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며 마을민속의 재맥락화를 통해 문화재 지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복원 차원과는 거리가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복제기술의 도입으로 국보탈에 비교적 가까운 모조탈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안동의 하회탈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제의에서부터 마을자원화를 이용한 상품화로 이어지면서 대중들이 민속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 박정자, 『마그리트와 시물라크르』, 기파랑, 2011.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의 문화인물 1-하남 류한상』, 영남사, 2018.
- 임재해, 『민속마을 하회여행』, 밀알, 1994.
- 최준식,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소나무, 2002.
- 데이비드 로웬덜(김종원·한명숙 옮김), 『과거는 낯선 나라다』, 개마고원, 2006.
- 미셸 푸코(이광래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1986.
- 닝왕, 『관광과 근대성: 사회학적 분석』(이진형 옮김), 일신사, 2004.
- 발터 벤야민(최성만 옮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도서출판 길, 2007.
- Trilling, L., *Sincerity and Authentic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 Bruner, J.,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논문 >

- 권기백 외 2인, 「한국전통문화도시의 정체성 및 지역브랜드자산 비교연구 -안동, 공주, 전주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7(1),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9.
- 권홍중, 「20세기 매체영상에 나타난 아우라의 일고찰: 사진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4.
- 문강형준, 「양날의 칼: 포퓰리즘, 민주주의, 문화행동」, 『문화과학』 71, 문화과학사, 2012.
- 문금희, 「기술복제시대의 산업디자인과 아우라」, 『기초조형학연구』 9(1), 한국기초조형학회, 2008.
- 배영동, 「전통적 마을민속의 공공문화 자원화 과정 -안동 하회탈놀이와 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 _____, 「근대 신분제 유습 해체와 마을공동체 민속의 단절 또는 변화에 대한 시론 -경북지역 반촌의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 『실천민속학연구』 32, 실천민속학회, 2018.
- 백현순, 「제의적 마을 탈춤의 분석 -제의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4), 2010.
- 유영대, 「한국문화와 장인의 미학」, 『한국학연구』 1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 유창, 「관광에서 전통문화의 재현과 수용: 남산골 한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4.
- 윤성우, 「예술과 해석: 하이데거-고흐, 푸코-마그리트, 들뢰즈-베이컨」, 『철학연구』 65, 철학

연구회, 2004.

이상현, 「안동 문화의 변화와 민속의 재창조」, 『비교민속학』 26, 비교민속학회, 2004.

정수진, 「승례문과 원형 담론」, 『비교민속학』 69, 비교민속학회, 2019.

조정현, 「하회탈춤 전통의 재창조와 안동문화의 이미지 변화」,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中村知代, 「전승집단과 연행상황에 따른 하회탈놀이의 지속과 변화」,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4.

Alan Sheridan, Discours, sexualité et pouvoir: Initiation à Michel Foucault, PIERRE MARDAGA, 1982.

Smothers, N., “Can Products and Brands Have Charisma?” , in *Brand Equity and Advertising: Advertising’s role in building strong brands*, eds. David A. Aaker and Alexander L. Biel.,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Schwandt, T. A., “Constructivist, interpretivist approaches to human inquiry” , in *N. K. Denzin and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1994.

< 인터넷 홈페이지 >

김태홍, “국보 제121호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환수 행사” , 경상북도 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gbmuseums.org/m/sub2/sub1_1.asp?page=1&id=10

김진호, “반백년 만에 하회탈 귀향, 안동시민들 ‘얼~쭈’ ” , 중앙일보, 2017,

<https://news.joins.com/article/22238521>

「국보 하회탈의 복원적 재현과 그 문화적 의의」에 대한 토론문

유형동(전남대)

0. 이효정 선생님은 이 논문에서 하회탈이 지닌 가치의 발견과 국보로 지정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복원하려는 시도의 맥락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나아가 복원적 재현을 통해 탄생한 모조 하회탈이 국보탈에 내재된 진정성을 차용하고 있으며, 하회탈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견해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고민해볼 만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려고 합니다.

1. 하회탈 국보 지정의 양면적 의미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회탈은 안동지역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이 긴요하게 연결되는 맥락에서 하회탈의 국보지정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할 때, 하회탈 국보 지정이 지니는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떨까요?

서울로 올라간 하회탈이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하회주민이 지니게 되었을 정서적 반감과 동시에 하회주민(안동주민)들은 하회탈이 지닌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1954년 아서 맥타가트의 하회탈 소개 이후 1964년 이두현의 조사와 국보지정에 이르는 10년동안 하회탈을 보존하거나 그것을 대중적으로 알리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958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사용된 이후, 하회탈은 상자에 담겨 보관되는 형태로 남아있던 것은 아닐까요?

토론을 위한 판지가 된 셈이지만, 하회탈은 국보로 지정됨으로써 오히려 희미해져 가던 지역민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가치가 다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회탈 국보 지정과 국립중앙박물관 이관은 지역민의 의식(?)의 환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 재맥락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가치평가

민속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현재적·현대적 가치에 대해 고민할 때 ‘복원과 재현’은 중요하고 고민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모조 하회탈이 국보탈이 지닌 진정성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회탈에 대한

대중적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민속 현상이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현재 공연되고 있는 하회탈놀이도 모조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폄하하지 않는 것은 복원 재현된 형태로서 계속해서 대중과 소통하면서 공연문화, 전통의 전승과 해석이라는 문화적 의미를 계속 발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원 재현한 탈과 탈춤을 연계하며 의의를 서술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읽고 공부하고, 또 고민해볼 문제를 주신 이효정 선생님과 학회관계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제기한 질문에 잘못이 있다면, 토론자가 오독한 탓이니 양해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지역성의 재구성 : 경북 군위군 ‘화본마을’ 사례연구

문효진(안동대학교 민속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

- I. 머리말
- II. 관광지화의 배경과 지역의 이해
- III. 근대문화유산의 재인식과 관광자원화
- IV. 근대문화유산의 현재적 활용과 지역성의 재구성
- V. 맺음말

I. 머리말

2000년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복고주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고풍 음악이 흥행하고, 필름 카메라나 드립 커피와 같은 20세기의 유산들이 생활 전반을 차지하며 레트로 열풍을 일으켰다.¹⁾ 경쟁 사회에 지친 현대인들은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은 ‘추억의 시간여행’과 ‘시골집으로’라는 주제로 농촌을 낭만적 시선으로 담아내었고,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농촌 판타지를, 예능 ‘간이역’에서는 간이역이 가지는 감성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는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레트로한 감성을 자극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영상 촬영지인 ‘화본마을’에 주목하고 직접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의 대상지인 화본마을은 고향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추억’을 관광 자원화한 곳이다. 2010년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된 화본역은, 현재 연 1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군위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화본마

1) 최근 레트로 패션과 응답하라 시리즈가 유행하는 등 복고주의와 레트로를 둘러싼 담론과 실천이 성황을 이루었고, 이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실천민속학회는 제43차 춘계 학술대회의 주제로 「레트로와 뉴트로, ‘민속’의 상품화」를 주제로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뉴트로/레트로 붐과 민속의 상품화 현상에 주목했다.

을은 역을 중심으로 마을의 문화유산을 관광 매력물로 활용하여 마을 전체를 추억 박물관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로 인한 경제 침체 등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마을의 건축물과 문화, 이미지와 같은 지역 자산을 재인식하여 관광 매력물로 활용하고, 문화관광을 위한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다.

문화관광은 지역 자산을 관광 매력물로 활용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마을이나 지역의 활성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한다. 지역 자산은 지역의 총체적인 생활문화를 지칭하는데, 이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 자연과 역사, 축제와 건축물, 생활관습, 도로망과 항구 등 물리적·비물리적 특성 모두를 포함한다.²⁾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인식하고 관광 매력물을 창출하여 현재 마을이 직면한 위기의 대안과 문화 창출의 한 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³⁾ 또한, 이 과정은 지역의 특정 이미지나 정체성의 형성 문제와도 긴밀히 결부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현대 사회에서 관광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고유한 지역 인식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근대 문화유산을 통해 관광화를 도모하는 과정 역시 그 기저에는 주민과 관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단위의 실천이 존재한다. 문화관광과 관련한 주민들의 실천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지역성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고유한 것이라 평가되는 ‘전통’과 ‘민속’이 관광이라는 맥락에서 재인식, 재활용되는 현상에 대한 문화적 분석과 해명은 민속학에서도 강조되어왔다.⁵⁾ 민속의 존재 양상, 그리고 채택된 민속의 상징과 의미 변화 등은 민속학의 중요한 논의 영역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역동성을 해명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했다.

2) 조아라, 「문화관광지의 지역성 재구성 과정 : 일본 홋카이도 세 지방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28쪽.

3)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는 신라 시대 우물을 문화관광 측면에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문화 콘텐츠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김규호의 연구(김규호, 「문화유산의 재해석과 관광자원화 -경주 지역 신라 우물을 대상으로」, 『문화정책논총』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와 중국 상하이의 도심재생 담론이 재개발 과정에서 역사문화를 강조하는 도심재생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한 한지은의 연구(한지은, 「근대역사경관을 활용한 도심재생 -상하이 구 조계지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46, 대한지리학회, 2011.) 등이 있다.

4) 지역의 특성을 인식하고 관광매력물로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시킨 사례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박동성, 「지역사회의 자기 정체성과 역사의 관광자원화: 일본 시모다 시의 사례 분석」, 『한국문화인류학』42(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조아라, 위의 논문; 양선아, 「지방의 ‘문화관광’과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9.)

5) 남근우, 「민속의 관광자원화와 민속학 연구: 그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서간려, 「민속 마을 관광과 현지 문화의 변천 -광서성에 있는 용척 지역을 사례로」, 『남도민속연구』 14, 남도민속학회, 2007; 이진교, 「민속마을의 관광지화와 시선의 재구성」,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2009; 정수진, 「관광자원으로서 민속의 진정성과 상품화」, 『민속학연구』 24, 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상일, 「우리시대의 관광자원으로서 민속의 가치구현에 관한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14, 실천민속학회, 2009 등.

이러한 논의는 목포와 군산, 인천, 익선동과 같은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현상에 대한 연구⁶⁾로 확장될 수 있다. 사실 근대 문화유산은 그것이 처음 도입, 건설되던 시기에는 ‘새로운’, ‘신기한’, ‘현대적’ 등과 같이 지역 고유의 문화와는 이질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역의 관광지화 기획이나 실천 과정에서 근대 문화유산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역사를 인식하는 매개체로 인정되어 지역성을 이루는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근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정체성은 지역민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며, 구성원의 정체성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곧 지역성의 창출 문제 등과 결부되기 때문에, 민속학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농촌 마을의 관광지화 과정에서 재인식되는 지역 문화 자산과 그를 활용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실천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지역 문화유산을 관광화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마을의 재인식 과정과 지역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기술·분석하고자 한다.⁷⁾ 관광의 맥락에서 특정 지역의 문화가 재구성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⁸⁾ 이러한 연구는 개발의 과정에서 외부의 자본이나 관광산업 등의 개입, 전문가나 미디어의 개입 등은 자칫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오독·왜곡하기 쉽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화본마을의 경우 개발의 동력이 외부의 동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화본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선택하고 활용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들은 ‘추억’과 ‘향수’, 그리고 ‘고향’ 등을 마을의 이미지로 적극적으로 창출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푸근하고 정겨운 어릴적 고향’, ‘추억과 낭만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으로 마을을 인식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⁹⁾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모습과 그

6) 김규호, 위의 논문; 나카무라 야에, 「향수의 관광화: 근대 건축물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회 제43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미발행;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역사문화학회, 2011; 정수진, 「근대문화유산의 근대와 탈근대」, 『비교민속학』 72, 비교민속학회, 2020; 한지은, 위의 논문 등.

7) 화본마을에 대한 현지연구는 2020년 10월 말경부터 시작하였으며, 한 달에 약 세 차례씩 방문하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마을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관광매력물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정리하기 위해 마을의 관광코스를 관광객들과 함께 돌며 참여관찰을 수행했다. 마을 주민들의 경우에는,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일상을 관찰한 후 개개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군위군 의원 중 한 분과 연이 닿아 그를 통해 문화관광과와 접촉하여 군위군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관광지화 과정에 담겨 있는 목적의식, 방향성, 그로 인해 도출된 결과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8) 이와 같은 시선에서 진행된 연구로, 이진교의 연구(이진교, 위의 논문)가 있다. 이 연구는 하회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광개발 과정에서 ‘전통’이라는 주제로 인해 주민들의 현대적 삶이 은폐되고, 해체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문제점을 피력한다.

9) 화본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시골 마을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가진다.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혼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고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것을 통한 지역성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 관광지화의 배경과 지역의 이해

화본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군위군은 경상북도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의성, 동쪽으로는 영천, 남쪽으로는 대구, 서쪽으로는 구미와 접경을 이루고, 태백산맥의 남서쪽 끝자락과 접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높은 산지가 남동부에 주로 분포된 남고북저형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도시세력권에서 벗어나 있다.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높은 산지 등으로 인해 농경지의 발달이 미약한 지형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¹⁰⁾ 군위군은 농경지의 발달이 미약하고, 도시세력권에서 벗어나 있어 농특산물의 발달이나 경제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어려웠다. 이 지역 역시 심각한 고령화나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곳 중 하나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7. 군위군의 인구는 2004년 말 기준 28,825명이었으나 작년 말은 25,309명으로 최근 5년간 12.2%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인구의 노령화로 사망인구는 크게 증가하나 가임여성의 감소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교육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인구이동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2년 말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 구성비가 전체인구 21.5%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08년말 현재 노인 인구는 7,735명으로 전체인구의 30.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출생인구는 연평균 168명으로 전체인구 0.7%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반해 사망인구는 연평균 367명으로 1.4%의 자연감소율로 지난 5년간 사망인구가 출생인구의 2.2배가 됩니다.¹¹⁾

위의 자료는 2009년 10월에 논의된 군위군의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것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문제시하고 있다. 여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이-푸 투안(Yi-Fu Tuan)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 강도는 문화나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고향에 대한 강한 애착심은 그저 친근함과 편안함, 보살핌과 안전에 대한 확신, 소리와 맛에 대한 기억, 공동의 활동과 세월이 쌓아온 아늑하고 기쁜 추억만으로도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98쪽.) 화본마을은 각자도생의 경쟁사회에 지친 현대 도시민들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자극하고, 그를 통한 관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0) 군위군은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200m이상 표고가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의 평균 표고가 군위읍 88m, 의흥면 117m, 그리고 효령면이 96m로 나타난다. 또한, 급경사지인 경사도 15%이상 지역이 75.2%를 차지하고 있다. 급경사지가 다수 분포하여 도로변의 자연경관은 양호하나, 농경지의 발달이나 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군위군 화본역 명소화 사업 계획서, ‘개발여건 분석’, 9-28쪽 참고.)

11) 제170회 군위군의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2009년 10월 27일

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사망인구가 출생인구의 2.2배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군위군 화본마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화본리 인구 추이(단위: 명)¹²⁾

연도	인구 총수	화본 1리	화본 2리	화본 3리
1969	1,409	854	271	284
1980	1,055	683	183	189
1990	800	529	135	136
2000	614	413	90	111
2010	403	282	54	67
2020	313	214	38	61

화본마을의 인구 감소 추세는 [표 1]의 행정자료에서 드러난다. 1969년 당시 1,400명을 상회하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300명대까지 줄어들었다. 화본2리의 경우 2020년경에는 주민의 수가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적 지표로만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재적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이곳 주민의 연령구성은 고령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청년층이 도시로 떠나고 출산력이 떨어지면서 학교가 폐교되었다. 그 결과, 마을 내에 청소년과 아동의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 지역 전체가 침체되는 분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발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ㄴ. 청년층은 보면 별로 없어. 전부 다 보면 뭐 60-70대. 그 밑에 사람이 없어요. 다들 객지 나가서 사는거지. 나이 먹으면 또 들어오는거고. 시골에서는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지으면은 못 먹고 살아요.¹³⁾

ㄷ. 옛날에는 이 동네가 200호도 넘었다. 공무원들도 많고 전부 다 한 집에 3집 4집씩도 살고 그리 살았어요. 지금은 집이 많이 없어져버렸지. 옛날에 집이 많았는데 여기 이제 한 채 두 채 이래 살았는데 옛날보다 집이 많이 적지. 옛날에는 저 열차가 굉장히 콩나물 시루 같았는데 인부도 뭐 줄어뽕고 그랬다.¹⁴⁾

ㄹ. 내가 여기에 왔을 때에는 육십 둘에 여기에 왔는데, 와보니까 저 운동장에 풀이 발목까지 왔다카니까. 그래서 귀촌으로 와서 조용하게 좀 지내갈까 싶어가지고 와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뛰어놀던 내 고향은 간 곳이 없고, 적막강산이라.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빠져나가면 아이를 생산을 안 하잖아. 그래서 적막강산이 되어 버렸어.¹⁵⁾

12)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제공 자료 재구성.

13) 박○배(남, 74세, 새마을지도자)의 면담자료(2021년 5월 9일)

14) 최○옥(여, 70대)의 면담자료(2021년 5월 9일)

15) 윤진기(남, 75세, 삼국유사화본마을 위원장)의 면담자료(2020년 12월 29일).

위의 자료는 화본마을이 겪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쇠퇴의 문제를 담고 있다. ㄴ은 화본마을에 청년층이 별로 없으며, 마을의 구성원이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술한다. 청년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농업밖에 없는 마을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객지로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로 인해 과거 화본마을에는 산성중학교와 산성초등학교가 존재했으나, 2009년 산성중학교가, 2012년에는 산성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ㄷ의 진술이 보여주듯이 과거 화본마을의 200호를 상회하는 가구수와 많은 주택이 밀집해 있었으며, 마을의 열차 이용객 또한 ‘콩나물 시루’ 처럼 많았다. 하지만, 지역 쇠퇴와 인구 감소로 인해 열차 이용객의 수 역시 급감하게 되었다. 노인층이 화본마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마을 전체가 침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ㄹ의 진술처럼 학교가 폐허가 되어 ‘운동장에 풀이 발목까지’ 자라고, 아이들이 사라져 ‘적막강산’이 된 마을 분위기를 인식하게 되었다.

화본마을이 당면한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는 현대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도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약 230여 개의 시·군·구 중에서 반 이상이 이미 쇠퇴했거나 쇠퇴하는 과정에 있고, 나머지 20%도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다.”¹⁶⁾ 대도시로 몰려드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그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지방 지역의 쇠퇴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군위군은 2010년경, 새로운 군정목표를 “경제와 문화가 살아있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관광을 통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계획은 군위군에 위치한 팔공산과 위천¹⁷⁾, 삼존석굴¹⁸⁾과 같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6) 마강래,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2017, 5쪽.

17) 위천은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의성군 춘산면, 청송군 현서면의 경계인 매봉에서 발원하여 군위군 중심부를 북서류하여 의성군을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위천』, 2021.07.31. 검색) 군위군은 위천변에 33만2천부지를 조성해 대단위 테마카프를 조성하고 현 수교와 생태식물원, 물놀이 시설, 숲길탐방로, 산림휴양원, 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관광·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군위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위천수변테마공원』, 2021.07.31.검색)

18)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은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석굴사원으로, 국보 제109호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2021.07.31.검색) 석굴 앞의 사찰을 복원하여 1989년부터 선방, 산신각, 종무소, 법당, 소하천 등을 증개축하였으며, 주위의 경관이 수려하여 관광지로도 유명하다.(군위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군위 삼존석굴』, 2021.07.31.검색)

ㄱ. . . . 우리 군위는 한민족의 뿌리를 간직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팔공산과 위천 등 천혜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삼존석굴 등 많은 문화유적·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그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입니다.¹⁹⁾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족도시 군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자산들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짝 꽃피워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전원휴양·관광레저·친환경 농업”이 함께 잘 어우러진 군민들이 살기좋은 지역, 살아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자족도시가 성숙되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보다 쉬운 기업 유치를 통해 교육과 복지 예산증대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통합의 주도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²⁰⁾

ㄴ. 군위군에 위치한 관광자원은 삼존석불, 인각사 등 전통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유적지와 온천, 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휴양형 관광지, 관광농원, 유원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나들이형 관광지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형 관광지로 구분할 수 있다. . . . 휴양·레저도시, 전원도시, 교육·문화·복지도시, 첨단산업도시, 정보·물류도시를 발전목표로 설정하였다. 군위 석굴암 터널 연계 도로망 구축, 전원형 신시가지 조성,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개발, 일연테마파크 조성, 레포츠 컴플렉스 조성, 녹색관광산업 육성, 산성·고로 지역 관광 네트워크 거점 형성 등 10대 전략사업을 제시한다.²¹⁾

당시 군위군의회 회의록이나 사업계획서 등에서 드러나듯이, 군위군은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관광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다.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전원휴양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화본마을은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근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테마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재생의 활로를 찾고자 한 것이다.

Ⅲ. 근대문화유산의 재인식과 관광자원화

화본마을의 특산물이나 자연환경은 다른 마을과 차이점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군에서 추진하는 전원휴양 관광의 일환으로 마을을 관광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는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다. 또한, 마을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조직적인 단체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으며, 논의를 거쳐 마을기업인 ‘삼국유사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게 되었다.

당시, 영농조합은 현재의 위원장인 윤진기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정년퇴직을 계기

19) 2010년 당시 각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차산업이 전체 산업의 6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군위군 화본역 명소화 사업 계획서, ‘계획의 개요’ 3~4쪽 참고)

20) 제178회 군위군의회, 제3호 본회의회의록, 2010년 11월 3일.

21) 군위군 화본역 명소화 사업 계획서, ‘개발여건 분석’, 9~28쪽 참고

로 귀향한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살벌하고 허허’해진 마을 분위기를 인식하고 ‘사람이 사는 온기가 나는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스스로 뭉쳐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하며 마을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적막하고 고요한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했다고 증언했다.

ㄱ. 제가 대구에 출향해가지고 생활하다가 62세인 2009년 초에 귀향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살벌하고 너무 허허(虛虛)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조금 더 가꾸고 우리 마을을 좀 더 사람이 사는 온기가 나는 마을로 만들면 어떻겠노 싶어가지고 행정하고 접목을 해가 시작하게 됐지요.²²⁾

ㄴ. 그 당시에는 여기 지역에서는 내가 위주로 되어가지고 동장 협의회하고 자치위원 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꾸준히 열어가지고, 그리고 군청하고 같이 접목이 됐지. 그리고 화본마을 운영위원회라는거를 만들었지. 그게 출발 시점이었어. 지금은 여기 남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장이고.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으니까. 한 사람씩 빠져나가버렸지.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법인 등기부에 있는 사람은 한 45명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30명 정도.²³⁾

활동을 주도해 왔던 윤진기가 위원장을 맡았고, 주민들 중에서 젊은 인물들을 부위원장과 사무장, 총무 등으로 선발했다. 조직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마을의 관광지화와 관련된 주제 선정에 대한 회의를 거듭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²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으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관광매력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초기 회의에서 주민들은 마을의 특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가시오이, 양파 등과 같이 지역 특산물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취합한 결과 화본역 명소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당시 화본마을은 군위군 내에서 역이 세 군데인 유일한 지역²⁵⁾에 위치해 있고, 화본역은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역사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과거 지역이 인정받았던 이유이자, 현재 역사 마니아들에게 인정받는 기차역을 재해석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22) 군위 화본마을 홍보영상 <깨끗한 이 마을에 가고 싶다>, 윤진기(남, 75세, 삼국유사화본마을 위원장)의 말씀.

23) 윤진기(남, 75세, 삼국유사화본마을 위원장)의 면담자료(2021년 1월 9일).

24) 화본마을은 매월 초에 마을 전체가 모여 정기총회를 갖고, 매주 토요일에는 조합원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다가 방역수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와해되었다.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장이 중심이 되어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5) “군위군에 역이 세 군데는 여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려가지고 사람이 쉬었다 가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겁니다.” 윤진기(남, 75세, 삼국유사화본마을 위원장)의 면담자료(2020년 12월 29일).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이외의 주체들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초기 과정에서 화본마을 주민 단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의 활성화를 추구했으나, 곧 경제적 한계에 직면한다.²⁶⁾ 그 결과 주민들은 마을 공간 재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조성사업’에 지원하였는데, 대상지로 화본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공모 사업의 선정은 화본마을의 관광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²⁷⁾ 군위군 측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표 4] 화본마을 개발사업²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내용	사업비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조성사업	2010년 ~2013년 (4년간)	- 화본 역사, 급수탑 리모델링(2011) - 플랫폼 주변 정비 및 조경(2011) - 화장실 증축, 급수탑 경관조명(2012) - 주차장 조성 및 탐방로 정비(2013)	1,960백만원 (국고 980, 지방비 980)
2011년도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2011년 1월~6월	- 추억박물관 조성(학교 내부)	333백만원 (도비 100, 군비 233)
지역밀착형 관광개발사업	2010년 ~2011년	- 기차카페, 숙직실 리모델링 및 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 체험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	350백만원 (도비 100, 군비 250)
추억이 머무는 화본마을 관광체험장 조성	2012년 1월~12월	- 외벽리모델링, 화장실 개축, 조경시설 등	400백만원 (도비 120, 군비 280)
화본나들이 체험장 조성	2014년 1월~12월	- 학교 뒤편 추억의 체험존 조성	300백만원 (도비 90, 군비 210)

군위군은 당시 추진하고 있던 관광사업들과 화본마을이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 여러 사업을 통해 마을의 관광화를 지원했다. 화본마을은 지원금을 활용하여 간이역과 급수탑이 가지고 있는 소박하지만 아

26) “지금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역민만으로는 안 됩니다. 관의 인정을 받고 관의 보조를 받아야 돼요.” 윤진기(남, 75세, 삼국유사화본마을 위원장)의 면담자료(2020년 12월 29일).

27) 군위군청 홈페이지, <폐선철로·간이역, 추억의 녹색관광지 된다 -군위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문화체육관광 광부 관광자원사업 대상지 선정->, 군정새소식, 2010.03.15.

28) 군위군청 문화관광과 자료 재구성.

롭다운 멋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토대로 ‘사람이 쉬었다 가는 마을’로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사업비를 이용하여 화본 역사와 급수탑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며 기차카페를 만드는 등 마을 공간을 본격적으로 재편성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기차역을 활용한 관광화에 집중했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화본역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본역에 대한 군위군과 주민들의 인식은 새로운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ㄷ. 지금 여 군위군에 군위, 의흥, 우보. 장 세 개 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상권이 전부 다 영천이었거든. 9시에 기차를 타려고 역에 나가면은 거의 피난민이라고. 피난 행렬. 전부 다 보따리 이고 지고 역에 나와. 다른 역에 1분 선다 그러면 여기는 2분 서고 그랬어. 거기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그래 오는거야.³⁰⁾

ㄹ.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차가 꼭 있었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여기서 타야만이 농산물 가지고 영천 시내에 가는거예요. 농산물을 생산해갖고 그걸 영천장에 팔아야 그걸 이제 현금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자식들 등록금도 대고 그랬어. 그때는 이고 미고 지고 하는게 끈때기 만들어가 그래가 열차에 다 실었죠. 짐을 싣고 내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³¹⁾

ㅁ. 우리 어릴 때는 철길에다가 못을 뽕죽하니 갈아서... 급수탑에 보면 6.25때 총탄을 쏘가 지금도 가면 있어. 총 자국 많아. 안에 총알이 콘크리트에 박혀있어. 그러면 그거 낚을 빼는기라. 총알 낚을. 그러면 옛장수 오면 옛 바꿔먹고.³²⁾

과거 농촌이었던 화본마을 주민들은 화본역에서 기차를 타고 영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했다. 역 앞은 수확한 농산물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당시 화본역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개체로 인식되었고, 급수탑 또한 기차가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아이들이 노는 장소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관광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화본역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된다.

화본역이 일반인들에게 관광매력물로 여겨지면서 역에서 기차를 타는 것이 관광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또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장에 가기 위해

29) “간이역은 역사, 문화, 민속, 자연, 예술 등 각종 소재와 철도의 용도가 접목되어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화본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탑은 증기기관차 시대에 냉각수 확보를 위해 1938년에 설치한 시설로 증기기관차 이용에 대한 교육과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인 바, 역사적 의미를 활용하는 관광자원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간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화본마을을 대도시 인근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군위군 화본역 명소화 사업 계획서, ‘기본 구상’, 81-83쪽 참고)

30) 박○배(남, 74세, 새마을지도자)의 면담자료(2021년 5월 9일)

31) 장○근(남, 60세, 출향민)의 면담자료(2021년 5월 9일)

32) 박○배(남, 74세, 새마을지도자)의 면담자료(2021년 5월 9일)

지나다니던 공간으로 활용되던 화본역 앞 광장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폴리마켓이 열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관광객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공간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마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화본역은 랜드마크로 인식되어, 관광 관련 행사를 그 앞의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공간 인식의 변화는 화본역과 급수탑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에서도 볼 수 있다.

ㄴ. 화본역은 1936년도 쯤에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건데 여기 건물이 일제강점기때 건물이거든요. 전국에 이런 역이 6~7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아있는 간이역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름답고 또 그때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역이 바로 이 역이랍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 화본역이라 전국에 사람들이 알아줘요.³³⁾

ㄸ. 화본역이 유명해지는거는 저 급수탑. 저게 전국에서 제일 크거든. 전국에서 최고 크고 역 주변을 이래 봐도 사진 작가들이 와가 보고 그러면 이런데가 없다 그래. 어느 역에 가도. 그러이 행정기관에서도 이래 하지.³⁴⁾

관광자원으로 재인식된 화본역과 급수탑은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간이역’과 ‘전국에서 제일 큰 급수탑’이란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사실,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화본역의 기차와 증기기관차의 운행을 위해 건설했던 급수탑은 주민들의 물리적 시선 속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의미나 상징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내의 관광자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덧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을 중심으로 마을의 이미지는 재구성되었다. 한편, 이렇게 재구성한 이미지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스스로에게도 마을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본역과 급수탑을 중심으로 유명해진 화본마을의 분위기를 인식한 주민들은 마을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이역과 급수탑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연계할 추가적인 관광매력물에 대해 고민하던 중, ‘추억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폐교된 산성중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³⁵⁾

33) 관광해설사 면담자료(2021년 5월 9일)

34) 박○배(남, 74세, 새마을지도자)의 면담자료(2021년 5월 9일)

35) “... 체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교육청 건물은 매매를 했는데 제일 일빠따로 산성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 그거를 매매를 해가지고 폐허가 돼버렸잖아. 성남초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이제는 폐교는 개인한테 허가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관대 관으로는 얼마든지 승계 연계 무상 임대도 이래 나올겁니다. 이 건물도 군위군하고 내하고 무상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윤진기(남, 75세, 삼국유사화본마을 위원장)의 면담자료(2020년 12월 29일).

오. 폐교가 되고 농어촌의 인구가 급감소한 후에 대책이 사람 유입은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번 쉬었다 가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 근데 잠시라도 쉬었다 가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쉬었다 가려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내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시작했다카니께. 이 건물도 군위군하고 내하고 무상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3600평입니다. 이 안에 있는걸 갖다가 돈을 적게 들어서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의 옛 추억을 가지고 가는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1층하고 2층, 주변의 모든 걸 엮어가고 있어요.³⁶⁾

즈. 옛날에 저 학교 만들고 마을 리모델링 할 때 도운 사람 있고 그랬지. 여 학교 위원장 있잖아. 거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지. 마을 청년들하고 그래 같이 했지. 박물관 해놓은 것도 수집해가지고 거 갖다 막 진열해놨는데, 저쪽 초등학교 쓰던 것도 갖다놓은거 있고. 마을에서도 쫓는거 있고. 나도 저 몇 개 쫓다.³⁷⁾

황폐화된 폐교는 6-70년대 모습을 재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이름을 가진 근현대사박물관으로 재구성되었다. 엄마와 아빠가 어렸을 적에 겪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키고,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되짚어보는 매개체로 기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전시관은 공간을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추억박물관’으로 화본마을의 과거 모습을 재현한 곳이다. 이 공간에서는 과거 다방과 학교, 길거리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때 그 시절’이라는 이름으로, 1960-70년대 학교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과거 학교에서 사용하던 물건들과 주민들이 직접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을 전시품으로 활용한다. 당시 교실에 놓여 있었던 난로와 풍금 등을 재현했으며, 교실 뒤편에는 60-70년대 당시 학생이었던 주민들의 생활기록부와 일기장, 과제물 등을 전시했다. 또한, 전시관의 복도에서는 오래된 카메라와 텔레비전을 관람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과거 자신들의 삶을 재발견하게 된다. 사실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물건들은 이미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특별한 의미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근현대사박물관의 건립은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과 물건 등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 된 것이다.

IV. 근대문화유산의 현재적 활용과 지역성의 재구성

화본마을은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쓰면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연간 18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마을로 탈바꿈했다. 전체 주민이 110여 가구에 2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주민들의 실천과 군

36) 윤진기(남, 75세, 삼국유사화본마을 위원장)의 면담자료(2020년 12월 29일).

37) 오○재(여, 82세, 마을주민)의 면담자료(2021년 6월 1일)

의 지원을 바탕으로 삼아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성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주민 삶의 일부로만 존재했던 평범한 것들이, 이제는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화본마을은 6-70년대의 기억을 낭만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간이역과 급수탑, 생활 물품을 재해석한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농촌 마을의 분위기에 아담한 간이역과 오래된 급수탑이 만드는 전경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과거의 추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든다. 화본마을은 관광객들이 지닌 농촌에 대한 환상과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고,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관광지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³⁸⁾

한편, 마을의 이미지는 지역성과 직결되는 것이다. 특정 이미지는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결부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동일한 공간이나 지역에 대한 이미지라도 그것을 둘러싼 주체들의 인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주체는 마을의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적 시선은 마을 주민들을 주체로 보고,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의 이미지로 설정할 수 있고, 외부적 시선은 관광객들을 포함한 마을 바깥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내부적 시선인 주민의 인식이다.

ㄱ.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진짜 낙후되지 뭐. 앞으로 역도 없어지거든. 내년 되면 없어져. 철도 역도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지 되어나서부터 이 마을이 이제 살아나고 땅값도 비싸고 그래. 그래서 좋지 뭐 여기 막상 와보고 여기 뭐 네티즌들이 이 간이역을 아름다운 간이역이라고 뽑았어. 그레가지고 전국에서 이 역이 제일 아름다운 간이역이야. 그레가 좋아. 이 마을이 막상 와보면 깨끗하고 좋다카대. 아무래도 촌이고 하니 까 애들도 없잖아. 학교도 없어지고 하니. 애들 구경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관광지되곤 부터는 아들 구경 많이 하지, 사람 구경 많이 하지. 그게 좋지 뭐. 많이 왔다갔다하이 막 좋지 뭐. 안 그러면 여 뭐 전부 다 해도 사람 별로 없다. 평일날은 별로 없다. 뭐 북적거릴 일도 없고 한테 주말 되면 북적거리고 하니 그게 좋지 뭐. 사람들 많이 오고. 뭐 애들도 많이 오고. 우리도 이제 살기 괜찮고 하니 그레 좋지.³⁹⁾

주민들은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반응과 시선에 민감하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외부인의 출현은 주민들의 인식을 뒤바꾼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마을에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시선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을 가진다. 평소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주민 역시 화본역이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되고 마

38) 군위군청에서 제공한 2019년 군위군 주요 관광지 입장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본마을에는 92,595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군위군의 관광지인 ‘장곡 자연 휴양림’에 13,707명, ‘사라온 이야기마을’에 31,577명이 방문했음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군위군의 관광지 가운데 화본마을의 방문객 수가 가장 많으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9) 오○재(여, 82세, 마을주민)의 면담자료(2021년 6월 1일).

음이 깨끗하고 좋다고 칭찬하는 것을 목격한 후, 자신의 거주지를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미디어는 마을의 내·외부 양자에게 화본마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화본마을은 관광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에는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촬영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로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촉발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간이역’을 진행하고, ‘1박 2일’을 다시 촬영했다. 여러 번에 걸친 미디어 출연은 모두 추억과 농촌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1박 2일에서는 <추억의 시간 여행>과 <시골집으로> 특집으로 등장해 ‘시골 로망스’를 기반으로 등장했고,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농촌 판타지’를, 간이역에서는 ‘따뜻한 감성’과 ‘힐링’의 이미지로 비춰졌다.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는 지역의 이미지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을의 이미지 창출과 확립 과정은 영상물과 더불어, 화본마을을 대상으로 작성한 기사 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ㄴ. 세상은 참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옛 추억을 먹고 사는가 봅니다. 푸근하고 정겨운 어릴 적 고향마을 통째로 옮겨 놓은 듯 박물관 안은 온통 옛 기억들이 넘실댁니다.⁴⁰⁾

ㄷ. 군위 화본마을은 추억과 낭만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이다. 1960, 70년대 생활상을 재현한 추억의 학교 체험관과 아름다운 간이역이 있기 때문이다. . . . 교실 문턱을 넘는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40, 50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⁴¹⁾

ㄹ. . . . 1936년에 지어진 작은 시골 역사인 화본역은 아담하다. . . . 시골 역 특유의 아기자기함이 정겨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 . 옛 골목길이나 사격장과 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관을 만들어 부모세대로의 타임머신 여행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⁴²⁾

ㅁ. 아기자기한 골목길에 오래된 만화방과 구멍가게, 이발소, 책방, 연탄 가게, 극장, 사진관, 자취방, 화장실, 교실 등을 옛 모습 그대로 오밀조밀 재현해 추억이 모락모락 되살아난다.⁴³⁾

기사 속에서 화본마을은 “푸근하고 정겨운 어릴 적 고향마을”, “추억과 낭만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화본마을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교실 문턱을 넘는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40, 50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체험을 하고, “다양한 체험관을 만들어 부모세대로의 타임머신 여행기회를 제공”받는다. 화본마을은 “옛 모습 그대로 오밀조밀 재현해 추억이 모락모락 되살아”나는 공간

40) 손현희, ‘젊음’을 찾아주는 박물관, 구경오세요, 오마이뉴스, 2011.07.21.

41) 최재수, [엄마 아빠와 체험학습] 군위 근현대사 박물관, 매일신문, 2012.07.19.

42) 홍석천, 추억을 담은 경북 ‘화본마을’ 전국 관광지 부상, CNB뉴스, 2014.11.29.

43) 이기만, 군위군, 화본마을축제... “추억에 젖고 흥에 취하고”, 국제뉴스, 2017.10.03.

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화본마을이 관광지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며, 방문객들은 매스컴에서 보았던 마을의 이미지를 찾기 시작했다.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예전에 어릴 때 생각도 나고요. 제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44), “둘러보니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요 상당히 기분이 묘하네요.” 45), “그 시절이 좋았죠. 낭만도 있고.” 46)와 같이 이야기했다. 관광객들은 화본마을에서 옛 추억을 더듬어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사와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복고주의다. 관광객들은 화본마을에 방문하여 향수의 감정을 느끼고 돌아가는데, 이러한 경험은 입소문을 타고 향수감정을 맛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불러온다. 화본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접한 관광객들은 방문 계획을 세우며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 시공간과 관련된 회귀적 고향 마을 이미지 형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지역성의 재구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을 내에 평범한 일상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관광화로 인해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마을은 이미지의 재구성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차원의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성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 장소와 공동체의 차원으로 한정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만큼 밀접하다.⁴⁷⁾

먼저, 마을의 공간 변화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동하던 화본역 공간은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농지로 활용되던 공터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변모했다. 아울러, 학교로 기능하던 공간은 마을 주민들의 물품을 전시하는 근현대사박물관으로 재편성되었다.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공간이 새롭게 활용된 것이다.

44) 군위 화본마을 홍보영상 <깨끗한 이 마을에 가고 싶다>, 정숙영(여, 51세, 관광객)의 말씀.

45) 위와 동일, 조용찬(남, 65세, 관광객)의 말씀.

46) 위와 동일, 권광태(남, 72세, 관광객)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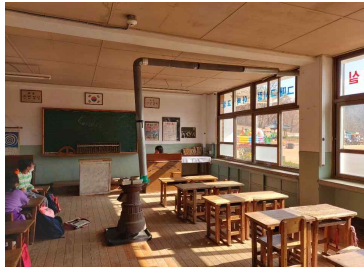
47) 조아라, 「문화관광지의 지역성 재구성 과정: 일본 홋카이도 세 지방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1~24쪽 참고.

[사진 1] ‘엄마 아빠 어렸을적에’ 전시실과 전시품⁴⁸⁾

③ 전시실 내부



④ ‘그때 그 시절’ 내부



⑤ ‘추억박물관’ 내부



⑥ 마을 주민 상장



⑦ 골동품 전시



⑧ 주민 생활용품 전시



이 공간의 내부에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놓은 골동품들이 4만점 이상 전시되어 있다. 주민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물품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재인식되어 관광 매력물로 재구성해 전시했다. 학교 공간을 근현대사박물관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여 그들의 기억이 담겨 있는 물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전시품을 본 관광객들이 당시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고 향수를 느끼는 것을 전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지역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모아 전시실을 만들고, 주민들의 기억이 담긴 물품들을 통해 당시의 추억을 방문객들과 공유하는 기회로 삼았다.⁴⁹⁾ 관광객들이 물건들을 직접 만져 보고 경험해 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당시 관광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에게 당대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물품들을 회사할 것을 부탁했고, 이에 응한 주민들은 오래된 물품들을 전달하여 전시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이 자신들과 마을의 과거를 재인식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48) 직접 촬영, 2020년 11월 14일.

49) “여긴 지역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조금조금 회사해가 가져다놓은겁니다. . . . 다른 사람들이 왜 저거를 유리를 관을 해가 무슨 큰 보물마냥 해놓는다고 유리 그거 할 줄 몰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순수해가지고 여기 오는거지 만져 보고 던져도 보고 이 재미로 여기 오는거다, 그래서 그거는 시설을 안 하고 여기 오는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뒀어요” 윤진기(남, 75세, 삼국유사화본마을 위원장)의 면담자료(2020년 12월 29일).

ㄴ. 거기 나도 몇 개 쫓지. 그때 옛날 오래된 깡통하고 여자들 옛날 일 있잖아. 그래 몇 개 주고... 오래됐는거 있으면 달라캐서 쫓지. 물레 쓰지도 안하잖아. 깡통도 옛날꺼니까 그냥 쫓지. 근데 그거 사람들이 보고 신기해하대. 옛날 생각 난다고 하고. 버리는 거였는데 그렇게 갖다놓으면 좋지 뭐.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이 마을도 살고 막 좋지.⁵⁰⁾

ㄷ. 사람들이 그거 물건들 보러 오는거 보면 신기하고 그랬죠. 별 것도 아닌데 보러 오니까. 교실 안에 나무결상 쪼만한거 있죠. 거기 건물은 그대론데 의자같은 것만 좀 바뀐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나무 결상에다가 난로 있잖아요. 막 술방울 같은거 때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양은 도시락에 밥 싸가지고 없어났다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 시절에 것들이 고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때 시절을 아니까 그냥 그랬는데 사람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신비감이 있나봐요. 여기 오 후 되면 주차장 차 델데가 없이 여기 다 자체가 주차장이 되는데, 아이고 완전 뭐 발디딜 틈도 없고. 그런거 보면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생각 들고 그렇긴 하죠.⁵¹⁾

위의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건축물과 생활물품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과거와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접한 주민들은 현대화된 생활양식 속에서 쓸모를 다한 물품들이 발견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버리는 것’ 또는 ‘별것도 아닌 것’이 공간의 재구성 과정에서 선택되어 지역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공간의 재구성은 지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편성하기 시작했다. 공간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공간 활용의 주체가 변화한 것이다.

한편, 본격화된 관광지화와 더불어 나타난 외부인의 유입, 토착민의 성격 변화 ‘지역성’의 형성과 관련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과거 화본마을의 구성원들은 마을에서 오랜 시간 지낸 토박이⁵²⁾들만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여 그들만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농번기에 서로 노동력을 나누었다. 그러나 관광화가 이루어지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업과 관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입자⁵³⁾ 집단이 새롭게 유입되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토착 주민이나 상업이나

50) 오○자(여, 82세, 마을주민)의 면담자료(2021년 6월 1일)

51) 장○근(남, 60세, 마을주민)의 면담자료(2021년 5월 9일)

52) 토박이에 대한 개념은 마을 내 구성원들끼리도 상충하는 면이 있는데,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만 인정하는 사람들과 마을에서 나고 자라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거주하며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갖고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면 토박이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에 동의하여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마을로 시집을 온 사람들, 마을에 거주한 기간이 4-50년가량 되어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53) 전입자 집단은 마을에 입주하여 거주하게 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며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토박이 집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화본마을에 비집고 들어와

관광업에 종사하는 전입자들은 모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마을 내의 근대문화유산과 향수적 물품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들은 과거 모습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서 화본역과 급수탑의 모양을 본뜬 브로치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먹었던 추억의 과자, 양은도시락에 담긴 추억의 도시락을 판매한다. 또한, 단순한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달고나 체험’과 ‘옛 교복 체험’과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이는 향수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 이미지의 재구성과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동시에 진행되며 새로운 지역성을 구성해간다.

이처럼, 화본마을은 관광지화의 과정에서 근대문화유산을 관광매력물로 활용했고, 간이역과 급수탑이 가지는 아날로그적 이미지를 활용해 마을 전체를 회귀적, 향수적 이미지로 재구성했다. 지역 자산을 활용한 관광지화를 도모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나, 미디어를 통해 마을의 이미지가 확립되고 전파되며 마을 외부인들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지역 인식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이미지와 더불어 공간과 공동체가 재편성되어 결론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V. 맺음말

화본마을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다. 마을의 모습은 끊임 없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흥밋거리로 여겨지고 있지만, 마을의 이미지 변화와 정체성 재구성에 따른 주민 삶의 변화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방송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락거리 위주의 이미지 확립만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은 화본마을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관광지화 과정을 짚어보고 이미지의 변화와 지역성의 재구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간이역과 같은 지역 자산을 관광매력물로 활용하는 화본마을의 관광지화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관광지의 대상을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을 주민들의 실천과 인식 변화를 정리하고자 했다. 주민들의 실천이 기반이 되어 이루어진 관광지화와 그에 따른 지역 이미지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지역성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역문화유산을 관광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을의 재인식 과정과 지역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화본마을의 주민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쇠퇴의 문제를 인식하고,

터를 잡은 사람들로, 마을의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관광지화가 이루어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마을공동체에 소속되어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을 확실히하거나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관광지화된 마을에 유입되어 자본적 소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많은 수의 전입자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에 종사한다.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간이역과 급수탑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일부였던 것을 기존과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인식 변화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마을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마을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낭만적·회귀적 이미지를 확립하면서 농촌에 대한 환상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은 관광매력물을 만들어내고,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관광지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을은 미디어 속에서 “푸근하고 정겨운 어릴적 고향마을”과 “추억과 낭만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관광지로서 차별점이 부족했던 화본마을은 근대문화유산을 선택하고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창출해낸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창출과 확립은 지역성의 재구성과 일정하게 관련될 수 있다. 평범한 일상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관광화로 인해 재해석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재구성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차원의 변화에 직면한 것이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와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던 마을 공간은 상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부인들이 유입되고 마을기업이 설립되면서 마을 공간은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농촌 마을의 관광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마을 내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보여준 관광자원의 선택과 관광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이미지 확립의 흐름 속에서 관찰되는 주민들의 자율적 실천과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민속학적 시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화본마을의 관광지화는 현대 농촌이 당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와 도시민들의 문화적 병리를 기반으로 한 과거에 대한 낭만적 시선을 담고 있다. 이는 민속학의 모체로 여겨지는 농촌의 현대적 변화 사례로, 농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지역 재편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변화의 측면을 이해하는데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주민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내의 근대문화유산과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재인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을에 대한 재인식과 공간의 재해석, 공동체의 재편성은 새로운 지역성을 구성해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논저

- 마강래,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2017.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 김규호, 「문화유산의 재해석과 관광자원화 -경주 지역 신라 우물을 대상으로」, 『문화정책논총』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나카무라 야에, 「향수의 관광화: 근대 건축물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회 제43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미발행.
- 남근우, 「민속의 관광자원화와 민속학 연구: 그린투어리즘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 문예은, 「근대문화유산을 둘러싼 담론의 경쟁 양상 분석: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역사문화학회, 2011.
- 박동성, 「지역사회의 자기 정체성과 역사의 관광자원화: 일본 시모다 시의 사례 분석」, 『한국문화인류학』42(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 서간려, 「민속 마을 관광과 현지 문화의 변천 -광서성에 있는 용척 지역을 사례로」, 『남도민속연구』 14, 남도민속학회, 2007.
- 양선아, 「지방의 ‘문화관광’과 지역정체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이진교, 「민속마을의 관광지화와 시선의 재구성」,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2009.
- 정수진, 「근대문화유산의 근대와 탈근대」, 『비교민속학』 72, 비교민속학회, 2020.
- 조아라, 「문화관광지의 지역성 재구성 과정 : 일본 홋카이도 세 지방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한상일, 「우리시대의 관광자원으로서 민속의 가치구현에 관한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14, 실천민속학회, 2009.
- 한지은, 「근대역사경관을 활용한 도심재생 -상하이 구 조계지역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46, 대한지리학회, 2011.

자료

- 군위 화본마을 홍보영상 <깨끗한 이 마을에 가고 싶다>, 2018.12.18.
- 군위군 화본역 명소화 사업 계획서, 2010.
- 군위군청 홈페이지, <폐선철로·간이역, 추억의 녹색관광지 된다 -군위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사업 대상지 선정->, 군정새소식, 2010.03.15.
- 손현희, ‘젊음’을 찾아주는 박물관, 구경오세요, 오마이뉴스, 2011.07.21.
- 이기만, 군위군, 화본마을축제... “추억에 젖고 흥에 취하고”, 국제뉴스, 2017.10.03.
- 최재수, [엄마 아빠와 체험학습] 군위 근현대사 박물관, 매일신문, 2012.07.19.
- 홍석천, 추억을 담은 경북 ‘화본마을’ 전국 관광지 부상, CNB뉴스, 2014.11.29.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지역성의 재구성」에 대한 토론문

유승완(중앙대학교)

발표자는 화본마을의 사례연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지역성의 재구성에 대해 논해주셨습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인구가 적다는 문제도 있지만, 마을을 관리하고 지역의 기억을 전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기억하는 이가 없는 문화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효진 선생님의 연구는 화본마을을 사례로, 잊혀질 뻔한 마을의 문화유산을 마을 구성원들이 직접 복원해나가는 것을 조명한다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도출해내는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능동적인 참여등 인식변화가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점은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지역 문화유산을 관광화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마을의 재인식 과정과 지역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글은 분명히 화본역과 급수탑이 외부적인 시선과 평가에 의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재인식되었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모습과 지역성의 형성과정은 아무래도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가 읽기에 과정이라 함은 마을 회의라든지 주민들의 생각 공모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떤 기준을 거쳐서 확립되었는지 등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만, 너무 급하게 ‘간이역과 급수탑 재인식 이후’로 건너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주니까’, ‘사진작가들이 화본마을의 급수탑이 제일 크다고 하니까’, ‘외부인들이 역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하는 것들은 외부인들의 판단기준이 마을 주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토론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글에서는 위원장인 윤진기님을 비롯해서 동장 협의회, 자치위원들이 월례총회나 주례회의에서 화본역이 관광 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징으로 적합하다고 최종 판단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행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역의 신규 문화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만, 글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혹시 화본역이 선정되는데에 있어서 진정성이나 상징성

에 대한 의문 제기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티즌들이 좋다고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린스테이션 조성사업에의 선정이라는 외부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작용하여 별도의 갈등 없이 수동적으로 ‘멋진 역’으로 재인식된 것인지,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이 추가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능동성을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지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모습’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 마을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국가 사업에 선정된 것도 훌륭하지만, 그것이 지역성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자율적인 실천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령, 폐교된 산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추억박물관 ‘엄마 아빠 어렸을적에’ 전시실에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놓은 골동품 4만점이 있다고 조사하셨는데, 이 골동품들은 누가, 어떤기준으로 수집하고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마을주민이 하는것인지 지역의 전문가가 관여하고 있는지 등, 지역박물관 유물 수집과 구성은 어떠한 맥락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옛날 오래된 장통하고 여자들 옛날 일.. 지금은 쓰지도 않는 물레.. 오래됐는 거 있으면 달라캐서 췌지”

발표자께서 인용하신 오○자라는 마을주민의 말처럼 오래된 물품, 더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 위주로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정도면 우리 마을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생각해서 주는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주민들의 능동성이 지역의 관광개발이라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억 전달이라는 민속학적 관점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을에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주민이 관광객에게 보여주고, 표현하고 싶은 삶의 내용이란 무엇일까, 혹은 새롭게 인식된 마을의 문화유산을 어떤식으로 개인들의 삶에 녹여내고 있는가 등 확장될 논의 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관광자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것은 관광객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지역민들의 자긍심이나 행복도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별것 아닌걸 좋게 봐주고’,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활기가 돌고’ 등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텍스트상으로 느끼기에는 ‘외부 관광객이 돈을 들고와서 좋다’기보다는, 보다 순수한 입장에서 ‘누군가 우리마을을 찾아주기 때문에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변화들이 단지 ‘좋다’라는 느낌을 넘어, 마을 구성원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